

## II.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1. 국내민족운동
2. 해외민족운동

## II.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1)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 (1) 배경

1910년대는 일제 식민통치라는 전혀 새로운 현실적인 여건하에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야 하는 민족문제해결이 최급선무로 인식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의 민족운동방략을 반성하고 문제점들을 검토한 위에 폭압적인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대항할 수 있는 민족운동체제를 재정비하고 독립쟁취를 위한 새로운 운동방략 정립과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였다. 이같이 철저한 반성과 재정립단계의 준비과정을 통과한 까닭에 1919년의 3·1운동이 전민족적인 항일투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1910년대의 민족운동이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늠케 해준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한 직후 역사상 전례없는 폭압적 식민무단통치를 감행하였으니, 한국인은 일제의 민족적, 정치적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 자유조차 박탈당한 채 헌병·경찰을 비롯한 거미줄같은 감시체제하에 갇히게 되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민족운동을 위한 조직결성은 물론 운동체제의 재정비나 활동전개는 결코 쉽지 않았으며, 대체로 사전발각으로 운동자체가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제약이 많았던 시기였다.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1910년대는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비밀결사체의 조직원이 체포되었거나 조직이 해체당한 후에도 간단없이 이

어졌다. 이같은 조직력과 투쟁력을 기반으로 한 까닭에 3·1운동이 단기간에 전국적, 전민족적인 민족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19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의 구체적 실상과 그 특징을 규명하는 과제를 통해 민족운동사관 커다란 흐름 속에서 한국민족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3·1운동과 더불어 1910년대 민족운동 특히 국내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치가 올바르게 자리매김될 것이다.

1910년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각지에서 지속되는 한국민의 저항을 근절시키고 식민지 조선지배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專制的 軍國統治體制인 武斷統治란 식민지 통치체제를 확립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핵심 통치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총지휘자인 총독을 두어 통치를 담당케 하였다. 그런데 조선총독은 일본관제내에서 최고의 親任官으로 일본 조선 주둔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며, 일본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천황 직속직으로 육해군을 통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은 조선에서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통수권을 지님으로써 식민지 한국의 정권과 병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진 “독립된 왕국의 土皇帝” 같은 존재로 군림하였다.<sup>1)</sup> 이렇게 일제는 총독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식민통치의 무단성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총독부의 관료행정기구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 식민지 민중의 억압과 수탈을 수행하는 물리적 폭력기구나 다름없었다.<sup>2)</sup>

또한 안정된 식민지배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체계화와 함께 상비적인 무장폭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시책에 부응키 위해 마련된 장

1) 朴慶植, 《日本 帝國主義의 朝鮮支配》(청아출판사, 1986), 42쪽.

게다가 총독은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서고급에 없는 특별권한으로 총독의 법률효과를 가진 명령을 특별히 <制令>이라 하였다(朝鮮總督府, 《朝鮮法令輯覽》上).

2) 1914년에 실시된 지방행정 정리조치로 인해 민족내의 관료적 친일집단의 재생산구조가 형성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참여한 관료들의 경우 3·1운동시기 투쟁에 적극 가담한 이도 적지 않지만 3·1운동 이후에는 거의 지배구조에 기생하는 패관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조재희, <일제 초기 식민지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성격>(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92쪽.

치가 헌병경찰제도와 군대였다. 헌병은 그 임무가 첩보수집·의병토벌·검사사무대리·범죄의 즉결을 비롯해 민사소송조정·집달리업무·산림감시·어업단속·징세원조·묘지의 단속·노동자단속 그 밖에 일본어보급·농사개량 업무까지 관여하여 지방에서는 완전히 조선민중의 生死與奪을 관장하는 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였다.<sup>3)</sup> 특히 고등경찰은 조선 내의 사찰·정보 업무 이외에 만주·노령·중국·미주 등지에까지 그 손길을 미쳤다. 더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모든 생활을 철저히 탄압하고 규제하기 위해 헌병경찰에게 범죄즉결권을 비롯한 일정한 사법관의 특권을 부여하여 벌금·태형·구류등의 형을 부과·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헌병경찰을 전국 각지에 빈틈없이 배치하여 한국인의 동향을 감시케 하였다. 즉 총독부의 식민통치는 강제와 폭력에 기반을 두었던 것인 만큼 한국민중의 저항이 존재하는 한 헌병경찰의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sup>4)</sup>

일제는 이같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진 헌병경찰과 조선총독부만으로 도 부족하여 이를 무력으로 뒷받침하고자 전국의 요소요소에 일본정규군을 배치하였다. 朝鮮駐節軍이 러일전쟁 이래 의병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는데 강점 이후에는 일본육군 제19사단을 나남에 주둔시켜 북부지역을 관장케 하고 제20사단을 용산에 주둔시켜 중부와 남부지역을 관장케 하니 각각 그 지역의 주요도시에 연대병력 혹은 대대병력을 주둔시켰다. 이어 경상남도 진해와 함경남도 영흥만에 해군요새사령부를 설치하여 군사적으로도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헌병경찰과 군대배치 외에 헌병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의무소방대가 조직되었으며, 총독부 관리 이하 소학교

3) 朴慶植, 앞의 책, 44쪽.

4) 朴慶植, 위의 책, 46쪽.

점령 직후인 1910년 헌병기관은 653개소, 인원은 2,019명 경찰관서는 481개소, 인원수가 5,881명이었으나 1911년에는 헌병기관 953개소, 인원 7,749명, 그리고 경찰기관 678개소, 인원 6,22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3·1운동 발발 전인 1918년에는 헌병기관 1,048개소 인원 8,054명 경찰기관 738개소 인원 6,287명으로 증가하였다. 헌병·경찰기관의 수를 비교해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헌병경찰의 비중이 일반경찰보다 커져 1910년 경찰 74.4명 대 헌병 25.6명이던 것이 1911년에는 경찰 44.5명 대 헌병 55.5명의 비율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조재희, 앞의 글, 91쪽).

교원에 이르기까지 칼을 차게 하여 전 민중을 총칼의武力으로 위협하는 식민통치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일제는 민족운동을 강력히 근절코자 획책하였던 것이다. 특히 1905년 이래 전국에서 봉기하여 1907년 군대해산 이후 고조되어 가던 의병전쟁에 대해서는 강점 이전인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자행되었다. 일본정규군에 의한 ‘남한대토벌작전’이 있었는데 이 토벌작전은 병합을 앞두고 의병활동을 근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의병 ‘토벌’을 빙자하여 일반민간에 대해서도 철저히 탄압하였고 이 작전을 통해 전국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어 식민지 지배의 기초를 구축해 나갔다.<sup>5)</sup>

또한 정치활동은 물론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도 완전 박탈하였으니, 1910년 8월 25일 〈집회취체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일체의 정치결사·집회를 금지시키고 9월 대한협회·서북학회·진보당·일진회 등 모든 계몽운동단체의 강제해산을 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1907년 〈신문지법〉, 1909년 〈출판법〉을 공포하여 출판의 자유도 억압하여 《초등대한역사》·《동국역사》 등의 역사서, 《이순신전》·《프랑스혁명사》 등의 서적을 폐간, 발매금지 혹은 압수하였으며, 《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모든 신문도 폐간조치하였다. 단지 《京城日報》·《매일신보》·《서울프레스》 등 총독부 대변지인 어용신문만 남겨 모든 여론조작의 전위역할을 담당케 하여 완전 통제하에 두었다.

조선총독부는 또한 대한제국 시기에 왕성했던 근대적 민족교육에 대한 열기를 철저히 탄압했다. 통감부시기에 이미 각종 〈학교령〉을 만들어 학제를 개악하는 한편 관공립학교를 증설하여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 친일교육·일본어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어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서당에 관한 훈령〉을 공포해 서당과 사립학교의 설립 및 민족교육에 대한 통제를 가능케 하였다. 이 때문에 1909년 6월 말까지 인가를 출원한 1905개교 중 인가된 학교는 겨우 820개였다. 그것도 종교계 학교가 대부분이고 민족계 학교는 42개에 불과했다. 1908년 당시 전체 사립학교가 약 5천개였으나, 〈사립학교

5) 강만길, 《고쳐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23쪽.

령>이 적용된 후인 1910년 8월에는 1900여 개 교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sup>6)</sup>

일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실시하여 우선 1911년 8월 <朝鮮敎育令>,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여 국권회복운동의 구심점이던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한편 교육내용도 강제로 개편시켜 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수는 3·1운동 직전에는 742개 교로 줄어들었고 학생 수도 반으로 감소되었다. 강력한 법적제제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민족교육은 독립운동의 기초정립이나 민족적 역량증대에 기여한 바 적지 않아 사립학교 혹은 그 학생들이 3·1운동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sup>7)</sup>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자 오히려 서당교육이 신장되어 서당 수가 1911년 16,540개소 학동수가 141,604명에서 1917년 24,294개소, 학동 264,835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시기의 서당은 전통교육이나 봉건교육 일색이 아니라 외형상의 서당에서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항일교육이 가능하여 민족교육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당교육의 신장세에 당황한 일제는 서당교육을 통제하고자 1918년 <書堂規則>을 발동하여 서당의 설치억제와 교과과정에 대한 간섭 강화를 통해 민족교육을 봉쇄했던 것이다.<sup>8)</sup>

식민지 시기 전기간을 통해 일제의 교육정책은 문명적인 교육보급이란 명목하에 민족말살을 목표한 것이었으므로 이 시기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은 군신일체의 충효사상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아울러 조선에 대한 경제정책은 식량·공업원료의 약탈 및 상품판매시장으로서의 식민지적 경제로 재편성하는 방침이 그 특징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은 먼저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 1910년대는 그 기초 정지작

6) 朴慶植, 앞의 책, 143쪽.

7) 趙東杰, <1910년대 獨立運動의 變遷과 特性>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378쪽.

8) 趙東杰, 위의 글, 382쪽.

업으로서의 토지약탈과 지세수탈을 위한 이른바 토지조사사업을 감행한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9년이란 긴 세월과 2,456만 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1918년 11월에 완료되었다.<sup>9)</sup>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 일인기관의 소유 농토를 많게 하며 토지에 대한 자본제적 배타적 소유권을 수립하는 한편, 일본 농촌을 대신해 식량공급지화하여 쌀생산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토지소유권을 재조사하고 토지가격과 지형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신고주의의 약탈적인 방법으로 임야 및 민간인 공유지 약 1,369만여 정보와 미개간지 약 102만 정보, 농경지 13만 정보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국토 면적 약 2,225만여 정보의 약 62%에 해당하는 실로 방대한 것이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다 갖추지 못한 한국농민의 토지는 모두 조선총독부 소유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종래 농민의 권리였던 관습상의 경작권·賭地權·개간권·入會權 등을 부정하고 소멸시켰다. 즉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이 사업을 지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조선 후기 이래로 다양한 방법으로 증진되어 왔던 농민들의 권리를 소작권 부정이란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지세 산정과정에서 50%란 고율 소작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식민지 지주제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9) 토지조사사업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식민지 ‘근대화론’, ‘수탈론’ 논쟁과 관련지어 대립적인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재검토작업이 활발해졌다. 주요논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신용하, 《朝鮮土地調査事業研究》(한국연구원, 1979).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の研究》(東京大 東洋文化史研究所, 1991).

장시원,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조석곤,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민음사, 1997).

최원규,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사업연구와 문제점〉(《역사와 현실》 21, 1999).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130여 만 정보의 국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으며 이를 동양척식회사 및 일인들에게 헐값으로 또는 무상으로 넘겨 주어 일인이나 동척 같은 토지회사의 토지소유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sup>10)</sup> 즉 동척의 토지소유가 1910년 11,035정보이던 것이 1914년 70,144정보, 1919년에는 78,520정보로 증가하여 대부분이 조선인 소작농으로 구성되는 반국가적·식민지적·반봉건적인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되었다.<sup>11)</sup> 그 결과 조선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거나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면서 지세수입도 급증하여 식민지 지배의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sup>12)</sup>

일제는 토지약탈과 함께 산림도 약탈하고자 하여 우선 1908년 <삼림법>을 제정·공포하고 임야소유자로 하여금 지적과 면적도를 첨부해 신고케 하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한 것은 국유·민유의 구분에 의해 대부분의 임야를 국유화하였다. 1911년 기창출된 국유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경영하기 위하여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이어 1912년 8월 <조선국유산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을 공포하여 일인에게 국유림과 그 임산물을 수시 불하하는 길을 열었다. 그 결과 일인에 대한 국유림의 대부 및 불하가 대대적으로 행해졌고 이들에 의한 산림소유의 확대가 점증하였다. 반면에 조선민중은 그대로 무주공산에 입산하여 薪炭과 採草를 거두는 입회권까지 박탈당하였다. 또한 일인사업가에게 경영상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인 국유림경영을 확립하고자 1917년 조선임야조사사업을 계획·실시하여 조선임야의 소유권확립과 그 이전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임야소유관계로의 재편성을 시도하였다.<sup>13)</sup>

또한 일제는 일본공업발전의 원료공급지와 독점상품시장으로 착취하기 위한 경제체제개편에 착수하였다. 우선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

10) 신용하, 위의 책, 246쪽.

11) 朴慶植, 앞의 책, 77~78쪽.

12) 과세지는 52% 증가하였고 지세 징수액은 1911년 6,245,000여 원에서 1920년 11,157,000여 원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13) 강영심, <日帝下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研究>(<韓國學報> 33·34, 1984).

——, 《일제의 한국삼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8).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총독의 명령’·‘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反하는 경우 회사의 정지·금지·폐쇄 및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여 조선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자 하였다. <회사령> 공포는 조선인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의 적극적 진출을 피해 한국을 상품시장화하는 동시에 한국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그 근본 목적이었다. 실제 1918년까지 한국인회사의 경우 63개를 허가한 데에 반해 일인회사는 289개가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통계상의 수치로도 민족산업의 탄압실상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1915년 12월 <조선광업령>을 제정·공포하여 광업독점권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광업권의 등록제를 통하여 광산인가에 있어서 일인에게 우선권을 주어 일인에 의한 광산업독점의 길을 열어 놓았다. 심지어 어업부문에 서도 어업면허·허가제를 도입하여 한국인 소유의 유망한 어장과 왕실소유의 어장은 일인에 의해 약탈당하고 어장구역을 일인이 독점할 수 있게 재편성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폭력은 물론, 경제적 침탈을 위한 기초정지작업을 목표로한 1910년대 무단통치로 인해 한국민은 일체의 민족적·정치적·경제적 권리는 물론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식민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노예적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

## (2) 국내민족운동의 경향과 특징

1910년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전대미문의 무자비한 감시와 탄압으로 식민정책의 기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일제는 앞서 살핀대로 경찰과 군대는 물론 유사조직을 활성화시켜 한민족의 항일민족운동이 확대·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한반도 전체를 창살없는 감옥과 같은 ‘병영국가’로 만들어 놓았다.<sup>14)</sup> 그러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한국인은 한민족의 자존을 위한 투쟁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1910년대 민족운동은 이같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이전까지의 민족운동에서 노정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

14) 윤경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245쪽.

다. 우선 한말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된 구국운동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즉 1910년 8월 식민지라는 상황변화에 따라 非武裝 實力養成論에 기초한 구국계몽운동 계열의 운동노선과 武裝鬪爭을 주창하였던 의병계열의 운동론 모두가 그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반성하며 의병전쟁을 독립군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거나 계몽운동을 독립군양성교육으로 개편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기존의 노선을 고집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국권을 상실당한 상황은 민족운동가들에게 이전시대의 구국계몽운동계열의 비무장·실력양성론적인 운동노선 일변도나 의병전쟁계열의 무장투쟁노선만으로는 식민지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케 해 주었다. 노선상의 대립을 반성하고 상호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추구된 방략이 바로 독립전쟁론이었다. 독립전쟁론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일제와의 혈전을 통해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다는 방략이다. 물론 이 방략은 준비론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독립전쟁을 목적한다기 보다는 향후 발생할 전쟁에 대비해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축적해 독립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운동론이다. 또한 일본이 러시아나 미국과 일전을 겨루어야 할 경우 이 기회를 이용하려는 기회포착적인 성격을 띤다. 이처럼 독립전쟁론은 기존의 민족운동론인 실력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을 상호보완한 통전적인 운동론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1910년대 민족운동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운동체간 차별성과 분파성이 점차 희석되면서 독립전쟁론을 기조로 한 새로운 민족운동의 장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제의 무단통치하에서는 독립전쟁론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으므로 교육·계몽활동을 통한 실력양성론적 방법과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운동의 공간을 해외로 확장하면서 한편으로 민족운동의 전열을 정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를테면 한말의 의병전쟁계열은 1910년을 전후해 근거지를 국내에서 활동이 자유로운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갔다. 계몽운동계열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에 직면하면서 좌우로 분화되었고, 신민

회를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자와 인사들은 해외독립군기지 개척을 추진해 갔다.<sup>15)</sup>

우선 의병투쟁의 흐름을 보면 1909년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으로 쇠퇴해 가던 의병의 유격전은 전과 같은 규모는 아니라도 1910년 합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의 의병은 주로 황해도·강원도·함경도·평안도 등 중부 이북지역에서 10여 명 혹은 7~8명 정도 소부대의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공격대상으로 일부 친일지주나 부호 등도 목표로 했으나, 대개 헌병분견소·경찰서·국경수비대를 습격하면서 1915~16년까지 투쟁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말의 계몽운동을 계승한 계열은 민족의 근대적 역량향상을 도모하고 독립운동에의 인적자원을 공급하면서 독립전쟁구현을 위해 국외독립운동의 발판을 구축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병경찰체제의 철통같은 감시하에서 그나마 민중이 모일 수 있는 종교조직이나 학교, 그외 친지간의 친분을 이용한 비밀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비밀결사의 결성 및 그와 유사한 결사체를 통한 활동이란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식민지 상황에서 전개되는 일반적인 민족해방운동의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비밀결사의 원류는 구한말에 조직된 신민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이같은 비밀결사 결성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있었다. 1910년 7월 당시 통감부의 警務總長 겸 헌병대사령관인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郎)가 헌병대장에게 행한 훈시를 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sup>16)</sup> 통감부시절부터 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을 직접

15) 趙東杰, 앞의 글, 387~389쪽.

16) 그의 훈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등경찰에 대하여 약간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 … 대체로 보아今日は 폭도봉기(의병전쟁)의 시기는 지났다. 물론 다시 봉기하는 일이 없다고 보증기는 어렵지만, 내가 살핀 바로는 장래의 위험은 인민의 문명진보에 따라 일어날 無政府主義·社會主義 등의 위험한 사상에 빠지는 것이다. 원래 한국 사람은 우리 일본 사람의 성질을 닮아 학문을 좋아하고 관리가 되는 것을 바라며, 堅實한 實業에 종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풍조는 국가 變遷의 시기에 있어 더욱 심하고 많은 사람이 배운 문학, 법률학

경험한 바 있던 아카시 사령관은 향후의 항일투쟁 방향을 통찰하고 무력투쟁인 의병전쟁은 앞선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따라 그 세가 수그러져 고비를 넘겼으며 앞으로는 비밀결사의 결성이 가장 우려되는 투쟁방법이 되리라는 예상하에 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민족운동 탄압에 적용한 일제는 곧바로 신민회의 존재를 탐지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는 무단통치하에서 일체의 항일조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1910년 전후 평안도·황해도지역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던 新民會 및 이 지역 민족운동의 조직기반을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12월 ‘安岳事件’을 필두로 ‘梁起鐸 등 保安法違反事件’ 등을 날조하여 애국투사·청년학생 등 수백여 명을 체포해 국내 항일민족운동의 맥을 압살하려 하였다. 이어 1911년 이른바 ‘105인사건’을 조작하여 그 회원들을 체포, 고문함으로써 반일민족세력을 뿌리뽑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민족운동을 주도할 중심적 지도자 및 그 실행 조직기반도 철저히 파괴시켜버렸고 이를 기화로 예비검속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일제의 잔악성으로 인해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졌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단체, 특히 비밀결사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일련의 탄압 이후에도 전국각지에서 국권회복, 항일독립투쟁을 목표로 한 민족운동 및 비밀결사투쟁은 끊임없이 전개되면서, 민족운동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조직은 대체로 지연·혈연적인 모임이나 종교단체 혹은 학교 등을 활용하여 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양상은 당시 일제의

---

은 국가의 수요공급에 맞지 않고 이를 사용할 길이 없어 학식은 있는데 지위를 얻지 못한 인제가 많이 생겨난다. 이 많은 失意者는 곧 不平分子가 되어 歐美에서 社會主義者·無政府主義者 또는 혁명을 꾀하는 음모를 품은 무리들도 모두 이러한 사람이며, ... 그러나 그 불평분자가 폭도로 나타나 활동하는 경우 오히려 제어하기 쉬우나 그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비밀결사의 발생이다. ... 현재 한국에서 달아나 블라디보스톡·상해·芝罘에 있는 망명자들은 항상 이 나라의 惡政을 비판하고 있고 또 한국내에서도 學才가 있는 한국 사람 3명만 모이면 언제나 政事를 논의하는 형편이다. 실로 한국은 人心攪亂의 소질을 지닌 나라이다. ... 때문에 諸氏는 오늘부터 철저히 管内의 인물에 주의하여 連絡의 保持를 확실히 하여 틀림없도록 하라(姜德相, 《現代史資料》25 朝鮮1, みすず書房, 1966, 11~12쪽).

집회결사가 허용되지 않는 무단통치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직은 그나마 자연·혈연적인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된 종교단체 혹은 학교 뿐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소규모의 지역·혈연위주의 조직이나 종교 조직, 및 학교를 활용한 민족운동의 가능성과 방법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10년대의 민족운동단체들이 지닌 조직상의 특성에서도 이런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다양한 정치사상이 전개되었으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한말 공화주의 이념의 전통을 이었고, 또 신해혁명의 영향이나 해외동포와의 교류 그리고 러시아혁명의 영향도 받아 성장한 민주공화주의 사상이다. 공화주의 사상의 성장에 따라, 大韓光復會나 朝鮮國民會 같은 혁명단체도 일어나 활동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근대국가 이념을 심화시켜 갔다.<sup>17)</sup>

물론 1910년 8월 국권을 상실당한 초기에는 의병계열의 무장투쟁이 주된 흐름을 이루었다. 한말에 활약하던 의병들 중 국외로 근거지를 이동하지 않은 세력들을 중심으로 지역분산적으로 게릴라식 의병투쟁이 명맥을 이었으며 특히 채응언의 의병부대는 1915년까지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sup>18)</sup> 그러나 점차 일제의 강력한 탄압 및 현실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의병계 투쟁은 서서히 비밀결사조직체로 탈바꿈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1910년대 민족운동은 독립전쟁론을 주된 방략으로 한 비밀결사의 활동을 그 특징으로 하지만 그 밖에 교육·계몽활동을 통한 실력양성론적 방법과 형태를 취하는 단체들도 한 몫하였으므로 크게 의병계열·계몽운동계열 그리고 혁명적 경향의 운동으로 대별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 2) 의병계열의 민족운동단체

한말의 의병투쟁은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전개된 남한대토벌작전으로 탄압당한 후 그 세나 수적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활동범위도 좁아져 1910년

17) 趙東杰, 앞의 글, 388쪽.

18) 윤경로, 앞의 글, 248쪽.

식민지로 전락될 무렵에는 국내에서의 항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위축되었다. 이에 장기항전을 대비해 北計策을 추진하여 중국 만주나 연해주에 항전의 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지리산을 근거지로 삼아 의병을 정예의 독립군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였다.<sup>19)</sup> 그러나 소규모, 산발적인 의병항쟁은 강원도·황해도·경상도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며 1915년 혹은 1919년 3·1운동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구체적 활동상을 살펴보면 1910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의병활동은 교전회수가 128회, 참가의병수는 1,832명이었으며(1910년 9월~1911년 8월 교전 50회, 의병수 390), 1911년 9월에서 1912년 8월까지는 13회 교전, 70명의 의병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1912년 9월~1913년 8월 교전 5회, 의병수 45명으로 되어 있다.<sup>20)</sup> 1911년 이후의 의병활동은 경기 지방에 姜基東·田聖根·崔永宇, 강원지방에 朴文術·權泰鼎, 충북지방에 崔益三, 경북지방에 盧炳稷·史相斗, 전북지방에 鄭世昌·金學俊, 황해도지방에 韓貞萬·蔡應彦, 평남지방에 董宗贊 등의 부대가 활약하였다.<sup>21)</sup> 그 중에서 일제가 ‘회세의 巨賊’이라 할 만큼 눈부신 활약으로 신출귀몰하여 일본군경을 놀라게 한 의병은 강기동·채응언·鄭敬泰 등이었다. 때문에 일제는 현상금을 걸고 특별헌병수사반을 조직하여 이들 의병장을 체포하려 한 것이다. 강기동은 본래 한국군 기병이었는데 의병을 조직하고 크게 활약하여 한때는 예하 의병이 수백 명에 이르렀었다. 그는 경기도를 근거지로 하여 강원·함경도에서 맹활동하였으며 1911년 2월 원산에서 체포당한 후 용산에서 처형되었다.<sup>22)</sup>

채응언은 한국군 보병대 군조였는데 군대해산 후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3,40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평남·황해·강원·함경도 등에서 활약하였다. 국권상실 후에도 10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하여 신출귀몰한 게릴라식 항전을 전개하였으므로, 채응언 체포에 현상금 280원을 걸 정도였다고 하니 그의 활

19) 김상기, 《한말의병연구》(일조각, 1997).

20) 朝鮮總督府, 《朝鮮統治三年間成績》(1914), 7~9쪽.

21)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2(1968), 71~74쪽.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지식산업사, 1989), 68~69·365쪽.

22)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2, 74쪽.

약상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마침내 채응언도 1915년 7월 체포되었다.

한편 이들과 달리 의병근거지를 해외로 이동한 경우는 만주나 연해주로 망명하여 13도의군 같은 전국의병의 통합체를 조직하며 만주지역에서의 독립군투쟁으로 전환하여 무장독립전쟁으로 맥을 이어갔다. 직접적인 무장투쟁으로 항일전선에서 활약한 이들 의병계열과는 달리 국내에 잔존하였으나 직접 활동하지 않고 잠적한 의병들은 독자적 혹은 계몽운동계열과 연합하여 민족운동을 선도하였다. 그중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척사적 성격의 조직이 결성되었으니 大韓獨立義軍府와 民團組合이 그 대표적 비밀결사였다.

### (1) 대한독립의군부

1912년 고종황제로부터 〈密詔〉를 받은 낙안군수를 역임한 林炳瓚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결사체였다. 임병찬은 1906년 순창에서 최익현과 같이 의병을 일으켜 항전하던 중 피체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의병장이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귀국한 후 재기를 모색하던 중 1912년 9월 충청도 공주유생 이친이 전해온 고종의 밀조를 받게 되었다. 이 밀서에는 〈교지〉와 〈칙령〉 제3호로서 비밀리에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sup>23)</sup> 임병찬은 독립의군부 전라남도 巡撫大將의 직함으로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격문을 발표하는 한편 동지를 규합하였다. 곧이어 잠적한 호남지방의 의병 및 유생들과 접촉하여 고종의 밀조에 의한 독립의군부 결성의 취지를 전달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그 조직을 확대 강화시켜 나갔다. 1913년 1월 전 참관 李寅順이 또 〈밀칙〉을 받들고 찾아왔는데 밀칙에서 임병찬을 다시 단체의 전라남북도 순무대장으로 임명하여 독려하였다. 이에 임병찬은 아들 임응철을 경성으로 급파해 前참관 이인순·李明翊·郭漢一·田路圭 등과 활동방략을 구체적으로 협의케 하는 한편 전라남북도의 의병조직 결성에 착수하였다. 2월 4일 아들 응철이 다시 고종황제로부터 〈황칙〉을 받아 왔는데 임병찬을 전라남북도 순무총장겸 사령장관으로 격상시킨 밀지였다. 이로써 임병찬은 호남지방의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이듬해 2월 서울로 올라와 이명익 등

23) 교지의 내용은 “從二品嘉善大夫林炳瓚命獨立義軍府全羅北道巡撫大將者”라고 되어 있다.

과 독립의군부의 편제를 완결지었다.

독립의군부의 편제는 중앙 元首府에 兵馬都總將과 參謀總約長을 두고 서울을 비롯하여 강화·수원·개성·광주에 5영을 설치하여 사령총장과 참모부약장을 두었으며, 각도에는 순무총장과 참모약장을, 각부에는 관찰사와 도약장을, 각군에는 군수와 군약장을 두되 그 휘하에 약장·면장·이장·통장을 배치하여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1914년 2월 23일 각도·각군 대표를 선정하고 곧바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총대표는 임병찬·민정식·민정식·채상덕·전용규 등 27명과 각도 각군 대표 302명을 합쳐 329명에 달하였다. 각도 대표는 경기도에 崔永高, 충청도에 柳濬根, 경상도에 權鎭遠, 전라도에 李曾翊·崔永豐·吳啓曄·朴在球·李權濟, 강원도에 徐相烈, 함경도에 金性文, 황해도에 柳應斗·吳昌根·宋洛善이 각각 선정되었다.

조직구성을 완비하는 한편 투쟁방법으로 의병의 무력항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항일투쟁을 모색하였다. 우선 총독부·각국공사·일본정부에 각각 국권반환요서를 제출하여 일제 관헌들에게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국통치의 곤란함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외에 한국민이 일본의 통치에 계속 항거하면서 국권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 투서운동을 준비하였다. 이후 거사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조직원이 일경에게 체포되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1914년 5월에 사전 발각되어 독립의군부 조직은 봉쇄당하고 말았으니 항일의병을 일으켜 거사를 도모하기 전에 유림세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의군부 조직의 민족운동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자 임병찬은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에게 단독 면회를 요청하였다. 5월 29일 총독대리로 온 경무총감에게 한일합방의 부당함을 통박하고 국권반환과 철병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의 한국독립과 원조만이 동양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역설하였다.

임병찬은 이 사건으로 일제에게 피체되었는데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1년 감금형을 선고받고 거문도로 이송되었다. 그런데 일제는 1년 간의 감금이 끝난 뒤에도 그의 민족



운동 재개를 우려해 다시 2년간 유배기간을 연장하여 임병찬을 격리시켰다. 임병찬은 유배 중인 1916년 5월 순국하였다.<sup>24)</sup>

의군부의 중심지도세력은 임병찬을 비롯한 유생, 의병출신과 대한제국의 전직관료들로서 고종황제의 밀명에 따라 항일투쟁을 모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척사적 성격의 단체였다 할 수 있겠다.

## (2) 풍기광복단

1913년 경북 함창 사람인 채기중이 주도하여 조직한 것이다. 채기중이 풍기에서 庾昌淳·柳璋烈·韓焄·姜順必·金炳烈·鄭萬教·金相五·鄭雲洪·鄭鎮華 등과 함께 뜻을 합하여 결성하였다. 이 중 강순필은 이강년의진의 의병이었고, 유창순·한훈도 민중식의진의 의병이었으므로 의병적 성향의 인물들로 연결된 조직으로 성격지을 수 있다. 광복단의 방략은 독립군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모집에 있었다. 이를 위해 채기중은 姜秉洙와 함께 자금탈취를 계획하여 한때 일본인이 경영하는 영월의 중석광에서 광부로 잠입하여 활동했으며 부호가를 대상으로 자금수합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후일 대구의 박상진이 관여한 영주의 대동상점을 이용하여 각처와 연락하고, 독립군기지와 연락이 잦은 안동의 李種馥家도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만주의 독립군기지와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sup>25)</sup> 풍기광복단은 1915년 大韓光復會로 합류하였다.<sup>26)</sup>

## (3) 민단조합

民團組合은 1915년 경북 聞慶새재 주변에 거주하던 유생들이 국권부흥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사였다. 민단조합의 중심인물은 한말 의병대장 이강년의

2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2, 85~93쪽.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177~179쪽.

申圭秀,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1988).

25)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262~265쪽.

26) 趙東杰, 〈大韓光復會研究〉(위의 책), 281쪽.

참모장으로 충북·강원·경북지방에서 활동한 李東下, 이강년의 조카 李堤宰, 이강년의 軍資長이었던 崔旭永, 의병대장 李麟榮의 친동생인 李殷榮, 순국 의사 金濟欽의 아들 金洛文 등인데 이 중 대부분이 전술한 대한독립의군부에 관여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의병투쟁에서 활약하다가 국권상실 이후 재기의 거사를 암중 모색하던 중 1912년 국내에서 조직된 의병계열의 독립운동단체였던 대한독립의군부에도 가담하였거나 독자적으로 모종의 투쟁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우선 한말 의병대장 이강년의 참모장으로서 경북·충북·강원 각지에서 활동하던 이동하는 이강년이 일경에 피체된 후 강원도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가 이강년의 군자장 최옥영·이명선 등과 재회를 도모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동하는 국권상실 이후 1912년에도 국권회복운동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자 음력 12월 중국 안동현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간도 회인현·통화·유하현 등을 주류하다 1914년 9월 귀국하였다. 귀국 후 경북 문경·안동지역, 충청도 충주, 경기도 여주지역을 탐사하며 비밀결사를 계획하였다.

한편 의병대장 이인영의 친동생인 이은영은 형이 1910년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자 형의 유지를 계승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1913년 전북 유생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가담하였다. 조직이 발각되어 중심인물들이 피체되자 잠적하였다. 이후 경기·강원·충북·경북지방의 동지를 두루 방문하며 종적을 감추고 있던 중 이동하가 간도로부터 귀래한 뜻을 간파하고 민단조합결성에 찬동·기획하였다.

이식재는 이강년의 생질로 최옥영으로부터 국권회복을 기획하고 의병을 준비중이니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최옥영, 그 부하 등과 1914년 12월 충북 제천군 근북면 소재 면사무서를 습격하여 1백여 원을 강탈하는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914년 8월 김낙문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동하의 계획에 가맹하였다.

또한 1909년 9월 국운의 쇠퇴를 개탄하고 단식자살한 김제흙의 아들인 김낙문은 자결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항일의 뜻을 품고 상복을 벗지 않았던 인물이다. 서당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1912년 이래 이동하와 교

제하면서 이동하의 국권회복계획을 위해 자금과 수하를 조달하는 등 이동하의 배하인 노병식·김동연·강병수 외 수십 명과 기맥을 통하며 1914년까지 늘 자택을 비밀회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각종 운동을 원조한 바 있다. 일찍이 독립의군부에도 가맹했던 김낙문은 민단조합결성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외에 이세영은 헌병 정위로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사건에 가맹하였다가 중심인물의 피체 당시 다행히 체포를 면하고 간도로 도주하였다가 후에 민단조합에 참여하였다.

한편 이동하는 민단조합결성에 앞서 이은영과 그 동생 李茂榮, 충청북도 영동군 횡간면에 거주하는 李鍾晃 및 경성 출신으로 횡간에 거주하던 權寧直과 사전에 비밀리에 협의하여 민단조합의 본거를 경성에 두기로 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방법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동하는 권영직과 함께 경성으로 올라가 본거를 정하고 조직구성과 자금모집방안을 협의한 결과 권영직은 경상북도 지역에 동지를 규합하여 단세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자금을 조달기로 하였다.

문경으로 내려온 이동하를 비롯한 진술한 중심인물들이 모여 민단조합을 결성한 뒤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 지역을 총괄할 조합장을 선임하여, 이동하는 충청남도 민단조합장, 이은영은 충청북도 민단조합장, 이세영은 경상북도 민단조합장을 맡기로 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각지에 격문을 교부하여 동지규합에 주력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민단조합의 주된 활동은 주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유력자를 포섭하는 한편 운동자금수합이었다. 경성에서 이동하와 협의를 마치고 경상도로 내려간 권영직은 경상남도 밀양군에 거주하는 朴仁根·金康年·柳奉泰를 찾아가 ‘李太王殿下’의 칙명이라 칭하고 경성으로 誘出하여 박인근에게 義軍府正尉, 김강년에게 義軍府參尉, 유영봉에게 義軍府參領에 임명한다는 辭令을 교부하고 거사에 찬동케 하였다. 그런데 이 사령에는 ‘德壽宮’이란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사령을 받은 3인은 자금제공을 약속하고 귀향하였다.

이동하는 1915년 12월 귀향한 3인의 자금제공약속을 완수케 하기 위해 박인근을 방문하여 자금 2백원을 조달케 하여 함께 경성으로 올라오는 도중 충남 성환역에서 헌병대의 검문에 박인근이 소환당하자 이동하는 이를 피해

도주함에 자금조달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뒤 1916년 6월 이동하는 자신의 명의로 군자금 2백원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격문을 작성하여 단원 이식재로 하여금 경상북도 예천군에 거주하는 부호 朴尋洙를 대상으로 군자금조달계획을 실행케 하였다. 이식재는 이 격문을 휴대하고 박심수를 찾아가 군자금제공에 협조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청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 그 밖에도 경상북도 안동군에 거주하는 부호에게 수백원의 군자금을 제공하라고 위협을 가했지만 역시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이 어려움에 처하자 김낙문은 1916년 10월 중 강원도 영월군내에서 중석광을 경영하는 일본인의 경영자금을 강탈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경남 함창군의 채기중 외 부하 10여 명을 坑夫로 위장시켜 광산으로 파견하는 한편 이식재와 경북 영주군 풍기면의 趙禹卿도 영월로 파견하여 자금모집 활동케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sup>27)</sup>

민단조합의 활동이 드러나면서 조직의 실체도 발각나고 이동하를 비롯, 이은영·김낙문·이식재·최옥영 등 중심인물의 피체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동하·이은영·이식재·김낙문은 제천경찰서에서 취조당한 후 보안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sup>28)</sup>

문경에서 결성된 민단조합의 중심인물들은 60대와 40, 50대의 양반 유림들로서 구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보다는 의병재기를 위한 자금조달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자금 모집시 고종황제의 칙명을 빌어 낸 사령에 ‘의군부정의’·‘참의’·‘참령’ 등을 칭하여 독립의군부조직과 그 투쟁방략을 계승하려 한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대체로 독립의군부가 전라도와 충청남도 등 서남부지방의 북벽주의적 유림의 단체라고 한다면 민단조합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등 동남부지방의 유림조직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양자의 차이는 전

27)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28)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朝鮮 1, 50~53쪽.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259~260쪽.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29)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50~53쪽.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위의 책, 259~260쪽.

자가 의병활동의 재기에 중점을 둔 단체인데 비해 후자는 주로 의병활동을 위한 준비론적인 입장에서 군자금모집을 주된 활동계획으로 세운 점이며 이는 1910년대 독립운동론의 가장 기본적인 방략이던 준비론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군자금 모집 도중 발각되고 말았는데 이처럼 척사적 복벽주의가 계획단계에서 봉쇄되고 만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벽운동이 이미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30)</sup>

#### (4) 이증연의 비밀결사

1916년 6월 말 전라도 남원군 지리산에서 李增淵·黃海轍·崔鎭永 등 12명이 모여 국권회복을 위해 비밀결사체를 결성하였다. 이증연 등은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당한 것은 당시의 대신들의 잘못이므로 그 불충한 신하를 암살하고 국가 독립을 도모함을 임무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각자 오른손 食脂를 잘라 결의사항을 혈서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 ① 병합에 찬성한 구한국 각 대신을 암살할 것.
- ② 조선의 독립을 도모할 것.
- ③ 병합에 관한 조약문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것.
- ④ 병합 당시 작위를 받은 자를 암살할 것.
- ⑤ 建陽 元年 12월말일 까지 다음 각항을 실행할 것(건양 원년은 1916년).

조직원인 金炳祐가 1917년 2월 피체되어 조직이 발각되었으며 이증연·황해철·최진영은 이에 앞서 1916년 음력 8월 각기 조직확대를 위해 해외로 간다고 출발하였다고 하여 체포를 면하였다.

이들은 거사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자산가를 대상으로 과거 조선 황실의 은덕을 입은 이들에게 금전을 기부하여 大事의 성취를 도우라는 내용을 三國大都督 이증연, 朝鮮大元帥 황해철, 朝鮮副元帥 최진영의 명의로 보낸 문서를 남기고 있다.

구한국 시절 일제에 협력한 부류들을 처단한다는 입장에서 의협투쟁방법

趙東杰, 〈大韓光復會研究〉, 367~368쪽.

30)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368쪽.

을 시도하고자 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모종의 대사를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드러난 조직 명칭을 미루어 볼 때 척사유립적 성향의 인물들이 중심이 된 의병적 투쟁을 전개하려 한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이 조직에서 피체된 김병우는 1917년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언도받고 복역하였으며 출옥 후 다시 충남 부여·홍산·서천 등지를 다니며 기존의 조직을 기반으로 동지를 포섭해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自進會를 결성하여 활동 중 체포당하였다.<sup>31)</sup>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1) 기성불단

기성불단은 1914년 5월 평양에서 대성학교 학생 및 대성학교와 관련된 청년,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은 역사적으로 보아 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일찍부터 상업활동과 신문화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서구문물과 기독교의 수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민족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나 각종 단체가 조직되었다. 그 결과 구국 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아울러 새로운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이 지역을 항일의 소굴로 여겨 민족운동의 근거지를 없애고자 ‘안악사건’·‘105인사건’ 등을 날조하여 서북지방의 지도층인사 및 민족운동조직을 뿌리뽑았던 사실은 주지한 대로이다. 이처럼 계몽운동 및 국권회복운동의 중심지인 서북지방은 안악사건·105인사건 등으로 인해 민족운동조직이 파괴당한 후 그 활동이 미미해졌다. 그 대신 이 지역에서는 신민회의 구국운동의 정신적·물질적 기반을 계승해 직접 교육을 받은 지식청년들을 중심으로 비밀결사가 결성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31)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21~23쪽.

대체로 1910년대 국내에서의 비밀결사는 1915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수가 결성되는 추세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아울러 일본의 중국 山東 지역 출병으로 중일전쟁의 開戰說이 널리 전해지던 당시의 국제정세변화를 독립운동의 適機로 포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최초로 발각된 기성불단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결성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조직결성 이후 단시일내에 일제측에 발각된 까닭에 조직확대나 활동상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한계점을 갖고 있었지만 청년학생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발빠른 대오정비에 앞장선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기성불단은 1914년 5월 평양에서 金永胤이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지와 함께 결성한 비밀결사조직이었다. 조직 당시 동지들의 협의에 따라 김영윤이 총무가 되었다. 기성불단은 대개 평양 대성학교 출신자 및 학생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결사체인 까닭에 주도 인물들이 당시 대성학교 교사였던 동암 車利錫과 협의하여 그에게 고문직을 위임하였다. 이후 김영윤을 비롯한 주무자들은 우선 단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제와의 투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무력양성이란 판단하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선 총무인 김영윤 등은 단원을 독려하면서 애국청년에게 “지금 우리는 안일을 탐할 때가 아니라 해외에 유학하여 우국지사와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득하면서 미국의 네브라스카(Nebraska) 무관학교나 서간도 무관학교에서 배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솔선수범으로 姜原燮 등 수명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 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들은 무관학교 외에 북경·상해 혹은 노령 방면 또는 미국 등지로 건너가 학업에 전념하면서 후일 국권회복운동에 투신할 준비를 위해 투쟁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성학교 출신자 이외에 평양지역 청년 약 25명 정도가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결성 이후 비밀리에 단원확대와 준비론적인 운동역량 강화에 노력하던 중 불행히도 1915년 3월에 일경에 의해 피체되었다. 이들 단원들의 피체 당시 일제측에 압수된 증거물 중 무관의 계급·복제를 帝國제도와 대조해서 기재하거나 미국 네브라스카 무관학교의 교과목을 기재한 수첩과 中文으로 된

군대교육에 관한 문답서가 들어 있었다.<sup>32)</sup> 이러한 면은 기성불단이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적인 운동방향을 이어받아 독립만회를 위해 선택한 투쟁방법이 무엇이었나를 짐작케 해 준다.

기성불단은 동시기에 결성되어 활동하던 다른 비밀결사처럼 합방 이전의 의병투쟁적 전통이나 애국계몽운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동단의 경우 계몽적인 성향도 보이나 단원들에게 군사교육을 강조하고 군사조직 등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던 흔적들이 엿보이므로 투쟁적인 성향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동단이 존립했던 1910년대는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와 주밀한 감시체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비밀결사 중심의 투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기성불단을 위시한 여타의 비밀결사운동은 활동상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고 그 지도인물의 사상적 차이 등으로 인해 복잡성을 내포한다는 한계점도 가진다. 그렇지만 각 계층의 우국지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민족주의사상을 이념적으로 무장한다는 점과 각 단체의 영향권내에 속한 국내 각지에서 비밀리에 회원을 조직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국권회복을 위한 각인각양의 힘의 결집을 호소하면서 국내 민족역량을 축적코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2) 조선국권회복단

朝鮮國權恢復團은 1913년 1월 경북 달성군에서 尹相泰·徐相日 등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즉 1913년 1월 15일에 서상일이 달성군 수성면의 안일암에서 정월대보름의 詩會를 가당해 모인 윤상태·서상일·李始榮·정운일·홍주일 등과 국권회복을 위한 결사체 조직을 협의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그런데 서상일은 대구출신으로 보성전문학교 교 법과에 입학해 신학문을 이수한 후 한말 대구지역 계몽운동단체인 달성친목회를 이끌며 구국계몽운동 일선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서상일은 이후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자산가이면서 항일의식을 겸비한 윤상태를 영입하면

32)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1~4쪽.



서 단의 기초를 다졌다. 1914년 초 의병출신인 김규·황병기 외 무장투쟁적 성향이 강한 홍주일·김제열 등을 합세시킨 뒤에 달성친목회의 기존 조직기반을 적극 활용하면서 단세를 확장시켰던 것이다.

국권회복단의 결성 초기에는 국내에서의 단세확장, 해외운동세력과의 연계 및 지원, 궁극적으로는 독립쟁취란 목표를 정하였다. 또한 국권을 회복할 것, 단군의 위패 앞에 목적수행을 기도할 것, 단원은 임의탈퇴 엄금, 비밀누설 엄금 및 위반시 단죄 등의 내용을 적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기 연서한 후 단군위패 앞에서 독립투쟁에 진력할 것을 맹세하는 등 강력한 투쟁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1914년 1월 15일 안일암에서 연례회합을 갖고 조직구성을 구체화하였다. 본부격인 중앙총부와 지부로 편제하여 중앙총부를 대구에 두고 總領 휘하에 외교부·교통부·기밀부·문서부·권유부·결사대를 두었다. 지부가 설치된 곳은 마산 뿐이지만 그 외 지역에는 대구에 태극상회·향산상회 등을 연락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sup>33)</sup> 총령에는 윤상태, 외교부장에 서상일, 교통부장에 이시영·朴永模, 기밀부장에 홍주일, 문서부장에 서병용·이영국, 권유부장에 鄭舜永, 결사대장에 황병기, 마산지부장에 안확이 각각 선임되었다.<sup>34)</sup>

기구조직을 완비한 후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앞서 단원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종교조직을 적극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천도교는 홍주일, 기독교는 정순영이, 불교측은 서상일·서병룡 등이 단원귀합에 앞장섰다. 국권회복단의 활동은 대략 결성 이후 1915년 4~6월 경 군자금모집사건을 계기로 방략상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일부 단원이 이탈하기 전까지와 1919년 3·1운동 발발 이후의 활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33) 양 상회 이외에 서상호의 미곡상(통영) 등이 연락거점 및 재정조달의 기지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원산의 원흥상회에 윤창기가, 부산 백산상회에는 남형우, 마산의 원동상회에는 마산지부원 이형재가 각각 그 경영에 혹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상회들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강영심, 〈朝鮮國權恢復團의 結成과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150~151쪽).

3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1988), 국권회복단 1.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8(1989), 국권회복단 2.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1989), 3·1운동과 국권회복단.

초기의 활동으로는 講遊園懇親會란 청년단체를 조직하여 달성친목회와 더불어 동단의 표면단체로 활용하여 단세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과 군자금모집 활동이 있다. 간친회는 1913년 3월에 서병용·윤창기·홍주일 등의 발기로 이루어졌는데 독립운동가들과 기맥을 통하고 해외유학생 및 조선내 학생을 대상으로 항일사상을 고취시켜 이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다. 이를 위해 매주 1회씩 집회를 열고 학술강의를 통한 지식계발,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단련을 도모해 독립운동역군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회원수가 40~50명에 달했던 점으로 미루어 활동이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달성친목회가 중견인사들의 단체였다면 간친회는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조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 단체는 1915년 정운일·김재열의 군자금모집활동이 발각난 이후 그해 9월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당하였다.

국권회복단은 또한 만주나 노령 등 해외 동지에게 군대양성과 무기구입을 위한 군자금 조달을 통한 독립군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1915년 4월에 정운일과 김재열은 최준명·최병규 등과 대구의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조직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단 내부에서 운동방략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갔다. 이에 무력투쟁적 성향이 강한 정운일·김재열 등이 단을 이탈하여 박상진의 대한광복회에 합세하였으며 이후 의병출신의 김규와 황병기·정순영·이시영도 단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국권회복단의 거점의 하나였던 강유원친목회나 달성친목회가 해산당하면서 단의 조직력에 타격을 입은데다가 1916년 9월 대한광복회의 군자금모집사건의 영향으로 단의 조직과 활동도 더욱 위축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권회복단은 운동실행계획에 일대 차질이 생겼고 주위상황도 여의치 않아 이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단세를 보존하던 중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비로소 활동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3·1운동이 발발한 이후 윤상태·서상일을 중심으로 안확·이형재·김기성·南亨祐·卞相泰·申相泰·金應燮·배중세·이순상 등이 모여 거족적인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우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는 한편, 국권회복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결행하고 마산지역은 지부장인 안확을, 신상태·변상태는 경상남도 통영과 창원지역의 3·1운동 확산을 담당케 하였다.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자금을 모집할 것과 아울러 외교적인 방법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조선독립청원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군자금모집은 서상일과 김재열이 담당하였고 〈독립청원서〉 작성은 윤상태가 주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자금모집을 담당한 서상일은 서상환을 통해 통영의 대부호인 친척 서상호에게 자금지원을 종용하여 일정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서창규·배상연 등으로부터도 일정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김재열은 달성친목회원으로 친분이 있던 김유덕을 통해 그의 친척인 김유경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는 등 두 사람의 활약으로 적지 않은 군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합된 자금은 남형우와 김응섭이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sup>35)</sup>

또한 서상일은 임시정부에서 정부수립사실을 일반 민중에게 알리고 그 협조를 종용케 하는 포고문의 배포활동도 전개하였다. 이 문서는 안동현의 박광이 경영하는 곡물상의 고용원인 文相直이 임정 통신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국내 남부지방에 반포할 임시정부 선포문과 강령이었다. 이 문건에는 임시정부의 설치를 선포하면서 조선민족은 일본통치를 벗어났으니 일본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후로 유혈의 참상을 보더라도 독립운동을 수행하여 완전한 정부를 조직할 때까지 조세 등 일체를 납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sup>36)</sup> 임시정부의 선전문을 전달받은 서상일은 이를 경상도 일대 동지들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통영의 서상호에게 배포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국권회복단은 독자적으로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하는 한편 국내외에도 배포하여 조선민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천명코자 한 것이다. 청원서는 월탄면의 유생 張錫英에게 작성을 의뢰하였으며 작성된 청원서는 상해 임시정부로 파견되는 김응섭이 비밀리에 반출키로 하였다. 상해로 가져가 이를 번역·인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국내

35) 강영심, 앞의 글(1990), 161~162쪽.

36)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197쪽.

외 각지에도 배포할 수 있었다.

창원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변상태는 진전면 진동리로 돌아왔다. 이에 단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변상섭·권영대 등과 협의하여 4월 3일 삼진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협의하여, 인근 각리의 구장을 통해 면민들에게 거사의 취지와 실천방법을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마침내 거사당일인 4월 3일 아침 양촌리 천변에 대형 태극기가 세워지자 일암리·양촌리·봉암리의 군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변상태의 독립당위성에 대한 선포를 시작으로 변상섭의 <독립선언서낭독>에 이어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군중이 읍내로 전진하면서 인근 진북 진동면의 면민까지 합세해 1천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2시 경 진동주재 헌병 및 보조원 재향군인들이 무장한 채 시위군중을 향해 발포하여 8명이 순국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시위대는 무력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진동·진북·진전면민이 함께 의거에 참여한 삼진의거는 수원·선천·수안의거와 함께 4대 의거로 일컬어질 만큼 규모가 컸던 투쟁이었다. 이렇게 삼진의거는 국권회복단의 활동의 일환으로 3·1운동 시기 남부지방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던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단원들의 신속한 활약으로 대규모 항일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권회복단의 이념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독립실현의 당면과제를 해결키 위해 민족이 聖祖인 단군을 奉仕하는 대중교의식을 빌어 단원의 일체감을 형성코자 하였다. 즉 단군교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重光 속에서 단군이 세운 조국의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대중교적 민족의식을 국권회복단의 강령처럼 받들고 있다.<sup>37)</sup>

이렇게 국권회복단은 1910년대 망국으로 인한 독립운동의 주객관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독립운동방략을 정비키 위한 일환으로 경상도 일대의 계몽주의적인 중산층과 의병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독립쟁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것이다. 대구를 거점으로 결성되었지만 점차 경북 서남부와 경남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던 조직이다. 활동도 계몽활동과 상업활동이나 무력에 의한 군사금조달 등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동단은 후자가 주류를

37) 강영심, 앞의 글(1990), 156쪽.

이런 상황 속에서 노선상의 갈등이 표면화하자 의병계열이 이탈함으로써 무장투쟁적인 측면은 약화되고 점차 계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단체로 변모되어 갔다.<sup>38)</sup> 이후 활동을 재개한 3·1운동 시기에는 독립운동 자금조달과 임시정부 선전문 배포를 통한 임시정부 지원활동, 외교적 방략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 작성, 남부지방의 독립운동 결행계획의 일환으로 三鎭義舉주도 등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권회복단의 변화 모습 속에서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이 새로운 이념과 전략을 모색하면서 무단통치란 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면모를 살필 수 있다.

### (3) 조선산직장려계

朝鮮産織獎勵契는 1915년 3월 京城高等普通學敎員養成所에 재학중인 李用雨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경제사상 운동조직이었다. 경성 교원양성소 학생들은 1914년 10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당시 일본의 현대적 문물제도의 발달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 민족도 상당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영구히 일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국하자마자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방법을 강구하던 중 1915년 1월 학생들의 회합에서 이용우는 양성소를 수료하고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게 된 후에도 경제사상운동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학동 및 청년층에 대해 조선혼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며 일본인에게 빼앗긴 각종 사업을 조선인 스스로 흥하게 할 조직을 결성하여 민족부흥의 길을 도모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본에 탈취당한 경제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하여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점도 결의하였다.

이를 실현하고자 이용우는 당시 휘문중학교 교사인 南亨祐와 상의하였으며 다시 그의 소개로 崔南善에게 자문을 구하여 찬동을 얻었다. 그러나 취지에 걸맞는 조직구성은 경성훈련원 생도들의 힘만으로 설립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 후 남형우가 중심이 되어 각 중등학교 교사들 중 조직결성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협의하였다. 마침내 1915년 3월 학교 교사가 주주가

3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9.

되어 조선산직장려계를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의 임원으로는 계장에 중앙학교 교사인 崔奎翼, 총무에 尹稷植, 회계에 崔南鮮·閔溶鎬, 서기에 李鎭石(보성중학 졸업)·嚴柱東(보성중학 졸업), 協議員에 柳瑾·남형우·金昌德(직물업)·吳相鉉(한성병원 주인)·金枓奉·白南雲(청년회원)·安鍾建(청년회원)·李康現(중앙학교 교사)·金駟(보성학교 교사)·朴重華(휘문의숙장) 등이 선임되었다. 계의 운영은 주식제도를 채택하여 1주에 20원으로 하였으며, 계원 한 사람이 10명의 주주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회원은 각지의 학생과 교사로 구성되었는데 그 수가 130여 명에 이르렀다.<sup>39)</sup> 130명 중 44명이 보통학교 혹은 사립학교 교원이었고 17명이 경성양성소 학생이었다. 특히 최규익·김덕창·이강현은 직물업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인물들로서 산직장려계를 이끌 수 있는 중추적인 인물들이었다. 또한 이 장려계에는 당시 국내의 이름있는 신지식청년층은 거의 망라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일반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근·白南奎(중앙학교 교사)·李用雨(興海公立 보통학교 훈도)·金成洙(중앙학교 설립자)·安在鴻(중앙학교 학감)·張志暎(경신학교 교사)·申錫雨·朴勝喆 등이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간행되는 독립운동신문인 《國民報》를 비밀리에 반입하여 구독하게 하였으며, 일본에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東遊誌》 90부를 비밀리에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민족적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였다. 이강현이 산직장려계의 창립동기를 “조선의 원료로 조선에서 조선인이 방적하여 조선인이 製織하여 조선인이 착용하자”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自給自作을 통해 한국인 민족자본의 성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sup>40)</sup> 따라서 조선산직장려계는 1920년대 초에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으로 전개된 물산장려운동과 그 취지와 목적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sup>41)</sup>

39)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앞의 책, 260~264쪽.

40) 李康賢, 〈朝鮮産織獎勵契에 대하여〉(《學之光》 6, 1915).

41) 박찬승은 일부 연구자들이 조선산직장려계를 1910년대 각종비밀결사 가운데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단체였음을 지적하였다(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142~145쪽).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서북지방의 중산층 지식청년이 큰 타격을 받은 뒤 여타의 청년들은 산직장려계로 일단 연락망을 갖춘 셈이었다. 105인 사건의 관련인사가 대개 한말 신민회와 관련이 깊었다고 보면 한말 계몽주의의 좌파적 인사였다고 할 수 있는데 1915년의 산직장려계의 조직은 계몽주의의 우파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이들은 1916년 3월 보안법위반으로 고생하였지만 대부분이 교원이었으므로 일선에서 남긴 민족교육의 영향은 3·1운동에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 (4) 단천 자립단

端川 自立團은 1915년 8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姜明煥·方周翼·朴承赫 등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결사체이다.

1915년 5월부터 함남 단천군내 기독교계 인사인 崔錫熙와 李洪容 등이 강명환을 동지로 포섭한 후 강명환은 평소 친분을 맺어오던 방주익과 박승혁에게 비밀조직 결성의 뜻을 전했다. 그리하여 뜻을 함께 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단천읍내와 水面·廣泉面 등지를 두루 다니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내심으로 거부하고 국권회복의 의지를 품고 기회를 엿보던 사숙교사 劉昌律·李恒根·원처상·이임배·이동섭 등과 합심하여 독립에의 의지를 펴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9월 15일(음력) 방주익·강명환·유창율·이항근 등은 이임배·이동섭·최석희·이홍용 등과 함께 단천군 福歸面 용암리의 산상에 모여 자립단 조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단원은 決死로 구한국을 광복시킬 목적을 담은 맹약서인 <자립단규칙서>를 작성하고 이후로 수 차례 밀회를 거듭하여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자립단을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1915년 음력 11월 5일 방주익·박승혁·강명환·유창율·沈恒基·崔泰亨·薛寬學은 전성익·전율봉·최만중 등과 함께 단천군 수하면 하농리 장

42) 趙東杰, 앞의 책, 380~381쪽.

이 글에서 '우파'란 개인적으로 민족적 양심과 민족독립을 지향하지만 직접적으로 체제부정적 혁명전략을 취하지 않는 온건파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와 타협하는 개량주의와는 다르나 개량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류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암촌에 있는 서당에서 비밀회합을 개최하고 단조직과 운동노선에 관한 동지 간의 의견이 접근되자 곧 자립단 맹약가입과 규칙서를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단장에 방주익, 부단장에 全性翊, 총무에 박승혁, 조직에 강명환, 재정에 심항기, 서기에 최태형이 각각 선임되었다.<sup>43)</sup>

자립단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의 연령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며 그 외 30대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은 농업, 상업이나 숙박업, 그외 사숙교사 등으로, 다양하나 상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점이 아마도 상업투자에 따른 이익금으로 운동자금마련의 한 방안을 채택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편적인 자료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의 단체라는 점과 함께 비밀회합을 하는 경우 기도를 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기독교계 인사들이 종교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까닭에 비밀결사조직을 완수할 수 있었다.

단 창립 이후 제일 먼저 군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단천군에 인접한 利原·北靑·城津·吉州·豊山·甲山 등지로 조직을 확대하여 많은 단원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립단은 운동자금확보를 위해 단원들로부터 단비를 각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단원들로부터 특별회사금과 입단금 1원, 그리고 月捐金 20전씩의 단비를 받아 단의 기금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결의한 것이다. 자립단의 활동은 주로 준비론적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교육계몽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확보된 단의 기금을 상업경영에 투자하여 利殖을 꾀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자금으로 단원의 자제 및 인근 청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즉 자제를 위시한 학생들에게 구국교육을 실시하여 장래의 혁명에 대비한다는 준비론적인 교육계몽활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기질 배양을 목적으로 수하면에 ‘光復靑年練成所’를 설치하고 대한독립군에서 배속시킨 교관의 지도하에 독립군을 양성해 왔다.

이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던 중 1916년 3월 불행하게도

43) 《判決文(형사재판원본 京畿覆審法院)》, 大正 5년 4월분·大正 5년 刑控 제116호, 《每日新報》, 1916년 3월 19일·4월 2일.

단천군지편찬위원회 편, 《端川郡誌》(1971),



일본헌병대에게 조직이 발각되어 단원 19명이 단천헌병대에 피체되었다. 이때 체포를 면하고 노력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한 지사만도 200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44)</sup> 피체된 단원들은 심한 고문을 받은 뒤 함흥지방법원 永興支廳에 송치되어 이른바 ‘保安法違反嫌疑’로 재판을 받았다.<sup>45)</sup>

단천 자립단이 추진하려던 운동방법으로 미루어 한말 계몽운동의 전통을 이은 기독교인들이 실업진작, 구국교육에 역점을 둔 계몽운동을 전개하려던 단체로 규정지을 수 있다.

#### (5) 영주 대동상점

1915년 경북 영주군의 풍기공립보통학교 교사인 박제준과 權寧睦이 영주 시장에 大同商店이란 잡화점을 경영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고 일본관헌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으로도 이용하고자 하였다. 박제준은 감독에, 권영묵은 경영주임이 되어 유명수·정응봉 등을 포섭하여 상점을 경영하였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먼저 국제정세의 변화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박제준과 김노경이 만주를 다녀왔다. 그리고 이듬해 3월까지 만주로 전원 망명기로 결정하고 상점을 정리하여 폐쇄한 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과 협의하였다. 그 후 권영묵을 선발대로 만주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등 활동하다가 1918년 일본관헌에게 발각되었다. 대동상점은 박상진이 이끄는 대한광복회의 연락소가 되었는데 이런 상점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군자금출납을 위장함에 적절한 방법이었으며 당시 〈회사령〉으로 인해 다른 민족기업이 봉쇄당하고 있던 경제적 탄압하에서 잡화상이나 곡물상 이외에 다른 경영체를 설립키 어려운 중산층이 채택한 지혜였다고 할 수 있다.

44) 단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45) 《判決文(형사재판원본 京畿覆審法院)》, 大正 5년 4월분・大正 5년 刑控 제116호. 재판에서 단장 방주익, 총무 박승혁, 조직 강명환은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경성북심법원의 2심판결에서 방주익・박승혁・강명환과 심항기가 각각 징역 1년 6월, 유창율은 징역 1년에, 설관학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6) 송죽회

松竹會는 1913년 평양의 崇義女學校 교사 黃愛德·李孝德, 崇賢여학교 교사 金敬熙, 기독교도 安貞錫 등이 朴賢淑·李馬大·蔡光德·宋福信 등 20여 명의 학생을 포섭하여 송의여학교 기숙사내에서 조직한 비밀결사이다.<sup>46)</sup> 1910년대 여성들이 조직한 유일한 비밀결사였으며 일제시대 민족운동조직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조직형태는 철저한 점조직으로써 회원명부도 만들지 않고 이름도 별명을 사용하는 등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하였다.

회원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수예·편물 등으로 자금을 마련, 월회비를 납부케 하여 적립된 자금을 해외 독립운동자금으로 송금하였으며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는 애국지사들에게 필요한 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평양 시내 교회부인회와 접선하여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함양시켜 여성에 대한 계몽운동을 추진해 갔다.

1916년 동회는 지방조직에 착수해 대부분 동교 졸업생으로 장로교계통 여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회원을 지방책으로 삼아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 조직을 성공리에 이끌어 일제 말기에는 일본·하와이·미국 본토에까지 조직이 확대되었다.

## (7) 애국창가집 편찬, 배포와 관련된 민족교육투쟁

1910년대는 철통같은 무단통치의 감시체제하에서는 정치·경제 등 민족적 기능이 봉쇄당한 까닭에 교육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주로 민족교육이념이 투철한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교육강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조국사랑 노래나 독립군가·애국가 등을 수집하여 비밀리에 唱歌集을 편찬한 뒤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전파하였으며 이외에 금지된 민족역사서나 인물전 등도 비밀리에 교육시킨 유형의 투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sup>47)</sup>

46) 송의여자중고등학교, 《송의60년사》(1963), 128~132쪽.

47)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8~16쪽.

## 가. 한영서원 애국창가집 발매반포투쟁

1914년 경기도 개성 사립 韓英書院 교사 申永淳·李常春 등이 배일사상양성에 일조하고자 국권회복을 고무하는 창가 편찬을 협의하였다. 신영순·이상춘은 수편의 애국창가를 作歌하고 동간도에서 창가를 수집해서 갖고 있던 이경중 목사에게 이를 제공받은 다음 윤치호가 지은 〈애국가〉를 포함해서 1914년 8월 제1권 40부를 인쇄하여 한영서원 및 호스돈여학교 생도에게 발매·반포하였다. 이어 1915년 9월 제2권 90책을 인쇄·반포하였다. 1916년 신영순·이상춘 등 6명은 이 사건으로 보안법위반 및 불경죄로 피체되었으며 이후 음악교사 鄭士仁, 학감 李萬珪, 음악대 생도 10명, 사립 호수돈여숙교사 등 22명이 추가로 피체되었는데 음악교사와 생도들은 창가를 연주한 행위를, 尹滋亨과 李致善은 1912년 10월 이와 유사한 창가집을 편찬한 사실을, 그외는 창가집의 배포와 관련된 활동을 문제시하였다.

창가집 편찬취지에 대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感發하는 것은 가곡이 제일이다. 故로 구미제국에서 巨擘의 시인 및 음악가의 미묘한 시조와 가곡으로서 국민의 정신을 함양한다고 한다. … 현시 유식대가의 저작에 계한 미묘한 가곡이 적지 않으나 각지에 산재해서 통일되지 못해 … 가곡 백여 종을 수집편찬하여 … 청년동지에게 소개한다(姜德相, 《現代史資料》25, 10쪽).

이처럼 국가흥망성쇠의 열쇠는 곧 국민정신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중요시하면서 그 함양을 위해 조국을 생각하는 노래·독립군가·애국가를 모아 창가집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이같은 취지를 담은 애국창가를 수집·정리하였으니 그 중에는 일본의 황제나 황가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곡이나 역대 영웅적인 인물의 책왜상을 표현한 곡들이 대부분이었다. 곡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제46. 영웅의 모범

2. 일본황제를 家僕으로 삼고, 일본황후를 下婢로 삼는다.

사역시킬 것을 맹세한 昔干老의 壯心を 우리는 모범으로 해야한다.

7. 賊 이등박문을 노령에서 피습하여  
三發三中 사살하고 대한만세를 부르짖은  
안중근의 그 의기는 우리가 모범으로 해야 한다.

## 제66. 善竹橋

1. 선죽교 그 血橋, 개성읍 외 선죽교  
鄭圃隱 죽어 그 몇 년  
유혈순국의 원한은 千載에 이르는 때라.
6. 선생은 이에 서거하여 백골은 진토로 화해  
혼백 모두 흩어져 남음이 없으나  
빛나는 일편단심은 지금 오히려 잊혀지지 않고 忠血은 이에 오래라.

## 제129. 구주전란

1. 1914년 하 7월 격렬한 腥風 서에서 온다.  
극동 반도청년의 惰眠을 깨우고 신경을 자극하며 미몽을 혼든다.
7. 우리 조모의 고영웅에게 묻노니, 너의 나라를 사랑하여 상제에게 기도해  
너, 독립국의 영웅을 찬미하고 우리 역시 너를 계승할 것을 맹세한다.

구체적인 역사속의 애국지사과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한 창가를 통해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들이었다. 한국역사 중 대대로 대일항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朴堦上·이순신 등을 영웅의 모범으로 칭송하고, 당시의 애국지사로 최익현·안중근 등을 독립국의 영웅으로 찬미하면서 이들을 계승함을 맹세케 하는 항일의식을 심어주었다. 더 나아가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기를 “文에 능한 자는 문으로 國光을 揚하고, 武에 능한 자는 무로써 국권을 복하고, 권모에 능한 자는 권모로서 국광을 양하고, 勇에 능한 자는 용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니”라고 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게 단결 협력하자고 주창하였던 것이다.

나. 함북 중성 사립 온천학교 애국창가 교수활동

함북 중성군 주을면 온천동 소재 사립 溫泉學校 교사인 崔鵬南·鄭周煥·朴庸淮 등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민족혼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던 중 일제의 간섭을 피하기 쉬운 음악과목을 활용코자 하였다. 우선 종래부터 유포되어 오던 창가들을 수집하여 교과목 중에 창가란 과목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온천학교 학생들에게 〈조국생각가〉 혹은 안중근을 칭양한 수편의 민족정신이 깃든 창가 등을 비밀리에 가르쳤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는 애국창가 뿐 아니라 역사나 지리 등의 일반적인 과목에서도 민족교육을 강화하여, 1910년 이후 출판이 금지된 《초등본국략사》·《초등본국지리》등을 3·4학년 학생의 교과서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사》와 《대조선사》란 교재도 만들었는데 이는 경성 사립五星學校 교사였던 張道斌이 기록한 것을 당시 오성학교 재학 중이던 박용회가 필기해 두었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 밖에 박용회가 오성학교 재학 중 지방유세 때 대중에게 민족정신을 고무하고자 작성해 둔 것을 학생에게 교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교육을 강화시켰으나 1916년 말에 일제에 의해 교사들이 불온교수혐의로 피체되어 어려움을 겪었다.<sup>48)</sup>

#### 다. 함남 이원 사숙 일신재의 민족의식 고취활동

함남 이원군 남면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朴元東은 1914년 북간도로 건너가 화룡현 五原洞 소재의 한인학교인 德城學校에서 수학하고 1915년 4월 귀향하였다. 향리에 돌아온 박원동은 민족운동의 방법을 도모하던 중 사숙 일신재 교사 金昌衍·李根東과 국권회흥에 관해 논의하고, 우선 이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북간도에서 가져온 《新韓獨立史》와 《최신창가집》을 김창연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김창연은 이를 학생들에게 교수하던 중 1916년 말 발각되어 보안법위반으로 피체되었다.

《신한독립사》는 전편 모두 조국회흥을 고무격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신창가집》은 경기도 개성 한영서원에서 사용하였던 창가집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48)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15쪽.

#### 라. 함남 영흥 사립 문명학교 애국창가교육투쟁

함남 영흥군 흥인면 소재 사립 문명학교 교사인 李學龍은 경성의 보성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이 학교에 적을 두었다. 이학용은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15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에게 창가를 가르쳤다. 이학용은 보성학교시절 얻었던 《애국창가집》을 사용하였는데, 민족적인 내용이 담긴 창가가 많은 책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후 車南奎 등 문명학교 학생 수명이 창가를 필기해 학교에서 함께 부르곤 했다. 1916년 말에 발각되어 피체되었다.

문명학교 창가집에 실린 〈독립군가〉 중에는 “요코하마·오사카를 攻陷하고 동경으로 공격해 들어가 동서남북 적을 쳐부수고 국권을 회복할 우리독립군, 凱歌와 만세의 소리는 천지를 흔든다”라는 가사의 곡도 있다.<sup>49)</sup> 이처럼 직접적으로 일본 본토를 공략해 일제를 단 한번에 멸망시켜 조국의 해방을 도모하려는 결의에 찬 의지를 다지려는 의도를 담은 경우가 당시 독립군가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1910년대에 이르러 독립전쟁론이 확고한 독립운동방략으로 정립되면서 이를 민족운동가 뿐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심어주려는 의도가 독립군가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의지의 표현인 독립군가가 학생들에게 교수됨으로써 민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 4) 혁명적 경향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광복회

大韓光復會는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의 독립군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고 국내에 혁명기지를 확보한 후, 적시에 무력투쟁으로 독립쟁취를 목표했던 1910년대의 혁명단체였다.<sup>50)</sup>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에 결성되었는데, 1913

49)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18~19쪽.

50)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國史編纂委員會 編, 《한국독립운동사》 2, 427~489쪽.

년 풍기에서 의병적인 인사들에 의해 조직된 풍기광복단과 1913년 대구의 조선국권회복단 중 일부 과격한 인사들이 노선상의 갈등으로 이탈하여 함께 조직한 것이었다.

대한광복회는 한말 의병장 許薦의 제자인 朴尙鎭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박상진은 유가출신으로 척사적인 성리학 공부를 마친 후에 경성 양정의숙의 법과를 졸업하여 판사시험에 합격한 혁신유림이었다. 또한 국권상실 이후 의병거사 계획을 추진한 경험으로 미루어 의병적 기질을 지녔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척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교육을 수학한 혁신유림이 되었으며 혁신유림임에도 계몽주의적 성향에 경도되지 않고 의병의식을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다. 박상진의 이같은 기질 때문에 풍기광복단과 국권회복단 일부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적극적인 민족운동방략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대한광복회는 풍기광복단과 국권회복단의 의병적 인사를 주축으로 결성한 무장조직이었던 것이다.

“우리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의 대대 원수를 물리쳐서 우리 동포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천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이것이 본회가 성패나利鈍을 생각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본회를 창립한 소이로 …”라고 한 광복회의 포고문은 광복회 창립의 취지를 짐작케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대한광복회의 〈강령〉을 살펴보면 그 취지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다.

- ① 부호의 의연금 및 일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 ②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 ③ 종래의 의병 및 해산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 ④ 중국·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 ⑤ 본회의 군사행동·집회·왕래 등 모든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태상회에 두고 韓滿 각 요지와 북경·상해에 그 지점 또는 여관·鑛務所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 ⑥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 수처에서 처단하는 行刑部를 둔다.
- ⑦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함.

趙東杰,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대한광복회연구>(앞의 책, 1989).  
 朴永錫, <대한광복회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1, 국사편찬위원회, 1986).

이와 같이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조달-군관학교 및 잡화상 등 혁명기지건설-무기비축, 독립군양성-혁명(독립)달성 이라는 구도의 민족운동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민족운동의 방략을 독립전쟁론에 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독립군양성에 목적을 두고 군자금모집과 무기구입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제통치하에 안일하는 친일부호의 처단 등 의협투쟁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실행을 위해 조직도 총사령·부사령 등의 명칭을 사용해 무장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한광복회는 국내에서 결성된 독립군단체였으며 기존의 의병이나 해외의 독립군과는 다른 혁명을 계획한 점에서 혁명단체였다 하겠다.

결성 당시의 인사로는 박상진, 국권회복단의 정운일, 풍기광복단의 채기중·유창순·유장렬·韓焄·강병수·김병렬·정만교·김상오·정운홍·정진화·황상규·이각 등과 양 단과 관련없는 金漢鍾·엄정섭·禹在龍·梁濟安·權寧萬·金敬泰 등이 있다. 1916년 이후 충청도의 金漢鍾, 황해도의 李觀求, 전라도의 李秉昊 등이 가입하여 새로운 중심인물로 주목받았다.

광복회의 조직은 1916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때 노백린·김좌진·申鉉大·尹洪重·신현두·金鼎浩·권태진·임병한·윤형중·김홍두·尹致晟·이현·박성태·명기섭 등이 가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곧 해외로 망명하여 활동에 크게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즉 그 해 칠곡의 부호 장승원과 대구부호 徐祐淳에 대한 처단이 실패하고 박상진은 그 여파로 만주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귀국하는 길에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광복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노백린은 미주로, 김좌진은 만주로 망명하는 등 많은 인사가 해외로 탈출해 갔다.

또한 대한광복회는 1916년 예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지방 일대와 해주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 일대, 보성을 비롯한 전라남도 일대 그리고 삼척·인천 등 국내는 물론 해외의 길림·장춘·안동 등 서간도의 독립군기지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충청도조직은 김한중·장두환·庾昌淳·김경태 등이 중심인데 그 중 김한중은 예산 유가출신으로 1906년 민족식의 홍주의진에 종군했던 인물이다.<sup>51)</sup> 그를 따르는 충청도 회원 중 14명이 상민이었다는 점은 그가 척사적인 의병인식을 어느 정도 탈피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황해도 책임자인 이관구는 황해도 송화 출신으로 유가집안에서 성장하였으며 20세 무렵 평양의 대성학교와 숭실전문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국권상실 이후 중국에 망명해 중국혁명에 참가한 바 있던 혁신유림의 인물이다.<sup>52)</sup> 이처럼 대한광복회의 구성원은 한훈·유창순·김한중 등 의병출신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박상진·김좌진 등 신교육을 받은 인사들도 많았다. 특히 박상진·이관구 등은 중국 신해혁명에 참가한 바 있던 혁명적 인사였다. 광복회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구시대의 양반, 유가에서 자란 구시대를 경험한 연령의 인사들이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세대를 뛰어 넘어 새 시대의 건설을 위한 변혁적인 성향을 띤 인사들이었다. 아울러 구성원의 연령도 30, 40대를 중심으로 20대와 50대도 함께 참여해 신구세대를 대변한 조직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조직구성은 총사령에 박상진, 부사령에 이석대로 진영을 이루었으며 뒤에 부사령은 만주에 상주하며 독립군양성을 담당케 하였다. 이석대가 전사한 1917년 이후에는 김좌진이 이를 이어 부사령을 맡았다.

초기에는 대구를 중심한 경상도 일대에 조직이 결성되었으나 1916년부터 예산을 중심한 충청도·경기도, 해주를 중심한 황해도 일대, 강원도, 보성을 비롯한 전남 일대, 평안도 등지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외에 길림·장춘·안동을 비롯한 서간도의 독립군기지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같은 확대조직은 각지에 혁명기지로서의 거점확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즉 대한광복회는 각처에 혁명기지의 거점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여 국내의 100여 곳에 거점을 확보하고 무기를 준비하여 신해혁명과 같은 혁명을 달성

51) 광복회의 인사 중 민중식의진에 종군했던 사람은 김한중 이외에도 한훈·유창순·권상석·윤병일·정태복 등이 있다(조동걸, <대한광복회연구>, 앞의 책, 284쪽).

52) 조동걸, 위의 글, 286쪽.

53) 각종 자료 및 경찰조서에 표기된 연령의 집계를 보면 결성당시의 인사 16명은 30대(5), 40대(8), 50대(3)이며, 황해도는 20대(4), 30대(12), 40대(6), 50대(2)이었고, 충청도는 20대(8), 30대(14), 40대(9), 50대(3), 미상(3)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慶北警務部, 《高等警察要史》, 181~183쪽;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109쪽; 《독립운동사자료집》 11, 673~674쪽).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구(상덕대상회)·영주(대동상점)·광주(이명서)·삼척(김동호)·인천(이재덕, 미곡취인소)·인천(황학수, 미곡중개소)·용천(文應極)과 만주의 안동(三達양행)·장춘(상원양행)에 곡물상점을 설치하여 거점으로 삼았다. 그 외에 서울이 魚在河, 경북 안동의 이종영, 고령의 김재열 私家, 아니면 여관이나 음식점 등도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상의 특징은 광복회 <강령> 제5항에서 밝힌 연락기관 설치를 실현한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그리고 각처의 거점에서는 무기도 수십 정 확보하였고, 만주에 인재를 보내 훈련하게 하였고, 그에 필요한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또한 행동지침으로서 비밀·폭동·암살·혁명의 4대 요강이 시달되고 있다.

대한광복회는 우선 군자금조달을 위한 활동은 부호의 의연금에 대중을 이루지만 그외에 세금탈취와 일인광산습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광산습격은 풍기광복단의 상동광산건이 있었으나 광복회의 광산습격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다만 우재룡·권영만이 경주에서 우편차를 습격하여 세금일부를 탈취한 적이 있었다.<sup>54)</sup> 그런데 광복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충당하려면 각지의 부호를 대상으로 의연금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책이란 입장에서 전국의 부호명단을 작성하여 각각 배당액을 산정해 자발적인 모금과 강제모금의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1917~18년 경 광복회 등의 이름으로 군자금모금을 통고하는 포고문을 발송하였는데 당시 일제측에 보고된 수만도 100여 통이 넘는 것을 보아도 전국적으로 포고문이 송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sup>55)</sup>

이러한 군자금모금과 더불어 광복회가 주력한 것이 혁명군의 기지건설이었으며, 이는 전국에 1백 곳에 1만 원씩의 자금으로 건설하려는 잡화상이 바로 그 기지로 무기구입과 혁명군집결지로 만들고자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군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국내에 설치된 곡물상은 연락장소의 역할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므로 광복회는 반민족적인 의식과 태도가 심화되기 전에 친일부호를 처단하여 지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더불어 조선총독 암살계획을 추진시켜 의협투쟁방법도 활용코자 하였다. 황해도

54) 조동길, <대한광복회연구>(앞의 책), 293쪽.

55)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33~34·58~59쪽.

책임자 이관구가 1916년 6월부터 추진한 암살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빚어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후 이관구는 군자금 수합에 열중하던 중 뜻하지 않게 1918년 6월 밀고로 일경에 체포되어 황해도 조직이 파괴당하고 말았다.

광복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917년과 1918년 군자금모금에 응하지 않는 칠곡의 부호 장승원·아산군 고면장 박용하 등의 악성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이들 악성부호의 처단현장에 〈宣告狀〉을 두었기 때문에 광복회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 결과 일제의 수사도 강화되어 1918년 초부터 관련자들이 드러나면서 박상진·채기중·김한중·장두환 등의 인사들이 피검되었으며 이를 면한 이들의 이탈로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파괴되었던 것이다.<sup>56)</sup>

그리고 체포를 면한 회원은 한훈·우재룡·김상옥처럼 만주로 망명하여 암살단·嚆備團 등을 결성하여 1920년 義俠鬪爭을 전개하여 그 운동의 맥을 이어가거나, 혹은 의열단의 일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의협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광복회가 암살단과 의열단으로 이어지는 그 선구적인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광복회는 국내외에 기지를 건설하여 혁명군을 양성하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하게 될 경우 일시에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강력한 무력투쟁단체였다. 이런 면은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전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광복회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끝으로 대한광복회는 그의 목적이 “국군을 회복하여 공화정치를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박상진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공화주의의 건국이념을 표방한 단체였다는 점에서도 이미 1910년대에 엄존하고 있던 척사이념이나 복벽주의를 탈피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성리학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단군의식을 주류로 한 자주적 민족의식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광복회 주도층의 자주의식은 1910년 전후 단군 정통의 역사의식 계승을 현실 독립운동상의 요구에 따라 대중교로 발전시킨 당시의 상황하에서 혁신유립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중교에 귀의하였던 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56) 피검된 인사중 박상진·채기중·김한중은 사형이 언도되어 순국하였고 이후 1920년 피검된 한훈·우재룡·이병은 등 대부분의 회원들은 무기나 장기형의 옥고를 치루었다.

수 있다. 즉 단군정통의 역사인식, 단군의 ‘증광’과 국권의 ‘광복’을 일치시키는 논리, 민족 不祧位로서의 윤리의식 등이 대중교적인 사상의 특징이며 이것이 민족운동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되면서 당시 민족운동가들의 민족주의로 체계화된 것을 대중교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광복회의 이념이었으며 더 나아가 1910년대 결성된 국내의 비밀결사나 해외 일부 단체들의 이념이었던 점은 1910년대 민족운동의 특징 중 하나였음을 짚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한광복회는 혁명적인 방법의 민족운동전개, 혁신유림의 근대 국가지향과 대중교적 민족주의, 의협투쟁의 방략 등을 그 특징으로 하였으며 특히 의협투쟁이 운동론으로 이론적 틀을 마련하면서 이후 민족운동의 중요한 방략으로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선명당

선명당은 鄭延雄·林光模가 결성한 비밀결사로 중국, 간도 및 국내 평북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조선 총독 이하 要路대관 암살을 목적으로 동지규합에 주력하는 한편 선명당에 관한 인쇄물을 국내에서 비밀리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 단체가 목표로 한 방략에서 대한광복회에서 채택한 의협투쟁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겠다. 1915년에 들어와 활동이 활발해졌으나 1916년 4월 발각되어 보안법위반으로 체포되고 말았다.<sup>57)</sup>

## (3) 흠치교의 비밀결사

1916년 4월 이후 충청도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단체는 李容珪·金泰泳·田瑬圭 등 독립의군부에 관련되었던 인사 다수가 흠치교의 종교적 조직을 이용한 비밀결사였다. 이용규 등은 국권회복운동을 도모하고자 흠치교인 林子文을 맹주로 하여 국권회복의 계획을 모의하고 이를 위해 우선 흠치교 포교의 방법으로 동지규합을 시도하였다. 민족운동의 한 방법으로 조선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척살하려던 의협투쟁을 택하였으며

57)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24~45쪽.

특히 동지규합 시 고종황제의 칙명서와 마패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독립의군부와 유사한 유형의 운동단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동 단체를 주도한 인물들이 과거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후 1917년 6, 7월에 조직이 발각되어 전용규 등 7명은 이 사건으로 1년간 거주제한 처분을 받았다.<sup>58)</sup>

#### (4) 청림교의 비밀결사

1916년 음력 10월 청림교 수령 李元植은 구주전란이 독일승리로 결말지어지며, 그 결과 일본·조선도 전멸하지만, 조선의 경우 청림교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는 시국관을 펴면서 신도를 모집하였다. 특히 독일이 동양을 공략함에 병사를 파견해 협동작전 전개를 준비키 위해 신도들을 간도로 파견했다는 의미로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는 청림교에의 입교를 권유했다. 이에 이종학·정태순 등이 가담하여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제에 의해 단체가 발각되었다. 그 밖에도 잔존하는 자료들 속에서 청림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운동을 위한 민족운동자금을 모집하던 중 피체되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활동상을 찾아 볼 수 있다.<sup>59)</sup>

#### (5) 조선국민회

朝鮮國民會는 1917년 3월 평양에서 평양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 출신자와 재학생 및 일부 교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청년학생의 항일비밀결사였다.<sup>60)</sup> 조선국민회 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張日煥은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 1914년 9월 미주 하와이에서 이 지역 한인사회내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적 지도자로 큰 영향력을 가진 박용만을 만났다.

장일환은 박용만과 협의를 거쳐 국내에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국내외가 상

58)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26~27쪽.

59)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31~32쪽.

60)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35~39쪽.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2(1968).

강영심, 〈朝鮮國民會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호협력하여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915년 4월 비밀리에 귀국한 장일환을 1차로 하와이 국민회원으로 활동하다 앞서 귀국한 姜錫奉·徐光朝와 접촉하였다. 이어 1915년 겨울 2차로 안동현에서 활약하고 있던 白世彬을 만나 박용만과 협의된 계획을 전하고 동지로 포섭하였다. 당시 백세빈은 중국 안동현에서 국내와 중국 및 미주지역과의 연결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어 장일환·강석봉·서광조 및 백세빈은 비밀결사조직에 관해 협의하고 일차 계획으로는 우선 운동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과 운동근거지를 간도지역에 구축해 장래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즈음 국내에서 新韓革命黨 관련인사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잠시 보류하고 회원 각자가 비밀리에 조직확대 및 동지규합에 힘쓰면서 조직기반을 다지는 작업에 주력하기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sup>61)</sup>

그 뒤 1917년 3월 23일 평양 신양리에서 장일환 등 10여 명이 모여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장일환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조직구성과 그에 따른 임원 선출 및 간단한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조선국민회가 내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구미세력의 동양진출과 더불어 점차 제국주의화하는 일본이 장차 동양침략 즉 중국으로의 침략을 위한 패권쟁탈이 머지않다고 보고 이를 적기로 이용하여 자주독립을 달성하려 함에 있었다.

61) 강영심,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金正柱, <朝鮮保安法違反事件> (《朝鮮統治史料》 5, 韓國史料研究所, 1970), 629~671쪽.

신한혁명당은 1915년 3월 상해에서 상해지역 독립운동단체인 同濟社의 중추인 신규식과 박은식 등이 중심이 되어 이상설, 북경지역의 세력, 북간도의 이동휘, 해산된 간민회세력 등과 연결하여 독립전쟁론을 실현코자, 각각의 운동노선과 이념차이를 극복하고 광무황제란 상징적 존재를 당수로 추대하여 독립전쟁론의 실현을 목표로 결성한 항일투쟁조직이다. 동당은 결성 직후 1915년 초 성낙형 등 당원 일부를 국내로 잠입시켜 광무황제를 알현하고 독일과 체결할 군사조약에 대한 황제의 인준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실천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국내 관련인사 다수가 보안법위반으로 피체되었던 것이다.

조선국민회의 조직구성을 보면 회장에 장일환, 통신겸 서기에 배민수·안동현·백세빈, 경상도·전라도·황해도구역장으로 오병섭·강석봉·노선경을 각각 임명하였다. 체계적으로 정비된 형태는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첫째, 본부격인 평양지역은 회장이 담당하고 그 외 지부적인 성격으로 각지에 구역장을 두어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 발전시키려 한 면모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내외통신 즉 국내외의 연락기구 설치에 중점을 둔 기구편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의 독립운동세력 특히 하와이 국민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주요사항으로 했던 것과 아울러 중국 간도지역에의 조직확대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간도지역 진출은 초기 조직과정에서 토지매입 및 근거지 구축방안도 시도한 바 있음으로 미루어 이 지역에 장기적 투쟁을 대비한 기지구축포석의 일환으로 보인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준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은 매년 봄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하고 조직의 비밀보장을 위해 평양신학교 및 숭실학교가 개교하는 시기를 이용키로 하였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회원이 각출하는 회비로 충당하며 그 외 별도로 운동자금모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회원상호간에 사용할 암호와 비밀문서 작성요령까지 마련해 두었다.

조선국민회는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이면서도 하와이 국민회나 하와이 국민군단과 깊이 관련된 조직으로서 일면 국내지부적인 성격을 띤다. 실행세력 중 첫째가 재미국민회와의 연락도모였던 사실과 암호 중 특히 하와이에 대한 암호를 작성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박용만이 주필로 활약하고 있는 하와이 국민회의 기관지 《國民報》의 배포를 중요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었던 점이다.

그런데 하와이 국민회를 이끌던 박용만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되 필수적 요소로 국민의 2대 의무를 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독립운동노선에 적용할 때 한인교포의 의무금제와 독립전쟁을 위한 군사의무의 하나로 상무주의 강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와이 국민회와 연계된 조직으로 보이는 조선국민회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보인다.

조선국민회의 구성원은 20~3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10대도 4명이나 포함된 독립의식이 확고한 청년들이며 학력은 숭실대학 출신 5명·숭실대학생 2명·숭실학교 출신 4명·숭실학교 학생 4명 그 외 평양신학교 출신자 1명·경성 연희전문학교 학생 1명·군산 영명중학교 학생 1명 등이다.<sup>62)</sup> 회원 대다수가 숭실학교 관련된 인물로 이들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국민회는 숭실학교 관련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 외 평양신학교·경성 연희전문학교·군산 영명학교 학생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각지 지식청년들을 연합하고자 계획한 면도 참작할 만하다. 또한 회원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거나 서당교사로 활동한 이도 적지 않아 일선 교육현장에서 구국교육 실현을 통해 민족의식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회원 중에 기독교장로·교회助事 등이 있고, 신학교출신자, 기독교계통의 학교인 숭실·영명·연희전문학교 관련자들이 중심인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기독교신자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국민회가 당시 민족적 활동조차 철저히 봉쇄된 국내 현실 속에서 조직결성이 비교적 용이한 학교나 종교집회를 적극 활용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선국민회는 동시대에 결성·활동한 비밀결사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적 조직을 지향했으나 서북지방 일대가 중심적 거점으로 국한되었던 것, 회원 수도 20~30여 명으로 나타난 것, 학연·지연 및 종교조직을 통해 조직을 결성한 것 등은 여타 비밀결사와 같다.

조선국민회의 활동은 근거지 구축과 조직확대 및 교육활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근거지 구축은 조선국민회의 결성 초기단계에서 계획했던 방안으로 간도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고 회원으로 규합한 동지를 이주시켜 장래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서 일찍부터 국민회 회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신민회의 국외독립군기지 창설이란 독립운동전략을 계승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 그 실천단계에서 구상된 자금동원방안이 무모한 측면도 있으나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란 국제정세를 능동적으로 활용

62) 숭전대학 80년사편찬위원회 편, 《崇田大學校 80年史》(1979).



하려던 의도가 돋보인다.

보다 두드러진 활동은 조직확대와 회원모집 등을 통한 세력 강화였다. 즉 국내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평양에 근거를 두고, 경상도·전라도·황해도지역에 지부 성격의 구역장을 설치하고 각 지역에 연고가 있는 회원을 배치하였다. 즉 경상남도 固城郡출신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吳炳燮을 경상도 구역장에, 전남 목포출신으로 하와이에서 국민회원으로 활약하다 귀국한 강석봉을 전라도 구역장에, 황해도 재령출신으로 구역에서 회원모집에 노력하면서 그 지역에 국민회 세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전라도 목포·보성일대에 다소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내뿐 아니라 하와이 국민회와의 연락을 계속하는 한편 국민회 회원을 비밀리에 미주로 파견하려고 계획하였다. 미주지역으로의 파견을 군사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군사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일면 국내조직과의 원활한 연락거점으로 활용하려던 의도에서 계획되었다고 보이나 실천에 옮기기 전 조직이 발각되었다. 또한 중국지역으로의 기반확대를 위해 안동에 외국통신원을 배치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백세빈이 이를 맡게 되었다. 아울러 북경에도 1명의 통신원을 배치, 북경지역과도 연계를 계획하였다. 1917년 7월에는 간도지역과의 연락통신을 위해 추가로 盧善敬을 서간도 三源堡로 파견하기도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조직기반을 확대해 가는 한편 회원간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장차의 독립쟁쟁기회에 대비하여 무력준비계획도 수립해 두었다.

특히 회원들간의 단결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의지를 표명코자 혈서를 써서 맹약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즉 배민수·김형직·노덕순 등은 食指를 잘라 ‘대한독립’이라 혈서하고 어떤 이는 ‘決死’라고 혈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의지장고한 청년을 뽑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이후 이들을 항일투쟁의 역군으로 육성키 위해 중국 각지의 무관학교에 입학시킬 것을 계획하고 1차로 배민수를 중국 무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중국지역으로 파견하였다. 군사학교에의 입학추진계획과 아울러 무기구입 및 군사금조달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세웠다. 조선국민회의 중심인물들은 우선 무기를 구입키 위한 자금마련의 방안으로 각지의 유지를 물색

한 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그에게 군자금을 출자케 하여 그 자금의 일부로 권총을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적달성 이전에 조직이 발각됨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무력기반조성계획이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무기구입계획, 암호를 사용한 비밀결사인 점, 그 암호가 독립군적 성격인 점, 회원들을 무관학교에 진학케 한 것들로 미루어 보면 이 조직이 계몽주의적 성격의 결사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항일독립정신을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하였던 바 하와이 국민회의 기관지 《국민보》의 배포활동과 교육현장에서 종사하던 교사들을 통한 민족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통해 볼 때 이들이 지향한 운동방략은 계몽주의적 측면도 나타나지만, 독립군적 성격의 암호를 사용한 점, 무기구입 등 무력양성계획을 수립한 점, 독립전쟁론을 일관한 박용만과 협의해 조직된 청년단체인 점등으로 보아 독립전쟁론적 방략이 주된 흐름이었다.<sup>63)</sup>

조선국민회는 1918년 2월 경 일제당국에 발각되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 중 25명은 체포되었으며 장일환 등 12명의 중심인물은 재판에 회부되어 최고 3년형까지 받게 되었다. 비록 조선국민회가 일체축에 의해 발각되어 해산되기는 했으나 그 결사의 조직기반은 잔존하여 3·1운동 당시 평양중심의 시위운동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919년 9월에는 朴仁寬이 중심이 되어 大韓國民會란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도 하는 등, 회원 각자가 독립운동에 헌신, 활동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 5)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성격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중심으로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특징적인 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먼저 국내에서 결성된 민족운동단체의 주된 민족운동 논리가 독립전

63) 趙東杰, <1910년대 독립운동의 變遷과 特性>(앞의 책), 377쪽.

쟁론 혹은 그에 기초한 준비론이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혁명적 경향의 대한광복회였으며 그 외에 의병계열의 단체들도 궁극적으로는 이에 동조한 것임을 밝혔다. 독립전쟁론이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일제와의 혈전을 통해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다는 독립운동상의 방략으로서 이는 구한말 이래 전개된 두 갈래 민족운동의 논리인 실력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의병전쟁)을 하나로 결합시킨 統全的인 운동론이다. 즉 당장 무력을 동원해 독립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무장 실력양성론이 지닌 한계점과 무단통치란 현실적 여건하에서 무장투쟁론이 갖는 비현실성을 상호 보완하여 발전시킨 전쟁준비론적인 운동론이었다. 또한 민족의 독립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향후 일본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일본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 대일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기회포착적 독립전쟁론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방략의 일치는 국권을 상실한 이후 각각 분리된 채 민족역량의 결집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이끌어갔던 종래의 운동방략상의 차별성과 분과성이 희석되면서 새로운 항일투쟁의 방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장 적극적인 투쟁인 독립전쟁론을 기조로 한 새로운 민족독립운동의 지평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으며 바로 이점을 1910년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상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시기의 독립전쟁론은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으므로 독립전쟁을 위한 준비단계의 성격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전쟁준비단계로서의 독립전쟁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광복회처럼 무력항쟁이 수행되지만 국지적 일시적이거나 개인적 소규모의 항쟁이므로 본격적인 전쟁수행이라기 보다는 전쟁을 위한 내재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단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sup>64)</sup>

다음으로 국내의 경우 국외와는 달리 일제의 직접적인 무단통치를 받고 있었으므로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운동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교육·식산·계몽 등의 활동을 통한 실력양성운동도 더불어 이루어졌으니 이를테면 조선물산장려회·조선국권회복단·단천자립단의 활

64) 윤경로, 앞의 글, 248쪽.

동 그 외에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한 애국창가집 교수활동 등이 이 부류에 속한 운동들이다. 독립전쟁론이 중요한 경향임은 분명하지만 국내의 특수한 사정상 다양한 방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이 시기 민족운동이 보여준 두번째 특징은 비밀결사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권을 강탈당한 식민지하에서 그것도 철통같은 감시망이 구축된 무단통치하에서의 민족운동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구한말 조직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강점 직후 신민회의 존재를 감지한 일제는 이들 조직을 비롯한 일체의 항일조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이른바 '105인사건'을 조작하여 반일민족세력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그 사건의 허구와 피체된 민족지도자에 대한 악랄한 고문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항일민족의식이 더욱 고양되었으며 이후 여러 형태의 비밀결사가 결성되어 민족운동의 중심체로 활약하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는 당시 민족운동의 주류인 비밀결사란 조직하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으며 그 지도인물의 사상적 차이 등으로 인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계층의 우국지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민족주의사상을 이념적으로 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각 단체의 영향권내에 속한 국내 각지에서 비밀리에 회원을 조직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국권회복을 위한 각인각양의 힘의 결집을 호소하면서 국내 민족역량을 축적코자 하였다.

셋째, 국내민족운동을 이끈 운동단체가 채택한 방략 및 그 실행방법에 따라 특유한 조직체제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1910년대의 대표적 혁명단체인 광복회는 總司領・副司領・指揮軍・參謀長 등 군사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병적 성격이 강한 독립의군부나 이증연의 비밀결사의 경우도 직제나 직명에서 그런 면모를 찾을 수 있다. 국권회복단은 결사대부장을 설치해 독립군적인 면도 있다고 보이지만 대체로 계몽주의적 성향의 직제를 갖추었다. 그 외 조선산직장려계나 자립단의 조직구성은 각기 계몽주의적 방략에 맞는 체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시기 국내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전국적인 조직확대를 계획하는 한편 해외에도 조직활동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는 등 해외 민족운동세력

과 연결체제를 구축코자 노력하였던 것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대한독립의군부는 중앙에 순무총장을 설치하고 각도·각군 조직체제를 갖추었으며, 국권회복단은 마산에 지부장을 두고 상회란 상업조직을 각지에 두어 거점으로 구축코자 하였다. 또한 대한광복회도 국내 각지 및 만주·북경·상해 등에 기관설치를 시도하였으며 민단조합도 지부장을 두는 등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각 단체의 계획과는 달리 대한광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중심활동지역이 국내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이는 당시 무단정치하에서 혈연·지연, 혹은 종교적 집회에 의한 동지구합이나 조직결성이 가능할 수밖에 없던 어려운 상황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직체제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이 있다. 즉, 독립운동과 같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과 연락망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결사체들은 그 성격상 공개적인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종 상점과 곡물상회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조선국권회복단과 연결된 대구의 태고상회와 부산의 백산상회·대한광복회와 유관한 대구의 상덕태상회와 영주의 대동상점 등은 잡화상이나 곡물상을 운영하면서 연락 거점으로 이용하거나 운동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이다.

넷째, 이 시기 민족운동단체의 중심인물은 각 계층의 우국지사들, 한말 국교육운동의 항일투쟁정신으로 무장한 애국청년·학생들이었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한말 의병출신이나 의병적 성향을 지닌 양반유생들, 계몽운동적 성향이 강한 중산층, 한말 이후 신교육을 이수한 지식 청년들 그 외 일찍이 신학문이나 서구문물을 접하고 간도·중국·연해주 등에 망명해 중국혁명을 경험하고 돌아온 혁명적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운동단체를 조직,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주도 인물들 중 간도·연해주·중국·미주 등지로 건너가 그 지역 독립운동 전개상황이나 국제정세 등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기회를 가졌던 이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각지 독립운동의 전개상황을 보고 국내운동과 연계투쟁의 필요를 절감했거나 당시 국제정세를 파악해 다른 이들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

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겠다.

더구나 학생층의 경우를 보면 일제의 <조선교육령사립학교규칙>(1917)·<서당규칙>(1918) 발표 등을 통한 민족교육 탄압책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협성학교의 학우회, 숭의학교와 紀全學校의 송죽형제회, 경성고보의 조선물산장려계, 숭실학교의 조선국민회 등 비밀결사체가 조직되어 학생 중심의 민족운동이 추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민족운동의 중심세력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운동 참여 계층의 저변 확대란 점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즉 1910년대 초반에는 구한국군 출신 채응언이 주도한 의병부대 및 척사유림들이 중심이 된 독립의군부와 민단조합, 그리고 풍기광복단 등 의병 계열의 단체가 주로 활동하였으나 계몽주의계열의 지식인과 유산가들이 설립한 조선국권회복단, 기독교계 청년 및 학생들이 조직한 조선국민회, 교사와 지식층 청년들이 참여한 조선산직장려계, 혁신유림층과 평민계층이 함께 결성한 대한광복회 등의 출현으로 그 참여 계층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었던 것이다. 또한 혁신유림과 평민출신들이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한광복회의 출현은 1910년대 민족운동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차이와 이념을 극복한 새로운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다섯째로, 이 시기 민족운동은 합방 이전의 의병투쟁적 전통이나 구국계몽운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한 차원 높아진 국권회복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전자를 계승한 것이 독립의군부·민단조합 등이라면 후자를 이은 것은 기성불단·조선산직장려계·자립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대한광복회는 의병적 무력투쟁과 계몽주의적 노선을 접목·발전시킨 독립군적 단체라 할 수 있다. 국권회복단의 경우나 이증언의 비밀결사 등도 계몽적인 방략과 의협투쟁적인 측면이 병행되었던 예로 들 수 있다.

여섯째, 민족운동단체의 활동은 물론 의병계열·계몽운동계열 그리고 혁명적 경향의 단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에 따라 중점을 둔 활동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산직장려계나 애국창가집 활동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① 조직확대 및 동지구합, ② 일본군에 대항할 군사력준비 및 군자금모집, ③ 친일파 등 일본주구와 총독 이하 일인고관암살, ④ 국권반환요구서 송

달, ⑤ 실업진작 및 구국교육활동, ⑥ 해외독립운동세력과 연락도모 및 지원 활동 등을 주된 활동으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은 주로 군자금을 수합하고 무기를 구입하며, 국외 독립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곱째, 민족운동단체의 결성이 1915년을 전후한 시기에 급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일본의 산동출병으로 인한 중일전쟁 개전설의 고조 등 국제정세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일본이 전란에 처할 때를 독립운동의 적기로 포착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코자 비밀결사가 조직된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조직결성 이후 단시일내에 일제 측에 발각된 까닭에 조직확대나 군자금모집 활동상에 있어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 민족운동단체가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은 종교적 배경과 성향을 띤 조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구한말 대종교의 민족운동이나, 기독교인들의 신민회 활동 등을 계승하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제의 종교계에 대한 탄압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제가 종교계 탄압을 위해 제정 반포한 1915년의 〈포교규칙〉 및 〈사립학교규칙〉으로 순수한 종교활동마저 감시받게 되자 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 결과 민족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일제의 집회결사가 허용되지 않는 무단통치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직은 종교단체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종교단체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기대치를 높여주었고 따라서 종교조직을 활용한 독립운동의 가능성과 방법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단체로 단군태황조를 봉상한다고 표방한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는 대종교계열의 결사였고 기독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조선국민회나 단천자립단은 기독교계열이다. 그 외 흠치교나 청림교는 민족종교인 동학의 전통을 이은 종교조직을 이용한 비밀결사였다.

다음으로 이 시기 민족운동의 변화 중 중요한 점은 복벽주의를 극복하고 공화주의가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복벽주의를 표방하고 의병투쟁을 목표로 했던 대한독립의군부나 민단조합 등의 운동이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고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조선국민회가 결성되면서 국내민족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더 이상 복벽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단체의 출현이 없었으며 대한광복회 단계에 이르면 공화정치를 단체의 조직목표로 표방하면서 복벽주의의 완전한 탈피와 공화주의의 정립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공화주의가 1910년대의 민족운동의 주된 경향으로, 한국민족운동상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전개되던 비밀결사 및 민족운동단체 활동들을 압살하려 한 일제측의 탄압 또한 끊임없이 가혹해져 갔다. 일제는 보안법위반·방화·살인·상해·절도·강도·사기 및 공갈·횡령·범인은닉·총포 화약류취체령위반 등의 죄목을 적용하면서 탄압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에 따라 민사·형사소송 예심 및 검사수사사건 등 접수 건수가 증가하여 1910년에 총 59,000여 건 이었던 것이 3·1운동 직전인 1918년에 이르면 100만 건이란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찰에 의해 卽決事件으로 刑을 받은 이가 1911년에 21,000명이더니 1918년에는 무려 94,000명에 달하였다. 또한 검사에 의해 형이 집행된 사람은 1911년 11,000명·1916년 28,000명·1918년에는 35,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재판이나 형벌관련 통계치의 수적인 증가는 일제당국이 독립운동 및 일체의 민족적 행위에 대해 자행한 가혹한 탄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한편으로 당시 국내의 항일투쟁활동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민족을 공갈·위협해 일체의 비판이나 저항을 단연코 압살하려는 폭압적 수단으로 실시된 태형은 “응징적 효과가 매우 현저한” 까닭에 매년 증가하였다. 이를테면 재판 및 범죄 즉결사건을 포함, 1911년 17,400인의 수형인원이 1916년에는 전 수형인원의 47%인 52,500명으로 刑中の 刑이 되었다. 더구나 1917년에 이르면 62,500명이 되는 등 태형의 남용은 이루 형언키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점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과 비교해 보면 보다 극명해진다. 1913~15년의 평균치를 보면 재판사건에서 태형의 비율은 대만 34.4%, 조선 36%, 범죄 즉결사건에서는 그 비율이 24%와 45.3%로 조선이 대만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은 1일 평균 수감인원이 1911년 9,500명에서 1918년 12,200명으로 급증하는 수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일제의 폭압적인 법적제재, 극악무도한 헌병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의 민족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1919년 3·1운동에 이르러 각 계열의 방략과 조직체계·활동상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등의 종교조직은 3·1운동의 전개 확산에 활용되었으며 그 외 의병계와 농민층은 격렬한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또한 계몽적인 성향의 국권회복 단조차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음에서도 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1910년대의 민족운동단체의 활동이 민족내부역량을 성숙시켜 나갔음으로 인해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임시정부 후원을 위한 연락망 구축이나 군자금 수집활동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수행될 수 있었다.

〈姜英心〉

##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만주지역은 노령지역과 함께 해외한인들이 ‘遠東’으로 불렀는데, 국내외 동포들이 조국의 광복과 민족해방을 가져올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우리 민족의 희망과 기대가 집중되었던 지역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일제통치하의 국내와 달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투쟁에 적합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때문이다. 즉 국내와의 지리적 인접성, 2백만이 넘는 동포사회의 존재, 역사적인 연고의식, 과거 일본과 전쟁을 치른 바 있고 일제의 팽창야욕을 의구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우호적 태도 등이 그러한 유리한 조건들이었다. 이 지역은 독립전쟁 개시의 호기로서 전망했던 미일전쟁·중일전쟁·러일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이 지역에 근거를 둔 우리 독립군부대들이 일본과의 전쟁을 통하여 조국광복을 달성할 수 있는 주전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1)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가. 한민교육회·간민교육회-사우게

북간도지역은 19세기 후반 이래 함경도 농민들이 대거 이주해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국망 이후 이 곳으로 대거 망명해온 민족운동가들은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근대적인 민족교육을 통하여 유력한 독립운동근거지로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북간도지역에서의 최초의 민족운동조직은 1909년 9월의 〈間島協約〉 체결 직후에 이루어졌다. 〈간도협약〉의 체결로 일본은 오랫동안 한·청간에 분쟁이 되어온 간도영유권을 청국에 넘겨주는 대신에(1조), 龍井村·局子街·頭道溝·百草溝 4개 지역의 거주와 무역을 위한 개방, 吉會敷設權(吉林線을 會寧까지 연장한 철도, 6조) 등 이권과 한인들의 재판에 대한 법정입회권을 받아냈다. 〈간도협약〉은 한인들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간도지역에서의 거주권(3조)·토지가옥소유권(5조)의 권리를 받아내는 대신, 재판·납세의무 등 청국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었다. 이처럼 일제는 간도지역의 한인은 ‘한국臣民’으로서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諸권리들을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평가했으나, 한인들이 청국에 귀화하지 않은 한 통감부 임시파출소(1907년 8월)를 뒤이은 일본영사관 및 분소의 설치를 통하여 한인에 대한 직접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sup>1)</sup>

민족운동가들은 〈간도협약〉의 이러한 독소적 조항에 반발하였다. 瑞甸書塾과 明東書塾의 중심인물이었던 기독교신자 朴茂林(朴槓瑞)이 〈간도협약〉 체결 직후 당시 延吉知府 陶彬의 통역관이었던 李同春의 협력으로 청국관청의 승인을 얻어 韓民自治會를 조직한 것이다.<sup>2)</sup> 이 한민자치회는 연길현 국자가에 사무소를 두었는데, 그 “內密과 體制가 完備하여 我民의 歸依할만한 단체”였다.<sup>3)</sup>

1) 金正柱, 《朝鮮統治史料》1(東京:韓國史料研究所, 1970), 248~254쪽.

2) 〈局子街墾民教育會ニ關スル件(1911. 2. 13)〉(《日本外務省文書》, MT.11259), 163~164쪽.

3) 尹政熙, 〈間島開拓史〉(《한국학연구》3집-별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1년

그러나 한민자치회는 일본의 항의를 받은 청국의 명령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청국 역시 간도지역에서 한인들의 독자적인 세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동자인 李鳳雨·尹海 등의 찬동을 받아 1910년 3월, 한민자치제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 韓民教育會<sup>4)</sup>를 조직케 하였다. 한민교육회는 북간도 한인동포의 자치권 확보를 추구했던 한민자치회 관계자들과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청국 당국자간의 타협적 산물로서, 그 이면에는 일본세력의 확대저지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깔려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제관헌은 한민교육회를 한민자치회의 ‘化身’으로 파악했던 것이다.<sup>5)</sup>

한민교육회는 한인들로부터 기금을 모집하고 延吉縣의 20개 구역마다 보통소학교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민교육회는 중국의 지방당국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10년 6월 자체내에 研究會를 조직하였다. 연구회는 청국이 ‘조선인에 대한 시정상의 기관’으로 간주하였으며, 청국 지방관에게 한인통치에 관한 각종의 조사보고와 통치에 관한 의견 등을 건의케 하였다. 아울러 교육회는 한인들 가운데 청국의 ‘腹心の 인물’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민교육회 회장과 부회장에는 이동춘과 윤해가 각각 선출되었고, 연구회 회장으로는 이봉우가 선출되었다. 교육회는 각지에 교육회원을 파견하여 학교 설립과 자금모집에 전력을 기울였다. 1910년 9월, ‘한일합병’ 직후 한민교육회는 조직명칭을 서둘러 墾民教育會로 바꾸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韓’을 ‘墾’으로 바꾼 데 불과하지만, ‘한일합병’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신민’은 곧 바로 ‘일본의 신민’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간민교육회는 한인들에게 중국국적 취득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취했다. 청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회는 ‘한일합병’ 직후인 9월 이후에는

3월), 22쪽.

4) 계봉우가 후일 ‘墾北集會의 鼻祖’로 평가했던 墾民教育會는 엄격히 말하면, 이 韓民教育會를 지칭하는 것이다(四方子, 〈北墾島 그 過去와 現在〉(《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

5) 〈局子街墾民教育會ニ關スル件(1911.2.13)〉(《日本外務省文書》, MT.11259), 163~164쪽.

도빈 지부의 지시에 따라 위원을 각지에 파견하여, 항일유세를 하게 하는 한편, ‘薙髮易服, 辨髮清裝’을 권유하였다.<sup>6)</sup> 또한 연길현 局子街의 교육회내에 模範學堂을 설립하여 초등학교 과정과 교원양성과정을 설치했다. 모범학당은 한인자제들을 청국식으로 교육하는 관립학교로서, 북간도 한인학교의 모델 역할을 했다.

간민교육회에는 1909년 말 이후 1910년에 걸쳐 망명한 반일적인 진보적 인물들, 특히 일제관현에 의하여 ‘排日黨’의 소굴로 지목되고 있던 서북학회 회원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점차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간민교육회는 1911년 2월경에는 북간도 전지역에 걸쳐 2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sup>7)</sup>

당시 간민교육회의 중심인물은 회장 이동춘을 비롯하여 부회장 윤해·朴贊翊 등은 이동휘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최근에 1911년 초 이동휘의 북간도 방문을 전후하여, 이동휘가 기독교전도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불러들인 이동휘의 ‘교육생’ 30여 명이 교육회 회원으로서 맹활약하였다.<sup>8)</sup> 회원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지만, 박찬익·백순·현천묵과 같은 대중교도들도 참여하였다. 특히 회장인 이동춘은 20년전에 국내로부터 북간도에 이주해 온 재산가이자 애국지사로서 한인간에 명망이 높았다. 그는 청국당국의 한인관련 고문 겸 통역으로서, 국자가의 모범학당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등 청국 지방관들과 한인들간의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간민교육회는 <간도협약>과 ‘한일합병’ 이후 한인들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강변하며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에 맞서 반일적 애국지사들이 청국의 보호하에서 교육을 표방하고 북간도 한인사회를 결집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청국 연길지부와 간민교육회간에 합의·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간민교육회의 <普通條約>과 <秘密條約>에 따르면, 간민교육회는 비록 청국의 지방관에

6) <延吉教育會及研究ノ行動ニ關スル情報(1910. 10. 31)>(《日本外務省文書》, MT. 11259), 56~59쪽.

7) <局子街墾民教育會ニ關スル件(1911. 2. 13)>(《日本外務省文書》, MT.11259), 160~162쪽.

<局子街墾民教育會員ノ學校設立ニ關スル件(1911. 5. 2)>(MT.11259), 221쪽.

8)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2(1983), 544~545쪽.

부속하고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부들은 청국의 지방관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회는 한인자세들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한인소유의 교육기관(학당·사숙)들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는 등 자치적 성격까지 구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간민교육회는 창립 이후 중국 지방당국의 ‘원만한 찬동’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910년 9월 10일에는 “壘北移民의 최유력자로 결성된 72형제파에서 회관을 사서 기부”하는 등 동포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간민교육회는 간도각지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반일계몽운동을 추진할 인재양성에 주력하며, 후일의 북간도 민족운동의 기초를 쌓았던 것이다.<sup>9)</sup> 간민교육회는 매월 《月報》를 발행하여 북간도는 물론, 노령 연해주와 미주지역 등 다른 지역의 한인들에게도 배포하였다.

간민교육회 회원들은 근대적인 교육과 기독교를 전파하고, 청국의 의복과 머리모양을 한 때문에, ‘維新派’·‘신학파’ 또는 ‘新輩’로 불렸다. 또한 반대파들은 이들을 냉소적인 의미가 담긴 ‘薙髮派’라 부르기도 했다.

간민교육회의 활동이 북간도 한인들에게 전적으로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다. 이들 교육회 회원들이 근대적 교육에 적대적인 농민들의 반발로 농촌으로부터 축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보수적인 한인들이 교육권유차 방문한 교육회 회원들을 구타하거나 잡아서 용정에 있는 일본영사관에 넘겨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이다.

간민교육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전통적인 유학자들로부터 왔다. 이들은 1908년 여름 함경북도 경성에서 항일의병투쟁을 이끈 바 있는 金貞奎·池章會·車鎬均 등이었다. 노령 연해주의 ‘한일합병’ 반대투쟁의 지도자인 柳麟錫·李南基와 가까운 인물들로, 이들은 1908년 말에서 1909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북간도지역으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간민교육회와 이를 후원하는 청국 지방당국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들은 간민교육회의 서구적이며 기독교적인 근대교육과 중국 입적 장려 및 ‘치발역복 변발청장 정책’에 반대하였다. 특히 청국당국이 간민교육회에 전통적 교육을 행하고

9) 四方子, 〈北壘島 그 過去와 現在〉(《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

있는 자신들의 私塾을 폐지할 권한을 부여한 데 대하여 큰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鄭安立·김정규·차호균·지장희 등 24명의 유학자들은 私塾改良會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발기문에서 사숙을 개량함으로써 ‘신학패’들의 탄압을 피하며 유학경전 강독에 의한 유학교육을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1912년 9월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들 유학자들은 사숙개량회는 근대적 교육을 반대하고 전통적인 사숙을 옹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신학패’들로부터 북간도지역의 교육 주도권을 빼앗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이 사숙개량회의 창립총회는 중국당국의 사전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더구나 간민교육회는 창립총회 의장이었던 南哲朋 등 그 지도자들이 친일조직인 일진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비판하였고, 중국 지방당국 역시 이들 배후에 일본당국이 있다는 의구심에서 그 해산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지방당국의 공인획득에 실패한 사숙개량회 주도자들은 〈呂氏鄉約〉에 기초한 유학이념의 옹호라는 목표를 가진 비밀조직 士友契를 조직하였다. 사우계는 비밀리에 회원을 확충한 결과 1913년 가을에는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sup>11)</sup>

간민교육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파괴공작은 일제당국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와 간도 일본총영사관은 일진회 회원인 이회덕·최남기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朝鮮人會를 조직하였다. 조선인회는 한인들을 중국당국의 보호로부터 떼어내어 “조선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궁핍한 인민들을 구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조선인은 또한 간민교육회가 북간도의 한인사회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일본당국 역시 조선인소학교·서당·노인회·불당·일진회의 종교인 侍天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친일화를 도모하였다.<sup>12)</sup>

현재 간민교육회가 언제 어떻게 해산되었는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10) Byung Yool Ban(반병률), <Korean Nationalist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Chientao, 1905~1921>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96), pp. 159~160.

11) Byung Yool Ban, *ibid.*, pp. 160~161.

12) Byung Yool Ban, *ibid.*, pp. 161~162.

남아 있지 않다. 간민교육회가 내부적으로 지방파쟁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당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은 중국당국의 명령으로 해산된 것만은 확실하다.

#### 나. 간민회—공교회·농무계

1913년 1월 13일, 前 간민교육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25명의 墾民會 발기인들은<sup>13)</sup> 延吉·和龍·汪清·琿春 4개현의 百戶長들과 지방유력자들에게 2월 26일에 개최되는 간민회 창립총회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이 소집 통지서에서 발기인들은 간민회가 북간도와 훈춘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화민국의 ‘법률에 저촉치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슨 일이든지 한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국정부의 일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하여 한인의 생명재산의 보호청구권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sup>14)</sup>

간민회는 간민교육회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지방당국의 관할내에서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적인 조직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간민회는 그 활동의 범위를 연길현에서 북간도 전체(연길·왕청·화룡·훈춘)로 확대하였다. 간민회는 전 延吉知府이자 현 吉林東南路觀察使인 陶彬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2월 26일의 창립총회에서 간민회가 조직되었고 중국당국에 제출할 승인요청서에 첨부할 규약초안을 통과시켰다. 3월 30일, 중국당국은 간민회의 승인요청을 받아들여 공식 승인하였다. 간민회 중앙총회는 연길현 국자가의 前 간민교육회관에 두었으며, 간민회의 회원자격은 3년 이상 雜居區域에 거주한 남성 한인들에게만 부여하였다.

이어 1913년 4월 26일 개최된 총회에서 간부들을 선출하였는데 회장에 金躍淵, 부회장에 白玉甫, 총무에 都城, 서기에 朴贊翊 등을 선출하였다. 간민회는 총회에 법률·교육·교섭 등 각 분과 사무를 집행하고, 각 지역에는 지방총회와 지회를 두는 등 자치적 성격을 완비하였다. 회장 김약연은 북간도

13) 간민회발기인은 간민교육회 회장인 이동춘을 비롯하여, 具春先·鄭在冕·柳基淵·金立·張基泳·李鏞·都城·鄭昌燾·白玉甫 등 25명이다.

14) 〈墾民會組織總會召集通知書〉.

한인들간에 존경받는 기독교지도자로서 당시 용정에 있던 명동학교의 교장이었다. 이동춘은 당시 간민교육회에서 설립한 光成學校와 吉新女學校의 교장이었다. 대부분의 총회간부들은 국망을 전후하여 망명한 젊은 애국지사들로서, 3분의 2는 함경도출신이었다. 간민회는 한인마을에 조직활동가들을 파견하여 1913년 5월에는 연길·화룡·왕청 3개 현에 지방총회를 설립하였으며 50호마다 지회를 조직했다.

1913년 7월 11일, 간민회는 동남로관찰사에게 한인호구조사를 신청하여 중국경찰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민회는 1913년 7월 20일, 700명의 한인과 10명의 중국관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길현 국자가에 새로운 회관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동남로관찰사인 도빈은 한인과 중국인 간의 긴밀한 연대와 한인들에 대한 교육과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하연설을 했다.<sup>15)</sup>

간민회와 함께 애국청년들로 조직된 것이 靑年親睦會와 大東協新會였다. 특히 신민회의 자매단체인 靑年學友會에 해당하는 ‘精神團’인<sup>16)</sup> 청년친목회에서는 《청년》이란 월간잡지를 발행하였고, 대동협신회에서는 계봉우가 쓴 《중등역사》와 修身 역사교과서 《吾讐不忘》등 교과서를 간행함과 동시에 월간잡지 《大震》(주필: 계봉우)을 발행하였다.<sup>17)</sup>

중국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13년 8월 간민회 회원들이 중심이 된 한인기독교도들은 중국기독교인들과 중한연합전도회를 조직하였다. 전도회의 간부들은 같은 수로 한인과 중국인이 선임되었다. 일본의 방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북간도 각지의 한인교회들을 형식상 중국 기독교교단에 소속시켰다.<sup>18)</sup>

간민회는 이동휘·정재면·박찬익 등 3인의 대표를 북경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중화민국의 성립을 축하하고 대통령 원세개에게 중국내 한인들의

15) 《신한민보》, 1913년 9월 5일.

16) <이동휘-안창호편지(1914년 1월 7일)>(독립기념관독립운동사연구소, 《도산 안창호 자료집》 1, 1990, 이하 《도산자료집》으로 약함), 400쪽.

<이동휘-안창호편지(1914년 2월 23일)>(《도산 안창호 자료집》 2), 298쪽.

17) 四方子, <北嶺島 그 過去와 現在>(《獨立新聞》, 1920년 1월 1일).

18) Byung Yool Ban, *op.cit.*, pp. 166~167.



자치적인 지위 허용을 요청하였다.<sup>19)</sup> 1913년 중반 무렵, 중국 입적을 신청한 한인들은 약 25만에 달하였다.<sup>20)</sup>

간민회는 창립 이후 1914년 3월에 해산되기까지 1년이 채 못되는 동안에, 간도동포에게 “조국정신을 고취하여 사상변천의 일대 신기원”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1)</sup> 이러한 성과는 간민회 간부들의 교육활동이 봉건적 인습과 아집에 빠져 있던 수많은 대중들의 거센 반대를 이겨내면서 이룩해낸 매우 값진 것이었다. 간민회의 교육권장원들은 간민교육회 시절과 마찬가지로, 구타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간도 용정촌으로 압송되다가 중국관헌의 도움으로 구원되기도 했다.<sup>22)</sup>

간민교육회와 마찬가지로, 간민회는 사우계의 완강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사우계는 중국국적 취득, 중국식 의복과 두발 채용과 같은 간민회의 ‘동화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金鼎奎를 비롯한 사우계 회원들은 간민교육회나 간민회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1911년의 신해혁명을 환영하였지만, 그것은 공화정을 수립해서가 아니라 만주왕조를 타도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우계는 간민회가 일진회와 마찬가지로 한인들의 철저한 중국화를 도모함으로써 독립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점은 간민회의 ‘동화정책’이 중국당국의 비호하에 일본의 개입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조국의 독립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었다.

간민회 간부들은 유학자들이 자신들의 진의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상호간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도들의 수령’인 李東輝가 1913년 8월 10일 김정규에게 편지를 보내어 길신여학교에서 공통의 목표, 즉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고 요청하였던 것이다.<sup>23)</sup>

간민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반발은 오래전에 북간도에 이주한 지주들로부터

19) 朴哲周, <대지의 성좌> (《박계주전집》 6, 삼영출판사, 1957), 325~326쪽.

20) 《신한민보》, 1913년 6월 30일.

21) 四方子,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 (《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

22) 위와 같음.

23) 金鼎奎, 《龍淵金鼎奎日記》中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497쪽. 이동휘는 김정규에게 6일 후에 만날 것을 제의했지만, 김정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터 왔다. 북간도 전체 한인들을 통합하려는 간민회의 야심찬 정책에 반대하여, 1913년 6월 29일 최남기·한진동·홍자문·위영인 등은 300명을 회원으로 하는 農務契를 조직하였다. 농무계는 그 목표를 간민회 파괴에 두고, 회원을 주로 간민회가 북간도 한인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믿는 舊이주민들과 유학자들 가운데서 충원하였다. 사우계의 유학자들이 간민회의 ‘동화정책’과 근대적 신교육에 반대한 데 대하여, 농무계는 간민회가 정치적으로 북간도 한인의 자치조직의 지위를 갖는 데 크게 반발하였던 것이다.<sup>24)</sup>

중국당국과 간민회는 농무계 지도자들인 최남기·홍자문·남철봉·한진동 등을 일본의 첩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당국이 농무계의 반간민회 정책을 활용하려는 데서 그러한 의혹을 더했다. 친일적인 입장에 있었던 일부 지도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농무계 회원들은 ‘완고하고 무식한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농민들은 일본당국에 의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sup>25)</sup>

한편, 康有爲가 이끄는 북경의 孔敎會 활동에 자극받은 북간도 사우계의 한인유학자들은 1913년 11월 29일 공교회 연길지회를 조직하였다. 연길 국가에 집결한 386명의 한인유학자들은 간민회의 신교육과 동화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선언하고 간부들을 선출하였다. 이들은 공교회가 중국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조직임에 반하여 간민회는 길림의 지방당국자에 의하여 승인된 데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6)</sup>

간민회는 공교회 역시 농무계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중앙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당국은 서당을 재건하고 근대적 학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공교회 회원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공교회 용정지회는 일본영사관의 통제를 받는 친일조직으로 알려져 있었다. 중국당국은 공교회 연길지회 간부인 정안립이나 박의풍 등을 역시 일본과 연계를 갖고 있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다.

24) Byung Yool Ban, *op.cit.*, pp. 169~170.

25) Byung Yool Ban, *ibid.*, pp. 171~172.

26) 金鼎奎, 앞의 책, 503쪽.

《권업신문》, 1994년 1월 25일.

일본당국은 1913년 가을부터 한인내에서의 갈등을 활용하기 시작하여 간민회를 반대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농민회를 조직하였다.<sup>27)</sup>

1913년 말 간민회는 호구조사원들을 각 한인마을에 파견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간민회는 가호 당 30전을 거두어 들었는데, 중국경찰이 간민회 호구조사원들을 동행했다. 이 때 농무계와 공교회가 간민회를 반대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연길과 길림의 중국당국에 이동춘·김립·도성 등 간민회 간부들을 비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진정서에서 밝힌 간민회의 비행은 간민회의 사숙개량회 해산(1912년 9월), 공교회 회원 구타, 간민교육회 회장 이동춘의 공금횡령, 간민회 가입을 원하지 않은 농민들에 대한 추방위협, 호구조사시 30전의 강제징수, 공교회 집회의 해산과 회원 구타(1913년 11월) 등이었다.<sup>28)</sup>

최남기·홍자문 등 농무계 지도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간민회를 반대하고 중국당국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조직하였다. 1914년 1월 7일, 농무계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연길에 집결한 2천여 명의 한인농민들은 간민회 핵심간부들을 죽이고 회관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간민회가 30전을 징수하는 것을 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60명의 중국경찰과 100명의 군인들에 의하여 집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농민은 해산되었고, 300명이 체포되었다. 중국당국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농민들이 분명한 목표없이 나왔으며 30전 징수에 반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무계 간부 홍자문은 간민회 간부들의 비행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간민회의 30전 징수를 금하였다.<sup>29)</sup>

1914년 2월 4일 간민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농무계의 1월 7일 사건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다. 총회는 친일적인 ‘불순분자’의 침투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입회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총회는 새로이 간부들을 선출하였는데, 이동춘·김립·도성 등 농무계와 공교회의 공격대상이었던 인물들이 배제되었다.<sup>30)</sup>

27) Byung Yool Ban, *op.cit.*, pp. 172~174.

28) Byung Yool Ban, *ibid.*, pp. 174~175.

29) Byung Yool Ban, *ibid.*, p. 176.

총회 얼마 후에 간민회는 입적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1만여 명이 참가한 대중집회를 조직하였다. 이 집회에서 이동춘과 김립이 북경에 파견될 한인대표로 선출되었고, 이들은 북경에 가서 원세개를 만났다. 원세개는 내무부에 한인들의 중국입적을 지원할 것을 명하였다. 이들은 북간도로 귀환하여 대대적인 중국입적을 준비하였으나, 얼마 후에 있는 간민회의 해산으로 좌절되었다.<sup>31)</sup> 1914년 3월 14일, 동남로관찰사인 도빈은 자치적인 성격을 가진 모든 단체를 해산하라는 원세개의 명령에 따라 간민회와 농무계를 해산하였다.<sup>32)</sup>

이러한 중국당국의 간민회와 농무계 해산은 일본의 외교적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1914년 1월 7일의 농무계사건 이후 일본의 한신문이 간민회가 한인의병세력 및 중국과 러시아당국의 지원을 받아 북간도 용정의 일본영사관을 습격하고 모든 일본인과 친일적 한인들을 처형한 후 2월 또는 3월 북한 지방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던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의 권업회 기관지인 《권업신문》, 2월 15일자에는 이러한 보도가 간민회를 파괴하려는 일본인들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결국 용정의 일본영사관은 간민회와 농무계가 조선에서의 일본통치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남로관찰사인 도빈에게 이 두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였던 것이다.<sup>33)</sup>

해산후에도 간민회와 농무계 두 단체는 중국당국을 상대로 한 상호비방을 계속하였다. 양측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빈은 연길·화룡·왕청 3개 현의 知府들에게 간민회에 대한 농무계의 고발내용을 조사하고 두 단체 대표들을 인터뷰할 것을 명령하였다. 3개 현 지부들은 최종보고서에서 농무계의 간민회 고발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농무계가 일본인들과 협력하였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sup>34)</sup>

30) Byung Yool Ban, *ibid.*, p. 177.

31) 《신한민보》, 1914년 5월 7일.

32) Byung Yool Ban, *op.cit.*, p. 178.

33) Byung Yool Ban, *ibid.*, pp. 178~179.

34) Byung Yool Ban, *ibid.*, pp. 179~180.

## (2)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북간도와 마찬가지로 서간도지역 역시 일찍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등 국경 지역의 농민들이 이주해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간도지역의 경우 집중적으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서간도의 경우는 한인농민의 거주지역이 넓은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었다.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간에 민족운동가들의 운동방식이 달랐던 것은 서간도와 북간도지역간에 존재하였던 한인 농촌들의 분포양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간도 지역의 경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한인 농촌들을 상대로 근대적인 교육과 문화적 계몽운동의 확산을 통한 독립운동근거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 데 비하여, 서간도의 경우는 처음부터 국내로부터의 대대적인 이주에 의하여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를 독립운동근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 가. 경학사

1908년 9~10월의 일제에 의한 남한대토벌로 국내에서의 의병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애국계몽운동 역시 1907년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정치적 활동공간이 축소되었으니, 1909년 10월 안중근사건에 연루되어 안창호·유동열·이종호 등 신민회 간부들이 수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석방되면서 국외로 활동무대를 옮겨 독립운동근거지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일합병’ 이후 국외에서의 독립운동근거지 건설론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신민회 간부들은 백두산과 가까운 서간도지역으로의 대거 이주계획을 수립하였다.

서간도지역에서 이들 신민회 간부들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유력한 독립운동근거지의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柳河縣 三源浦 鄒家街지역이었다. 추가가지역은 앞에 평지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야산지대가 이어져 있어 독립운동기로서서 매우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었다.<sup>35)</sup> 1910년 말 신민회 간부들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은 순차적으로 국경을 건너, 1911년 2월경에 추자가에 도착하였는데, 이회영 5형제 일행, 안동 유생인 이상룡·김대락·김동삼

35)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中國東北지역 韓國獨立運動史》(집문당, 1997), 213쪽.

일행, 그리고 이동녕·김창환·주진수·여준·윤기섭·이탁 등이 그들이다.<sup>36)</sup>

이들 민족운동자들은 1911년 여름 삼원포 추가가 大孤山の 露天會議에서 耕學社를 조직하였다.<sup>37)</sup> 경학사는 兵農一致制에 입각한 교육을 통하여 자제들을 독립운동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민단적인 성격을 띤 자치기관’이었다.<sup>38)</sup> 경학사에는 내무·농무·재무·교무의 4개 부서를 두었으며, 사장에는 이상룡, 내무부장에는 이회영, 농무부장에는 장유순, 재무부장에는 이동녕, 교무부장에는 유인식이 각각 선출되었다.<sup>39)</sup> 이와 아울러 이들 민족운동가들은 청년자제들에게 文武雙全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新興講習所를 설립하였다.<sup>40)</sup> 신흥강습소 학생들은 낮에는 개간과 농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군사훈련(도수훈련)을 하였다.<sup>41)</sup>

경학사를 중심으로 서간도 유하현의 한인들은 중국인들의 의구심과 한인 배척운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變裝運動’을 전개하였는데, 중국인들의 의복과 두발은 물론 중국인들의 풍습을 익히고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운동이었다.<sup>42)</sup> 이것은 북간도의 간민교육회, 간민회가 추진한 ‘치발역복 변발청장’처럼 중국 당국의 지원을 획득함과 동시에 일본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경학사는 첫째인 1911·1912년 연속 대홍년을 만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였다.<sup>43)</sup> 그 결과 경학사의 활동은 정지되었고, 간부들은 경학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모집을 위한 방도를 논의하고 1912년 가을, 이관직과 장도순을 국내로 파견하였으며, 1913년 봄 일제의 암살계획을 전해들은 이회영·이동녕·이시영 등 지도

36)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위의 책, 216쪽.

37) 서중석, <1910년대 獨立運動基地 新興武官學校>(한국사연구회 학술회의, 《1920년 鳳梧洞·靑山里戰鬪와 庚申慘變에 관한 韓·中 共同研究》, 2000년 10월 21일), 9쪽.

38)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대한민국 공보처, 1948), 48쪽.

39)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앞의 책, 217쪽.

40)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33쪽.

41) 蔡根植, 앞의 책, 48쪽.

42) 서중석, 앞의 글, 8쪽  
尹炳奭, 앞의 책, 34쪽.

43) 尹炳奭, 위의 책.

서중석, 위의 글, 7·10쪽.

자들은 유하현을 떠났다. 이회영은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로, 이동녕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시영은 봉천으로 떠났다.<sup>44)</sup> 신흥강습소의 청년학도들 역시 절망속에서 국내 또는 노령으로 떠났지만, 김창환·윤기섭 등은 동리를 돌아다니며 모금하면서 신흥강습소를 계속 유지하였다.<sup>45)</sup>

그리하여 신흥강습소는 1912년 봄 이회영이 중국당국의 호의로 새로이 물색하여 개척한 通化縣 哈泥河 강가에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낙성식을 가질 수 있었다. 신흥강습소는 중등교육과정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상당한 시설을 갖추었다.<sup>46)</sup> ‘신흥학교’로도 불린 신흥강습소의 교과과정은 4년제 중학과정의 본과와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양성을 위한 속성과인 특별과가 있었다.<sup>47)</sup>

#### 나. 부민단

경학사가 사실상 해체된 후, 경학사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에 의하여, 1913년 가을이래 경학사의 자치단체적 성격을 계승하려는 단체들이 속속 등장하였다. 그 첫번째 단체는 扶民團으로 許赫·李洙 등 유지인사들이 조직하였다.<sup>48)</sup> 부민단은 “부여 옛땅에 부여유민이 부흥결사를 세운다”는 뜻으로 그 본부는 삼원포에서 남쪽으로 90리 가량 떨어진 通化縣 哈泥河에 두었다. 부민단의 본부에는 서무·법무·檢務·학무·재무 등의 부서를 두었다. 부민단은 경학사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조직을 확충하였다. 그리하여 千家 즉 대부락에는 千家長을, 百家 부락에는 區團을 설치하여 區長 또는 百家長, 十家 부락에는 牌長 또는 十家長을 두었다.<sup>49)</sup> 부민단의 사업은 한인자치와 한인사회의 일체의 분쟁을 裁決하고, 중국인 또는 중국관청과의 분쟁사건을 대리해 처리해 주었으며, 신흥학교(신흥강습소) 등 한인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sup>50)</sup>

44) 서중석, 위의 글, 10쪽.

45) 蔡根植, 앞의 책, 49쪽.

46) 서중석, 앞의 글, 12쪽.

47)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앞의 책, 230쪽.

48) 《獨立新聞》, 1919년 10월 4일.

49) 蔡根植, 앞의 책, 49~50쪽.

50) 尹炳奭, 앞의 책, 36~37쪽.

또 하나 부민단과 같이 서간도 한인들의 자치·자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같은 성격의 단체가 경학사 사장을 역임한 이상룡에 의하여 조직된 自新契이다. 현재 이상룡이 중심이 된 자신계의 조직규모와 주요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부민단·자신계와 같은 성격을 지닌 세번째의 단체가 교육회이다. 서간도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이들 3단체는 3·1운동 전후까지 각각 별도로 활동하다가, 1918년 대동단합문제가 제기되어 통합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난 후 韓族會로 통합되었다. 자신계의 이상룡이 총재, 부민단의 이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sup>51)</sup>

#### 다. 신흥학우단·백서농장

新興學友團은 신흥학교의 졸업생과 재학생들로 조직된 강력한 혁명단체로서, 1913년 3월 교장 呂準과 교감 尹琦燮 그리고 제1기 졸업생인 金石·姜一秀·李根植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졸업생은 정단원, 재학생은 준단원으로 참여하였다. 신흥학우단은 처음에는 ‘옛땅을 회복한다’는 뜻을 가진 ‘다물’의 이름을 따 ‘다물단’이라고 하였다가 곧 신흥학우단으로 개칭하였다. 신흥학우단은 만주지역 한인혁명운동의 핵심조직으로서, 단원들은 서간도지역은 물론 남북만주를 비롯한 국내의 독립운동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신흥학우단은 유하현 삼원포 大花斜에 근거지를 두었으며, 기관지로 《新興學友報》를 발간하였는데 馬鹿溝에 발간처를 두었다. 신흥학우단은 군사학 등 각종 학술의 연구, 각종 간행물 발행을 통한 혁명이론의 선전과 애국사상 고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흥학우단은 50호 이상의 한인거주지에는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원은 신흥학우단이 책임을 졌다. 이외에도 신흥학우단은 노동강습소와 노동학교를 경영하였는데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상대로 군사훈련과 계몽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중의 자위체를 조직케 하여 일본 첩자의 침입을 방지하였다.<sup>52)</sup>

신흥학우단이 주동이 되어 1915년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수행할 독립군의

51) 《獨立新聞》, 1919년 10월 4일·11월 1일.

52) 蔡根植, 앞의 책, 53~54쪽.

尹炳奭, 앞의 책, 40~41쪽.



군영으로 조직한 것이 白西農庄이다. 백서농장은 통화현 제8구 관할 八里哨(팔리소)구관 소관하에 있는 小白岔에 위치하였는데, 백두산 서편에 있는 고원평야이다. ‘백서’란 ‘백두산의 서편’이란 뜻으로 ‘농장’이라고 한 것은 ‘국제적인 체면’ 즉 중국당국의 이목을 의식해서 붙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군영’이라 불렀다.<sup>53)</sup> 1915년 처음 입영한 군인의 수는 약 380여 명이었는데, 신흥학교 1회부터 4회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신흥학교의 분교와 지교 그리고 노동강습소에서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백서농장은 장주 김동삼 이하 각부서 책임자를 갖추었다. 백서농장은 일종의 둔전제도로 운영되었으나, 영양실조와 병으로 인하여 농장을 떠나는 이들이 증가하여 최후로 30여 명이 남게 되었다. 마침내 백서농장은 3·1운동 이후 서간도 한인사회의 최고자치기구로 통합조직된 한족회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되고 군인들은 유하현 제2구 삼원포로 떠났다.<sup>54)</sup>

### (3) 북만 밀산부지역

민족운동가들간에 또 하나의 유력한 독립운동근거지 건설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密山府의 蜂密山지역이었다. 우선 헤이그밀사였던 李相高은 1909년 李承熙와 협의하여 밀산부 봉밀산현에 12팍지(1팍지는 32 日耕)의 토지를 구입하고 농민들을 이주시켜 한인촌락 韓興洞을 건설하였고 한민학교를 세웠다.<sup>55)</sup> 이상설은 당초 국민회 원동전권위원으로 파견되어왔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회의 봉밀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승희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자산가 金學萬과 함께, 별도로 기지개척사업을 추진해나간 것이다. 국민회의 봉밀산 기지개척 사업은 鄭在寬·金成武 등이 북미 국민회가 원동에 파견한 간부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김성무는 독립운동근거지 건설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泰東實業株式會社(1910년 3월 조직)의 자금모집에 힘입어, 1910년 봄 봉밀산현에 들어와 30팍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만주·노령의 한인농민들을 이

53) 尹炳奭, 위의 책, 42~43쪽.

54) 서중석, 앞의 글, 30~32쪽.

55) 尹炳奭, 《李相高傳》증보판(一潮閣, 1998), 119쪽.

주시켜 개간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sup>56)</sup>

후일 봉밀산지역에는 홍범도가 독립군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홍범도는 ‘우리동무회’라는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야학과 체력단련 등을 통해 후일을 도모했다. 홍범도는 한흥동 한민학교의 교장, 교감으로 활약했으며, 이승희와 이상설의 후원으로 봉밀산에 설립된 밀산무관학교의 교관으로도 활약했다.<sup>57)</sup>

〈潘炳律〉

## 2) 러시아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독립운동

가. ‘한일합병’ 반대운동

1908년 여름에 과감한 국내진입을 감행하며 정점에 올랐던 연해주 의병운동은 1908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침체상태에 빠졌다. 1909년 10월 안중근의사가 한국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한 이후 항일열기가 다시 고조되자 연해주 의병운동 지도자들은 재기를 도모하였다. 1908년 여름 연해주로 온 의병지도자 柳麟錫은 1908년 국내 진입 의병운동의 지도자였던 李範允과 崔在亨에게 서한을 보내어 의병운동을 다시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sup> 그러나 이범윤은 1908년 가을 이후 최재형·崔鳳俊 등 原戶人 지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었고, 최재형은 이미 의병운동에서 손을 떼 후 《大東共報》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범윤은 안중근사건 이후의 고조된 反日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북조선 지역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범윤은 이승호와 함께 노보키예브스크(煙秋)에 의병본부를 설치하고, 지부 설립·자금모집과 무기구입에 나섰다. 북조선지방에서의 전선적인 의병활동으로 명망이 높았던 홍범도 역시 국내

56) 李明花, 〈1910년대 재러한인사회와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82~83쪽.

57)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엮음, 앞의 책, 230·373~380쪽.

1) 柳麟錫, 《義菴集》 1(경인문화사, 1973), 304·308쪽.

진공을 준비하고 나섰다.

1910년 7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미주 국민회 기관지인 《新韓民報》는 미국의 만주철도 중립화 제안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일본이 러시아와의 협약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러일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sup>2)</sup>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1910년 7월 8일, 유인석을 비롯한 이범윤·李相高·李南基 등은 연해주 남부 지신허마을에 가까운 채피거우에서 十三道義軍을 조직하였다. 국내진입을 목표로 했던 십삼도의군은 국내의 13도에 걸쳐 자체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3도의군에는 최근 국내로부터 망명해온 安昌浩·李鍾浩·李甲 등의 애국계몽운동계열 인사들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13도의군의 중심인물들은 유인석·이상설로 대표되는 근왕주의자들이었고 기호출신들이었다. 13도의군은 유인석과 이상설의 이름으로 고종황제에게 상소를 보내어 군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연해주로 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지도할 것을 호소하였다.<sup>3)</sup> 13도의군은 또한 블라디보스톡 일본총영사관에 대표를 보내어 ‘한일합병’의 불법성과 취소를 촉구하는 일본천황에게 보내는 500명이 서명한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sup>4)</sup>

일본의 한국병합 소식이 전해진 8월 23일, 200명의 한인들은 한인학교에 집결하여 聲明會를 결성하고, 유인석·이범윤·김학만·차석보·김좌두·김치보 등의 명의로 된 취지서를 배포하였다. 성명회는 또한 각국에 보낼,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병합을 비판하는 항의서한에 서명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그날 밤 50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결사대가 조직되었고, 다음날 가담자는 1천명으로 늘어났다. 성명회는 영·불어로 작성된 항의서한에 중국과 러시아 지역 한인 8,624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영국·독일·네덜란드·이태리·중국·러시아·미국 등 정부에 발송하였다.<sup>5)</sup>

일본의 항의를 받은 러시아당국은 9월 13일 개척리를 포위하고 42명의 한

2) 《新韓民報》, 1910년 7월 13일.

3)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一潮閣, 1990), 178~179쪽.

4) 《大東共報》, 1910년 8월 11일.

5) 尹炳奭, 《李相高傳》(一潮閣, 1984), 137~145쪽.

인지도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가운데 김좌두·안한주·이규풍·권유상·이기·이치권 등이 10월 10일 이르쿠츠크로 추방되었다.<sup>6)</sup> 이에 앞서 연흥룡주 총독은 9월 9일 ‘한일합병’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大東共報》를 개칭한 《大東新報》에 대한 정간조치를 내렸다.<sup>7)</sup> 10월 24일에는 이범윤이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문창범 측근들의 밀고에 의하여 체포되어 이르쿠츠크로 추방되었다.<sup>8)</sup>

#### 나. 권업회

‘한일합병’ 반대운동은 유인석·이상설 등 보수적인 근왕주의자들에 의한 최후의 중요한 거사였으나, 무력적인 국내진입과 서구열강의 외교적 지지 획득이라는 이들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병’과 조선 왕조의 종말은 항일전선에서의 이들 근왕주의자들의 지도적 위치가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 7월에 체결된 제2차 <러일협약> 이후 러시아와 일본간의 관계강화로 인하여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의병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1911년 6월 1일 체결된 <러·일犯人引渡條約>에는 러시아와 일본 양 정부가 자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범들을 서로에게 인도한다는 비밀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당국이 자국내에서의 한인들에 의한 공공연한 반일활동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제 사실상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상태로 들어가지 않은 한, 한인들이 러시아 영토를 근거로 하는 항일의병투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인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원호인 자산가들이 이범윤으로 대표되는 의병운동에 비우호적, 또는 적대적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원호인들이 의병운동에 대해 인적·물적 지원에 나서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즉각적인 무력적 방법에 의한 일본과의 결전을 주장하던 ‘급진파’ 즉, 의병파들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제는 교육문화운동과 산업활동에 의한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방략을 옹호한 ‘완진파’의 애

6) 劉孝鐘, 〈極東ロシアにおける朝鮮民族運動：韓國併合から第一次世界大戰の勃發まで〉(《朝鮮史研究會論文集》22, 1985), 142쪽.

7) 《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

8) 《新韓民報》, 1910년 11월 23일.

국제몽운동계열 노선이 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진론’을 주장해온 국민회가 연해주지역 항일민족운동의 지도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국민회는 그 지도자인 안창호·이갑·이강이 중국의 靑島를 거쳐 1910년 여름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게 되면서 그 지도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외관상 유리한 상황에 있었던, 서도파가 중심이 된 국민회 계열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국민회가 자신의 공화주의적인 정치이념과 미국인들, 특히 미장로교 선교사들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던 때문이다. 제2차 <러일협약> 이후 만주철도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간의 관계악화는 이러한 의구심을 심화시켰다. 한마디로 러시아당국은 국민회가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에서 친미적인 선전활동을 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sup>9)</sup>

‘한일합병’ 이후의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한인민족운동가들은 1911년 상반기에 이르러 러시아당국의 승인을 받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연해주에는 4개의 주요한 그룹들이 한인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경쟁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역출신에 따른 畿湖派(서울·경기·충청출신), 北派(함경도 출신), 西道派(평안·황해도 출신) 그리고 1.5세대 또는 2세대의 청년들이 주축이 된 勤業會세력이었다. 특히 근업회는 1911년 초에 결성되었는데 한형권·유진률·김와실리 등이 주축이었으며, 1905년 이후 항일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나, 지방파쟁의식이 약했다. 이들 청년들은 이미 1910년 2월 《대동공보》가 鄭淳萬에 의한 梁成春 살해사건에서 극적으로 표출된 기호파와 서도파간의 지방파쟁으로 그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그 경영을 떠맡고 나선 그룹이었다. 이들은 1911년 6월 18일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유진률을 발행인, 신채호를 주필로 하는 《大洋報》의 간행을 인가받기에 이르렀다.

북파의 리더격인 李鍾浩는 함경도출신이 주축이 된 함북청년회를 기반으

9) Byung Yool Ban(반병률), <Korean Nationalist Activitie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Chientao, 1905~1921>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96), pp. 162~183.

로 1911년 3월 이후 러시아당국의 인가를 받는 대중적인 한인조직 결성에 나섰다. 이종호는 1911년 6월 1일 최재형·홍범도의 지원을 받아 勸業會 발기회를 결성하였다. 《대양보》 간행에 따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근업회 역시 권업회발기회측의 이종호와 타협을 이루고, 6월 16일 새로운 근업회 발기회를 만들었다. 기호파의 이상설 역시 독자적으로 러시아당국에 ‘권업회’란 명칭의 단체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러시아당국을 상대로 이종호 등의 근업회 발기회의 인가획득 운동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연해주 군정순무사가 이종호와 이상설을 소환하여 타협과 통합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11월 24일 통합된 권업회가 러시아당국의 인가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sup>10)</sup> 나아가 이상설과 金立의 노력으로 치타에 가 있던 鄭在寬을 비롯하여 黃公道·白元甫 등 서도파 인물들 역시 권업회에 참가입장을 표명하였다.<sup>11)</sup> 권업회는 1911년 12월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간부들을 선출하였다. 총재단에는 都總裁 유인석을 비롯하여 이범윤·김학만·최재형 등 3인이 총재로 선출되었고, 권업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議事部の 의장과 부의장은 이상설과 이종호, 의원으로는 김립·한형권·김기룡·이민복·이범석·홍병환·김만송 등 각파의 주요인물들이 선출되었으며, 집행부서에도 각파 인물들이 안배되었다.<sup>12)</sup> 권업회가 외부적으로 실업과 교육의 권장·장려를 표방한 것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러시아당국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던 것이다. 권업회는 러시아당국이 최초로 공식인가한 연해주지역 한인사회의 자치적 조직이었다.

1911년에 부임해온 신임 沿黑龍州 총독 곤닷찌가 권업회를 후원했다. 특히 그는 1912년 2월 23일 신한촌을 방문하였는데, 3천여 명의 한인들이 성대한 환영식을 거행하였다. 곤닷찌는 한인들에 대한 연설에서 한인들의 도덕적이며 온화한 품성을 칭찬하고, 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10) 《勸業新聞》, 1912년 12월 19일.

11) 〈백원보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1년 12월 29일)〉(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도산안창호자료집》 1, 1990), 172~173쪽.

12) 《勸業新聞》, 1912년 12월 19일.

약속했다.<sup>13)</sup> 곧따르는 권업회 인가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방문한 이상설·이종호·정재관·한형권 등 권업회 대표단에게 권업회 명예회원으로 입회할 것을 약속했다.<sup>14)</sup>

권업회는 회원수와 지회를 꾸준히 확대하여 1914년 해산될 당시,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역인 니콜라예브스크-나-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수이푼지역의 시넬리니코브, 이만, 니콜스크-우수리스크, 노보키예브스크, 도비히, 그로데코보, 다우지미, 큰영(블라지네로-알렉산드로브스코예), 신영동(니콜라옙스크), 라블류, 명구가이, 바라바쉬 등 10개 이상의 지회를 확대하였고, 당초 300명이던 회원수 역시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sup>15)</sup>

권업회는 러시아당국으로부터 연해주 한인의 자치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아 러시아당국의 행정기능을 대행하였다. 특히 러시아당국이 장려하고 있었고 한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던 시민권의 신청·취득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약 4천 명의 한인이 권업회의 도움으로 입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업회는 입적에 필요한 정교에 관한 종교상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한촌에서 일요일 야간학교와 연론행사들을 개최하였다. 또한 희랍정교당에 교당학교를 설립하여 러시아어교육을 실시했다. 권업회는 또한 러시아당국의 위탁으로 1913년 3월 블라디보스톡 거주 한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했다.<sup>16)</sup>

권업회의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권업회 기관지로 1912년 5월 4일에 창간된 《勸業新聞》을 통한 언론활동이라 할 것이다. 과거 구개척리에 근거를 두고 발간되었던 《海潮新聞》·《大東共報》·《大東新報》·《大洋報》를 계승한 한인사회의 언론지로서 《勸業新聞》은 1914년 8월 정간될 때까지 주 1회씩 한 회도 거르지 않고 2년 동안 126호를 발간하면서 한인사회의 교육계몽과 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 《권업신문》은 그 배포수가 1912년의 930부에서 1914년 정간 당시는 1,400부로 증가하였고, 노령 각지는 물론 국

13) 《대한인정교보》, 1912년 5월 1일.

14) 《勸業新聞》, 1912년 12월 19일.

15) Byung Yool Ban, *op.cit.*, pp. 197~198.

16) Byung Yool Ban, *ibid.*, pp. 198~199.

내·만주·중국관내·일본 그리고 미주와 하와이에까지 배포되어 미주의 《신한민보》·《新韓國報》(후에 《國民報》로 개칭)와 함께 대표적인 3대 항일민족언론지였다. 특히 노령에서는 《勸業新聞》의 언론활동의 영향으로 금광·어장 등의 노동자들간에도 신문구독열이 매우 높았다.<sup>17)</sup>

권업회는 또한 교육을 장려하였다. 1912년 3월 권업회는 거류민회와 공동으로 신한촌에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민학교의 대건물을 건축하였는데,<sup>18)</sup> 이종호의 기부금 5,000루블과 이범진이 청년회에 기부하였던 1천 루블의 기금을 활용하였다.<sup>19)</sup> 한민학교는 한인사회 최대의 학교로서 노령 한인사회 “남녀교육의 모범이 되게 하매 이를 따라 각 지방에 學風이 크게 진흥”하였는데,<sup>20)</sup> 처음에는 신한촌 거류민회가 관할하였으나, 거류민회가 권업회에 통합된 1914년 3월 15일 이후에는 권업회에서 관장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 2월 현재, 권업회 본부 또는 지회의 관할하에 있던 학교가 약 10개에 학생수가 약 1천 명에 달하였다.<sup>21)</sup>

권업회가 추진한 매우 야심적인 활동의 하나는 이만 이북의 라블류 일대에 한인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한인들을 대거 이주·정착시키려 한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간부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단지를 물색하여 마침내 1912년 12월 러시아당국의 허가를 얻었다. 이후 股本團의 조직과 股本의 모집을 진행하는 한편, 농업학교 설립, 자위대와 상주 경찰대의 조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00호도 안되는 가구들이 이주하는 데 그쳤다.<sup>22)</sup> 이 계획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권업회를 비롯한 노령의 한인 각 단체와 조직들은 1914년을 맞이하여 한인의 노령이주50주년기념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노령이주50주년기념사업은 1914년 1월초에 이주한인의 원로격으로 당시 권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최

17) 뒤바보, 〈俄領實記〉(《獨立新聞》, 1920년 3월 30일).

18)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편,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교문사, 1994), 116쪽.

19) 뒤바보, 〈俄領實記〉(《獨立新聞》, 1920년 4월 3일).

20) 뒤바보, 〈俄領實記〉(《獨立新聞》, 1920년 3월 30일).

21) 《勸業新聞》, 1914년 2월 8일.

22) 《勸業新聞》, 1912년 12월 19일·1913년 4월 20일·1913년 12월 14일·1914년 1월 11일·1914년 1월 18일.



재형을 비롯하여 최봉준·채두성·박영휘 등이 발기하여, 1914년 2월 3일부터 7일間に 걸쳐 각 지방대표회를 개최하였다. 대표회는 신한촌에서의 대대적인 기념식의 거행(1914년 10월 4일), 최초 이주지인 묵허위에서의 한국식 기념비의 설립(10월 11일), 그리고 한인이주역사 편찬(노어와 한글의 2판)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sup>23)</sup>

권업회의 활동은 대체로 러시아당국의 정책에 적극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당국은 권업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한인들의 러시아화를 도모하였고, 한인들은 권업회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교육, 문화적 함양을 통한 지위향상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업회의 활동은 체제내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표인 독립전쟁을 통한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던 이동휘·이종호·이상설·이동녕 등 여호인 민족운동가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 여호인 지도자들은 최재형 등 원호인 지도자들과는 별도로 비밀리에 비합법활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1913년 가을에 조직된 大韓光復軍政府는 바로 그 좋은 예이다. 1914년은 또한 러일전쟁 1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다. 러시아인들, 특히 하급병사들간에 일본에 대한 복수전으로서의 제2의 러일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동휘의 주장에 따라 이상설·이종호·정재관·이동녕 등 노령과 만주의 민족운동가들은 제2의 러일전쟁 발발시 일본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을 전개할 조직이 될 대한광복군정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무기구입·군대조직 등 준비에 나섰다. 이상설이 초대 正都領에 선출되었고, 계봉우가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대한광복군정부는 연해주·북간도·서간도를 각각 제1·제2·제3군구로 나누고 제2의 러일전쟁에 대비하였다. 1913년 말 이상설이 정도령을 사임한 후에는 이동휘가 제2대 정도령에 취임하였다.<sup>24)</sup>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 8월 1일, 러시아당국은 블라디보스톡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권업회와 《권업신문》을 통하여 러시아정부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한인들은 기도회와 기금모집을 통하여 전쟁

23) 반병률,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113~114쪽.

24) 계봉우, 《꿈속의 꿈》 1(수고본, 크즐오르다, 카작흐스탄, 1944), 169~171쪽,

후원의 노력을 보여주었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한인들의 노력은 러시아와 일본이 동맹관계가 됨으로 불리하게 된 국제적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권업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911년 이후의 한인민족운동은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곧따져 총독은 한인노령이주50주년기념식의 연기를 명령했다.<sup>26)</sup> 8월 20일에는 연해주 군정순무사는 권업회와 合成會社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36명의 한인지도자들에게 48시간내에 러시아영토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sup>27)</sup> 《권업신문》 역시 9월 초 폐간 처분되었다.<sup>28)</sup>

권업회를 비롯한 노령한인사회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이종호는 블라디보스톡 퇴거명령을 받고 연해주 각지를 숨어 다니다가 마침내 북경으로 도피하였으나, 1917년 6월 상해에서 일본영사관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고 말았다.<sup>29)</sup> 신한촌 거류민회는 해산되자 이름을 위생부로 바꾸었으나 매우 제한적인 민회활동을 겨우 유지하였다.<sup>30)</sup>

#### 다. 국민회

國民會의 활동조건이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안창호가 노령을 떠난 것은 1911년 봄이었다. 《新韓民報》는 1911년 3월 15일자 기사에서 안창호가 “그동안 해삼위에 있어 여러 동포를 인도하다가 모든 일에 재미가 없어 … 장차 구라과 대륙을 지나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sup>31)</sup> 안창호가 블라디보스톡을 떠난 후 연해주지역에 남아있던 국민회 간부들 역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정재관과 이강은 1911년 6월, 양성춘의 아내와 형이 정순만을 살해하고 기호파가 이 사건의 배후선동자로 무고되자, 러시아당국의拘引을 피해 치타로 도피하였다. 그 외에 김성무·백원보·황공도 등 국민회

25) 《권업신문》, 1914년 8월 16·23일.

26) 《권업신문》, 1914년 8월 16일.

27) 계봉우, 앞의 책, 169~170쪽.

28) 뒤바보, 〈俄領實記〉(《독립신문》, 1920년 3월 30일).

29) Byung Yool Ban, *op.cit.*, p. 228.

30) 박 환, 〈대한국민의회와 연해주지역 3·1운동의 전개〉(《연해주 한인독립운동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광복회 고려학술문화재단 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문, 1999년), 72쪽.

31) 《新韓民報》, 1911년 3월 16일.

간부들 역시 기호파와 북파의 공격으로 구금되거나 오지로 도피하였던 것이다.<sup>32)</sup> 러시아당국이 연해주지역에서 국민회의 합법적인 활동을 허용하지 않자, 백원보·황공도 등과 신채호·장도빈·정경오 등이 블라디보스톡에서 표면적으로 권업회에 참여하며 비밀회합을 통하여 단결을 모색하였고 기타 지역에서는 다른 명칭의 단체를 조직하였다.<sup>33)</sup>

이것은 국민회가 이 무렵 과거의 활동에 대한 자기비판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갑 등 국민회 지도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러시아당국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갑은 미국의 안창호 등 대한인국민회 지도자들에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갑은 러시아지역에서 국민회 활동에 대한 러시아 당국자들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신한민보》가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기사를 삼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러시아 당국자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sup>34)</sup>

앞에서 말한대로 블라디보스톡을 떠난 정재관과 이강이 치타에 도착한 것은 1911년 9월 10일이었다. 자바이칼주·아무르주·시베리아지역의 금광지역에 흩어져 있는 10만 명의 한인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이갑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로교 신자인 이들은 러시아정교로 개종하는 한편, 치타지역 러시아정교회의 부주교인 예프렘 쿠즈네초프를 대부로 모시고 한인들 사이에서의 정교포교에 나서기로 했던 것이다. 예프렘의 주선으로 정재관과 이강은 월간종교지인 《대한인정교보》의 발행허가를 획득하였다.<sup>35)</sup> 《대한인정교보》는 1912년 1월 2일 문운함을 발행인으로, 이강을 주필로 하여 창간호를 발행하였다.<sup>36)</sup> 이강과

32) Byung Yool Ban, *op.cit.*, pp. 189~190.

33) <정경오-안창호 편지(1912년 11월 28일)>(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도산안창호자료집》 1), 394쪽.

<백원보-안창호(1913년 1월 21일)>(《도산안창호자료집》 1), 203쪽.

34) <이갑이 최정익 등에게 보낸 편지(1911년 11월 24일)>(《도산 안창호자료집》 1), 263~264쪽.

35) <이강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2년 2월 12일)>(《도산 안창호자료집》 1), 57쪽.

36) 《대한인정교보》 1호(1912년 1월 2일), 33쪽.

정재관의 활동으로 국민회는 그 조직을 확대하였다. 1910년 10월 16일에 조직된 치타지회를 비롯하여 베르흐네우진스크·블라고베시첸스크·이르쿠츠크·톰스크·튜멘·첼랴빈스크 등지에 지회가 조직된 것이다.<sup>37)</sup> 이강과 정재관은 미주의 대한인국민회로부터 원동지역의 전권위원의 위임을 받았고, 이들은 9개의 국민회 지회를 기반으로 1911년 말 시베리아지방총회를 조직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정재관은 북파·기호파·서도파·勤業會 계열 등 4파가 연합하여 러시아당국의 인허를 얻어 창립된 권업회에 서도파의 대표격으로 참여하기 위해, 1911년 12월 28일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났고, 이후 이강이 치타에 본부를 둔 시베리아지방총회의 활동을 주도하였다.<sup>38)</sup>

시베리아지방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전까지 치타에서 2차례의 대회를 개최했다. 16개 지회 대표들이 참가한 제1회 대회(1913년 5월 28일~6월 7일)는 《대한인정교보》를 공식기관지로 승인하였고, 19개 지회 대표들이 참가한 제2회 대회(1914년 6월 15일~6월 20일)에서는 연해주지역의 한인들이 준비하고 있던 노령한인이주50주년에 시베리아횡단철도 연선지역의 19개 지회 대표들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1915년 12월에 개최예정이었던 제3회 대회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열리지 못했으며, 1917년 2월혁명의 발발까지 국민회의 활동은 계속될 수 없었다.<sup>39)</sup>

#### 라. 제1차 세계대전과 한인민족운동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17년 2월혁명에 이르는 시기는 러시아 한인 민족운동의 일대 침체기였다. 주요한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농촌지역이나 오지 또는 북만주나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1916년 말 1917년 상반기에 이르는 시기에 노령지역의 주요지도자들은 사망하거나 감옥에 수감되어

37) <이강·정재관이 찬창호에게 보낸 편지(1911년 9월 12일)>(《도산 안창호자료집》 1), 14쪽.

38) <이강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2년 2월 12일)>(《도산 안창호자료집》 1), 56~57쪽.

39) 《도산안창호자료집》 3, 103~132쪽.

《신한민보》, 1915년 11월 11일.

있었다. 권업회의 회장을 지낸 金道汝는 1916년 12월 사망하였고, 이상설과 이갑은 2월혁명 후인 1917년 4월·5월에 사망하였으며, 이동휘 역시 2월혁명의 소식을 듣고 북만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 왔다가 러시아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되었던 것이다.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독립운동

### 가. 2월혁명과 고려족중앙총회

러시아 2월혁명 이후의 노령 한인사회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원호인 즉 入籍 한인들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17년 6월 4일, 니콜리스크(소왕령)에서 이르쿠츠크 以東의 각지 대표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全露韓族代表者會가 개최되었다.<sup>40)</sup>

대회는 S.L(사회혁명당) 계열의 원호인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대회는 러시아 임시정부 지지를 결정하고, 임시정부에 축전을 보내는 한편, 임시정부의 정책인 ‘승전할 때까지 전쟁지속’을 지지하였다. 대회는 ① 입적한인은 헌법제정의회에 대표를 파견할 것, ② 입적한인에 의한 한족대표회의 조직, ③ 농업용 토지문제 해결 요구, ④ 교회로부터의 학교 독립, ⑤ 정기간행물 출판(니콜리스크: 《靑邱新報》, 블라디보스톡: 《韓人新報》) 등을 결의하였다. 이처럼 대회는 러시아내에서의 원호인들만의 자치와 권리신장에 비중을 두었던 만큼, 여호인들의 ‘한족대표회’ 참여가 배제되었고, 항일적인 주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sup>41)</sup>

이러한 대회의 성격은 어느 대표가 이동휘를 비롯한 한인 정치망명자들의 석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폐기된 사실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결국 대회에서는 다수파인 원호인 70여 명과 소수파인 여호인 30여 명의 대표들간에 합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회의 취지였던 ‘한인의 일대단체’의 조직에 실패하고, 원호인만으로 高麗族中央總會를 조직하는 데에 머물렀다.<sup>42)</sup> 이처럼 대회의 주도인물들은 항일운동의 과제보다는

40)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45쪽.

41) 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45~46쪽.

42) <백원보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7년 7월 23일)> (《도산 안창호자료집》 1),

한인사회의 민족적 권리의 신장이라는 과제를 우선시하였다.<sup>43)</sup>

여하튼 러시아 2월혁명 이후 한인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원호인들의 민족 자치우선의 입장은 중앙의 케렌스키정권이 붕괴된 10월혁명까지도 지속되었다. 고려족중앙총회는 10월혁명 후인 1917년 11월 25~27일에 실시된 헌법제정의회 의원선거에서 반볼셰비키적인 시베리아독립정부 지지 입장을 채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8년 1월 11일 개최된 고려족중앙총회는 시베리아 독립정부에 고려족대표로 烟秋南都所 사장이자 우수리스크 지방의원인 최재형 등 2명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다.<sup>44)</sup>

#### 나. 10월혁명과 한족중앙총회

1918년 초에 결성된 韓族中央總會는 이처럼 반볼셰비키적 입장에 있었던 고려족중앙총회에 대한 항일적·친볼셰비키적 한인들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한족중앙총회의 주도인물들은 러시아정교 신부출신인 오와실리(吳永俊)<sup>45)</sup>와 러시아장교인 유스테판·김립·박이반·채성오·이한영·전태국 등 한인지도자들 10여 명이였다.<sup>46)</sup> 한족중앙총회 발기인들은 고려족중앙총회가 여호인들을 배제한 점을 비판하고, 입적·비입적을 불문하고 ‘특별 대동단결’케 하고 ‘식민의 발전과 국가장래에 필요한 교육보급과 실업진흥을 꾀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sup>47)</sup> 한족중앙총회의 발기소식에 접한 고려족중앙총회측에서는 한족중앙총회측의 ‘입적·비입적의 구분타파’, ‘대동단결주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한족중앙총회측과의 제휴·통합교섭에 나섰다.<sup>48)</sup>

221쪽.

43) 劉孝鐘, 〈極東ロシアにおける十月革命と朝鮮人社會〉(《ロシア研究》 45, 1987), 24쪽.

44) 《新韓民報》, 1918년 2월 28일.

45) 오와실리는 원래 러시아정교 신부로서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두번째 남편인데, 1909년에 결혼하였고 권업회 간부로도 활약한 인물이었다. 김알렉산드라의 첫번째 남편은 폴란드인인 마르카 이오치포비치 스탄케비치로 동중철도의 아메호(阿細河) 정거장 역장이었는데, 1907년에 난 아들 하나를 두었다(〈이인섭-김세일편지(1961년 4월 2일)〉).

46) 劉孝鐘, 앞의 글, 24쪽.

《新韓民報》, 1918년 2월 7일.

47) 《新韓民報》, 1918년 2월 7일·4월 11일.

결국 1918년 1월 17일, 양 진영은 ① 입적·비입적 한인의 대동단결, ② 지방회·지방연합회·중앙회 등 3급의 조직, ③ 5개월내의 憲章會議 소집 등 3항에 합의를 이루고 통합에 성공하였다. 헌장회의까지의 임시중앙간부로서는 문창범(위원장)·김립(부위원장겸 학무부장)·장기영(총무부장겸 서기)·서윤철(재무부장) 등을 선출하고, 헌장기초위원으로는 한용헌·김립·장기영·김하구를 선출하였다.

양측이 외형적인 통합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는 잠정적인 타협에 불과했다. 시베리아독립정부(시베리아젠프트보)를 지지하는 고려족중앙총회와 중앙의 소비에트정부를 지지하는 한족중앙총회가 각각의 대립적인 정치입장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족중앙총회측은 10월혁명의 성공으로 인한 볼셰비키세력의 득세라는 객관적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족중앙총회 역시 중앙에서 10월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세력이 사회혁명당세력의 강세지역인 시베리아와 러시아 원동지역에서 아직 확고한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데 따른 것이었다. 특히 노령의 대다수 한인들이 시베리아정부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 다. 한인사회당

1918년 1월 초 고려족중앙총회에 맞서 독자적인 세력결집을 도모했던 한족중앙총회 주도인물들을 중심으로 1918년 3월,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선인정치망명자회의’가 개최되었다.<sup>49)</sup> 이 회합의 직접적인 소집목적은 일본군의 시베리아출병에 대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sup>50)</sup> 대회는 1918년 1월 18일 원동노령지역(연해주·흑룡주·사할린주·하르빈)의 10월혁명 지지파들이 원동러시아의 정권기관으로서 조직한 원동인민위원회의 의장 알렉산드르 크라스노셰코프와 하바로브스크소비에트의 외무위원장이며, 하바로브스크시 볼셰비키당 책임비서인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후원과 지도하에 추진되었다.

48) 《新韓民報》, 1918년 2월 28일.

49) 이영일, <리동휘 성재 선생>(手稿本, 1983), 47쪽.

50) 張道政, <高麗共產黨の沿革>(手稿本), 1쪽.

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이동휘였고, 서기는 김립이 맡았다. 준비위원회는 러시아·중국령의 반일애국단체에 대표파견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대회에는 크라스노셰코프와 김알렉산드라·이동휘·김립을 비롯하여, 양기탁·이동녕·유동열·홍범도·김성무·김하구 등이 참여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러시아볼셰비키혁명과 조선독립운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부르조아민주주의적 또는 입헌군주제적 입장에 있던 인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순순한 독립운동만을 위한 ‘光義團’을 조직하고, 원동인민위원회로부터는 후원만을 얻자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동휘의 제안에 찬성하는 다수파는 볼셰비즘에 찬동하고 조선혁명을 그 길로 촉진하자고 주장하여 볼셰비키세력과의 밀접한 연대를 강조하였다.<sup>51)</sup>

이동휘의 주장에 반대한 그룹은 유동열을 제외한 이동녕·양기탁·안정근·조성환 등 신민회 간부들 대부분이었다. 결국 이동휘의 제안과 볼셰비키세력의 주장을 지지했던 좌파그룹의 이동휘·김알렉산드라·유동열·박애·이한영·김립·오성묵·오하묵·이인섭·유스테판·오와실리·임호·전일·박이반 등이 韓人社會黨을 발기하였다.<sup>52)</sup> 이들은 1918년 5월 10일, 한인사회당 창립을 위한 한인사회당중앙위원회 확대총회를 개최하고 중앙간부를 선출하였다. 대회에서는 소비에트러시아와의 연대와 反日·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중앙위원들을 선출하고, 조직·선전·군사 등 주요 부서를 설치하였다.<sup>53)</sup>

중앙간부위원장으로 이동휘가 선출되었으며, 그 외 중앙위원으로는 부위원장으로 김알렉산드라의 남편인 오와실리(러시아문 서기 겸임), 청년부위원장은 오성묵, 한글서기겸 《자유종》주필로 김립, 군사부장겸 군사학교장으로 유동열, 재무부장겸 선전부장으로 이인섭(이반) 등이 선출되었다.<sup>54)</sup> 중앙간부

51) 십월혁명십주년원동기념준비위원회, 《십월혁명십주년과 소비에트고려민족》(해삼위도서주식회사, 1927), 46쪽.

52) 십월혁명십주년원동기념준비위원회, 위의 책, 46쪽.

53) 반병률,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의 생애와 활동—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尹炳奭教授華甲紀念 韓國近代史論叢刊行委員會, 《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788쪽.



위원회에서는 당기관지 《자유종》이란 잡지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주필은 김립이 맡았다.<sup>55)</sup> 한인사회당의 출판활동은 크라스노셰코프를 의장으로 하고 있는 원동인민위원회에서 석판기계(1대)와 인쇄비, 종이 등을 제공하였다.<sup>56)</sup> 그리하여 1917년 5월 1일(러시아력) 한인사회당의 기관지 《자유종》의 창간호가 발행되었다.<sup>57)</sup> 한인사회당은 장교훈련을 위한 군사학교(교장: 유동열)을 설립하였으며, 김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 주둔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한 반제·반전사업을 전개하였다.<sup>58)</sup>

한인사회당은 볼셰비키혁명세력의 赤衛隊활동에 참여하였다. 즉 한인사회당은 원동인민위원회의 승인과 지원하에 하바로브스크·이만, 러시아·중국 국경지대 니콜리스크·바라바시·연추(포셋트) 등 각지에 이동회·유동열·김립·이한영 등 한인사회당 간부들이 파견되어 활발한 적위대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 라. 전로한족중앙총회

한인사회당 창당 두달여 후인 1918년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니콜리스크에서 제2회 전로한족대표자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18년 1월 한족중앙총회 지방대표자회에서 한족중앙총회측과 고려족중앙총회측이 5개월 이내에 현장회의를 개최하기로 상호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회가 개최된 1918년 6월은 이미 시베리아횡단철도연선 주요도시에서 5월 이후 영국·프랑스의 압목적 지원을 받은 체코군에 의한 반볼셰비키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체코군 구출’을 명분으로 한 일본군 등 서구열강의 무력개입이 임박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정세에 크게 고무된 러시아 반혁명세력이 재결집하는 등 볼셰비키세력이 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던 시기였다.

노령의 각지방 단체대표와 학교대표 129명이 참가한 대회는 대회 의장으로

54) 이인섭,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스탄케비치)의 전기>(*《시사저널》* 216, 1993년 12월 16일), 76쪽.

이영일, 앞의 글, 53쪽.

55) 이영일, 위의 글, 54쪽.

56) 뒤바보, <俄領實記>(*《獨立新聞》*, 1920년 4월 3·8일).

57) 이영일, 앞의 글, 54쪽.

58) 이인섭, 앞의 글, 68~69쪽.

로 金昌元, 부의장으로 한용헌·윤해를 선출하였으며, 비입적과 입적인을 대표하는 두 원로 이동휘와 최재형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원동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유스테판이 축사를 하였고, 원동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크라스노셰코프와 김알렉산드라가 참여하여 연설하였다. 한인사회당 대표들은 소비에트권력만이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한인노동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에트정부의 지지와 승인을 얻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한인사회당 대표들은 전로한족회의 중앙총회를 개선하고 중앙총회의 본부를 소비에트 볼셰비키세력의 본거지인 하바로브스크로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다.<sup>59)</sup>

한인사회당의 시도는 사회혁명당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입적인 중심의 다수파가 헌법제정의회와 시베리아지방의회를 지지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좌절되었다. 사회혁명당계열의 한인사회당은 비입적 소작농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들이 대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대회를 떠남으로써 수적인 열세가 더욱 심화되었다.<sup>60)</sup> 이 대회는 시세문제·토지문제·이주지문제·토지에 대한 배상문제·교육문제·노동문제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참예한 대립과 논쟁은 시세문제와 토지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루어졌다. 시세문제에 관한 토론에는 41명이 연사로 참여하여 열띤 논전을 벌였는데, 제출된 3개의 결의안 중에서 68명의 대표가 찬성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즉, 대회는 “자유·평등·우애를 근본으로 하여 민족의 자립생활 수행을 위하여 대러시아혁명에서 얻은 바를 일심단체하여 표방하기로” 하고 ‘우리의 자유만세’, ‘러시아혁명만세’, ‘사회주의만세’를 슬로건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결의내용은 볼셰비키정권에 비판적이면서도 이에 도전할 수 없는 고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회의 결의는 “한편으로 현존하는 권력에 승복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종적인 승자의 편에 서고자 중립을 내세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한인사회당의 소비에트정권 지지결의안을 무마하기 위해 채택된 이러한 중립선언은 러시아 원동지역의 소비에트 볼셰비키세력이 내외의 반혁명세력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상황

59) 반병률, 앞의 글, 790~791쪽.

60) 劉孝鐘, 〈極東ロシアにおける十月革命と朝鮮人社會〉, 40쪽.

에서는 사실상의 반볼셰비키선언이나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한인사회당 대표들의 대회 탈퇴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였던 것이다.

대회에서 한인사회당의 열세는 대회의 마지막날인 6월 22일·23일에 선출된 한인사회당 계열이 전로한족회중앙총회의 주요간부로서 선출되지 못하였던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중앙총회간부로는 회장 문창범, 부회장 윤해·채안드레이, 고문 최재형·이동휘, 원동인민위원회 외교부 파송대표 한용헌·박진순, 상설위원 김츄프로프·김야곱·원세훈·한여걸, 상설위원 후보위원에 강량오·김이직·염피토르, 검사위원에 고창일·엄주필·한미하일, 후보검사위원에 김기룡·김철훈·김미하일 등이 선출되었다.

#### 마. 시베리아 내전과 민족운동

제2회 전로한족대표자회 폐회 직후인 6월 2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체코군이 반볼셰비키봉기를 일으킴으로써, 극동 각 지역의 볼셰비키정권들이 무너졌다. 이어 8월초부터 일본·미국·영국·프랑스 등 열강이 무력개입을 개시함으로써, 한인사회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특히 일본군은 체코군·백위파군과 협력하여 볼셰비키정권을 붕괴시켰다.

체코군이 봉기하자 한인사회당의 전일·유동열 등이 100명의 조선인 적위대를 이끌고 러시아적군과 함께 우수리진투에 참가하여 연합군과 합세한 카르미코프 백위파군과 싸웠다. 한인적위대원들은 반수 이상이 전사하였다.<sup>61)</sup> 이동휘 등 한인사회당의 주요간부들은 북만주나 농촌지역으로 도피·잠복하였다. 볼셰비키 하바로브스크시당을 책임지고 있던 김알렉산드라는 1918년 9월 16일 카르미코프 백위파군에게 도피중 잡혀 처형되고 말았다.

1918년 중반기에 있었던 체코군의 반볼셰비키 봉기로 각지에 성립되었던 사회혁명당 주도의 중간파정권들은 점차 열강들의 무력개입을 계기로 득세하기 시작한 백위파세력에 의하여 교체되어갔다. 마침내 1918년 11월 중간파 주도의 옴스크정부가 콜차크제독의 군사쿠데타로 붕괴된 이후, 1920년 초 볼셰비키혁명세력이 백위파세력을 구축하게 되기까지 시베리아는 한인민족운동에 탄압적인 백위파의 천하가 되었다. 한인사회당 당원들은 러시아 볼셰

61) 반병률, 앞의 글, 794쪽.

비키세력과 함께 농촌지역이나 지하로 잠입하였고, 사회혁명당계열의 전로한족중앙총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삼가하면서 가까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여 나갔던 것이다.

이들 노령의 한인조직들이 활동재개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은 1918년 말 1919년 초의 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파리강화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외민족운동이 활성화되면서부터이다. 3·1운동을 전후로 하여 국내외 민족운동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전로한족중앙총회와 한인사회당은 전체 민족운동선상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조직정비와 활동에 서게 된 것이다. 백위과정권하에서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전로한족중앙총회는 파리강화회의에 2명의 대표를 파견하는 한편, 노령과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세력을 결집하여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민의회를 모델로 한 大韓國民議會로 확대·개편함과 동시에 3월 17일의 연해주지역의 독립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임시정부적 기관을 자임하게 된다. 한편 지하로 잠입했던 한인사회당은 이동휘를 비롯한 간부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재집결하면서 활동재개를 모색하게 되고, 3·1운동 이후인 4월말 한인사회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新民團과의 합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 재건하게 되는 것이다.

〈潘炳律〉

### 3) 중국 관내지역

#### (1) 한인의 이주와 한인사회의 형성

##### 가. 독립운동의 환경과 상해

1910년대는 일본의 세력이 극동지역 전역으로 팽창하던 시기였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은 시베리아로부터 長江에 이르는 지역을 세력권으로 확장하였는데,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었다. 유럽국가들은 전쟁의 수렁에 빠져 극동지역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고, 러시아나 볼셰비키정권도 여력이 없었다. 월슨정부가 일본의 산둥반도 점령을 반대하였으나, 당시 미국정부는 국제연맹의 설립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주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910년대 국제정세는 한국독립운동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sup>1)</sup>

中國 關內地域은 河北省 山海關 서쪽, 四川省 康定 동쪽, 甘肅省 嘉峪關 동쪽지역을 가리킨다. 관내지역이라는 말에는 漢族의 활동강역 및 中華文化의 범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체로 長城을 경계로 하며, 몽고·만주·월남 등 주변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그것을 구분짓는 의미를 함축하였다. 일제하 해외독립운동의 무대로서 관내지역은 대체로 동북군벌 및 괴뢰 만주국의 영역인 중국 동북지방(흔히 ‘滿洲’로 지칭)과 구분되는 중국 국민당정부와 중국 공산당정권의 관할구역을 가리킨다. 특히 上海·南京·北京·天津·武漢·重慶·廣州·延安 등이 한인독립운동의 주요거점이었다. 1910년대의 경우, 상해가 여타 지역에 비해 활발한 곳이었다.

상해가 반일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된 배경으로는, 첫째 국내와 가깝고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교통요충지라는 점, 둘째 국제열강을 비롯한 각국의 외교기관이 주재하고 있어, 외교활동을 통한 효율성이 기대되었던 점, 셋째租界로 대변되듯이, 제국주의국가 간의 힘의 균형상태가 유지되어, 활동공간의 확충이 가능하였던 점, 넷째 중국·월남·인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민족해방운동세력과 국제연대 형성의 가능성이 기대되었던 점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辛亥革命도 한인의 중국행에 영향을 미쳤다. 한인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중국혁명의 성공 소식에 고무되어 망명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呂運亨은 “황홍과 孫文의 사진이 서울 중국인 상루에 걸리고, 혁명의 새로운 음파가 유치청년의 귀를 난타하는” 정황에서 중국행을 결정하였다. 金奎植도 압록강을 건널 때 “신해혁명의 주도자인 손문을 만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조국을 잃은 한인 청년들은 신해혁명의 소식에서 희망과 기대를 발견하였다. 손문은 한인 청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sup>2)</sup>

1) 이정식, <1910년대의 국제정세>(《한민족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 이만규, 《여운형선생투쟁사》(민주문화사, 1947), 19쪽.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신구문화사, 1974), 41쪽.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민두기는 “중국의 공화혁명은 우리의 독립운동에 ‘가능성의 신앙’이라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평가하였다(민두기, 《신해혁명

상해는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하였다. 영국조계(현재의 延安中路 북쪽, 北京東路 남쪽, 1845년) · 미국조계(현재의 蘇州河 북쪽 虹口일대, 1848년) · 프랑스조계(현재의 延安中路 남쪽, 西藏南路 동쪽, 1849년)가 설정되었고, 1863년 영 · 미조계는 公共租界로 합쳐졌다. 이로써 상해는 크게 공공조계(현재의 魯迅公園 일대, 閘北鐵道 남쪽, 蘇州河 북쪽, 靜安寺 서쪽, 中山公園 동쪽지역) · 프랑스조계(현재의 徐家匯路 동 · 북쪽, 肇嘉浜路 북쪽, 延安西路 남쪽, 開沙恩橋 서쪽지역) 그리고 上海縣城(현재의 上海市 南市區)으로 구분되었다. 조계는 1942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1910년대 중반 상해에 발을 디뎠던 李光洙는 “프랑스조계는 영미조계와 길 하나를 사이함에 불과하건만, 조용하고 쓸쓸하기가 딴 세계라. 그 본국의 소식하는 표상인가 하여 슬그머니 설움이 나더이다. 그러나 도로의 정결함, 長林과 가옥의 瀟灑함은 경쾌하고 詩趣있는 라틴식을 발휘하였더이다”<sup>3)</sup>라고 소회를 적었다.

많은 한인은 프랑스조계와 공공조계에 동지를 틀었고, 일부는 상해현에도 살았다. 1910년 이전 한인의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나, 1910년 이후에는 일본세력이 개입할 수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프랑스조계가 한인의 주된 거주지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프랑스조계가 1910~1920년대 한인독립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한 배경으로는 다음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영 · 미와 프랑스간의 전통적인 경쟁 · 견제관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대일본 이해관계와 맞물려 한층 심화되었다. 1900년경 이래 영 · 미는 러시아의 만주독점과 남방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묵인한 반면에, 프랑스는 영 · 미에 대항하는 정책의 기조 위에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구도는 자국이익이라는 기준에 의해 가변적인 것이었으나, 한인정책의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이 없다. 지엽적인 예이지만, 프랑스는 도쿄에 체제 중인 베트남왕국 망명세력을 매개로 일본과 신경전을 벌였다. 전 베트남왕국의 왕자 콘테(Conte)는 동경에서 반프랑

사), 민음사, 1994, 19쪽).

3) 이광수, 〈상해인상기〉(《이광수전집》 18, 삼중당, 1963), 203쪽.

스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이는 양국 정부의 외교 현안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프랑스조계 당국의 한인정책에도 투영되었다. 프랑스조계 당국은 한인독립운동에 대해 방관적 또는 지원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인을 대일본 정보수집 및 외교활동에 투입하였다. 이는 이 지역 한인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조건이 되었다. 1910년대 한인독립운동이 이곳을 주무대로 전개되었고,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곳에서 수립되어 1932년 윤봉길의 거를 계기로 상해를 탈출할 때까지, 프랑스조계가 한인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던 사실에는 이같은 국제관계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조계 당국의 입장도 상해근대사의 진전에 수반하여 변화해 갔다. 즉 상해는 중국 공산주의운동의 발원지였으며, 1920년대 중반 이래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주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환경하에서, 프랑스조계 당국의 한인민족운동세력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920년대 중반 이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침체상황은 이러한 상해의 정세변화 및 프랑스조계 당국의 태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나. 한인사회의 형성과 생활상

독립운동의 기반으로서 해외 한인사회의 형성은 국권상실 전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한인들은 중국·러시아·미국·일본 등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 압록강·두만강 건너 간도와 연해주에는 한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고, 한인의 이주지역은 黃河와 長江 이남으로 확대되었다. 상대적으로 국내와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중국 동부와 북부의 대도시에는 한인 거주지역이 형성되었고, 친목단체와 교육기관이 태동하였다. 이 중 현저한 양상을 띤 곳이 상해였다.<sup>4)</sup>

상해로의 이주경로는 육로와 해로 두 갈래가 있었다. 육로의 경우, 대체로 신의주를 거쳐 열차편으로 瀋陽(奉天)·營口 등지를 경유 천진에 이르러, 다시 열차나 선편을 이용하는 경로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濟南과 靑島가 경유지가 되었다. 해로의 경우, 인천이나 부산에서 직항하거나, 인천·진남포에서

4) 이에 대해서는 孫科志, <한인의 상해망명과 초기 한인사회의 형성>(《한국근현대사연구》7, 1997)이 참조된다.

중국의 煙臺를 거치는 경로가 있었다.

1910년대 초반 상해에는 소규모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한인은 상업에 종사하거나 영국·미국인 경영의 전차회사 등에 근무하였다. 1917년 중반의 한인 수효가 500여 명으로 파악되며, 3·1운동과 임정수립 시기에는 1,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sup>5)</sup> 반면에 1910년 이전 거주한인의 수효는 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초기에는 독신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의 수효가 증가하였다. 이들은 중국 동북지역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고, 경제적 상황도 나은 편이었다. 이주한인의 대다수는 강한 반일정서의 소유자였다. 이주 목적은 취업·유학·독립운동 등 다양한 형태를 띠었으나, 국권피탈과 일제침략이라는 공통의 이주동기를 배경으로 하였다. 때문에 한인사회는 여타 외국인사회에 비해 강렬한 정치의식을 표방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32년 윤봉길의거시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인들은 기독교·대종교 등의 종교활동을 통해, 상호부조와 단결의 기틀을 마련해 갔다. 기독교의 경우, 1914년 10월 寓滬韓人禮拜會 모임을 조직하였으며, 정기적인 주말예배 행사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펼쳤다. 대종교의 경우도 申圭植·趙琬九·金科奉·朴贊翊 등을 중심으로 하여, 御天節·開天節·國恥紀念日 행사 등을 주관하였다. 이러한 종교의식에 근거한 행사는 한인들의 단합과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으로 역할하였다.

거류민 조직으로서의 한인단체가 결성된 것은 1918년 가을이었다. 呂運亨과 申錫雨 등의 주도하에 조직된 上海高麗僑民親睦會의 출현은 한인사회의 집단의식과 동질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실이었다.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우리들 소식》이라는 선전기관지를 발행하였다. 친목회는 신한청년당의 내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상해 재류 동포의 情誼를 敦睦함으로써 主되는 목적을 삼아” 결성되었으며, “농후한 독립운동의 색채를 띠었다”는<sup>6)</sup> 친목회에 대한 평가는 한인사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9(1975), 11~12쪽.

6) 《독립신문》, 1920년 4월 8일.



회가 상해 소재 외국인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적·민족적 성격을 띠었음을 반영한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그 산하단체로 편입되었고, 이해 9월 22일 上海大韓人民團으로 개편되었다.

또 신규식·曹成煥·朴殷植·閔忠植이 중심이 된 棲華同樂會라는 한인조직이 있었다. 거류한인의 단결 및 재외 한인단체와의 연락 등을 도모하였으며, 중국청년회관이나 중국학생회관 등을 빌려 모임을 가졌다. 1916년 중반 일제기관은 이 단체의 성격을 “사교구락부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7)</sup>

이외에 한인사회에서 비중이 높았던 것이 학생단체였다. 한인의 높은 교육열을 배경으로 하여, 1910년대 초반부터 상해 일원에는 중국 및 구미지역의 대학에 유학하려는 한인이 적지않게 모여들었다. 1912년 文一平은 南京에서 십 수명의 유학생을 목격하였다. 중국혁명의 진전에 따라, 이들은 1913년 후반기 한때 상해로 이동하기도 하였는데,<sup>8)</sup> 당시 남경지역의 한인은 신규식 등 상해 한인세력의 영향권내에 있었다.

1910년대 상해와 인접지역에 소재한 南洋公學·復旦大學·金陵大學·東吳大學 등을 비롯하여, 鑛學校·鐵路鑛學校·商船學校·海軍水雷學校·농업학교·전신학교·군수학교·체육학교 등 각급 고등교육기관에는 많은 한인학생이 재학하였다. 학생조직으로는 1915년의 上海韓人留學生會가 시초인 것 같다. 회원은 李康熙·申國權 등 55명이었다고 한다. 한인학생들은 독자적인 학생회를 조직하였으며, 중국인 학생활동에도 참가하였다.<sup>9)</sup>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구축

“중국혁명이 나의 피를 끓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손문·황흥·송교인이란 이름은 마치 일가나 친구의 이름과 같이 익숙하였고, 신문에 오르는 그네들의 사진조차 어려서부터 낯익은 얼굴을 보는 듯 하였다”<sup>10)</sup>는 이광수의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9(1975), 23~24쪽.

8) 문일평, <나의 반생> (《호암전집》 3, 일성당서점, 1948), 496쪽.

9) 민필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나> (김준엽 편, 《石麟閔弼鎬傳》, 나남, 1995), 55·72쪽.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임정편 III(1974), 565쪽.

10)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13), 226쪽.

고백은 1910년대 초반 한인들의 중국관을 보여준다.

신해혁명에 고무되어 망명해 온 한인들은 한국의 독립이나 혁명을 위한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형성을 희망하였다. 한인들은 중국혁명에의 참여를 통한 한·중연대 구축방안을 중시하였다. 신규식과 조성환은 “목숨이라도 중국혁명에 바쳐 지지의사를 표하고자” 하였다. 남경의 한인유학생 6명은 1911년 말 學生軍에 들어가 북벌에 참여하였으며, 다시 陸軍學堂에 들어가 각종 군사기술을 습득하였다. 또 신규식의 조카 申衡浩는 상해 도착 직후 중국혁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中華學生軍團에 자원 입단하였다. 이외에도 혁명군의 군비확충을 목표로 한 기부금 모금 및 의료구호 활동 등에 동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혁명세력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 한국인의 명의로 중국혁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단체의 부재 상황은 한인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에 젖게 만들었다. 한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대변하고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단체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내 각 지방에 한인단체를 만들고, 또 각 지방에 와 있는 한인동지들과 급히 연락하여 서로 보호하고 돕자”는 중국혁명세력측의 제안은 한인연락기관 건립의 형태로 진전되었으며, 동제사와 신아동제사의 결성은 이러한 한·중연대 선상에서 파악된다.<sup>11)</sup>

한인들은 중국혁명 성공의 날이 곧 한국의 독립·해방의 때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는 한국해방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었다. 신규식 등은 《民權報》·《民立報》 등의 언론기관과 南社·寰球中國學生會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 단체는 中國同盟會의 주요 지지기반으로서, 《민립보》는 멕시코·필리핀·인도·터키 등의 민족주의운동 소식을 크게 보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혁명의식을 진작시켰다. 《민권보》는 특히 反袁世凱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였다. 남사는 동맹회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던 진보적 혁명문화단체를 표방하며, 상해지역 언론기관의 혁명적 논조를 주도하였다. 환구중국학생회는 중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사무보조와 취

11) 배경한, <상해·남경지역의 초기(1911~1913) 한인망명자들과 신해혁명: 武昌起義·討袁運動에의 참여와 孫文·혁명당인들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67, 1999)는 한인의 신해혁명 지지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성과이다.

업알선 기관을 표방하며 1905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인물인 朱少屏은 신규식과 밀접한 사이였으며,<sup>12)</sup> 신규식의 주도하에 성사된 박달학원의 설립에는 환구중국학생회의 취지와 역할이 참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1918년 2월 당시 중화민국 내무차관인 尹壯伊와 신규식의 왕래편지 중의 “국제간에는 서로 최선을 다하여 도우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부탁하신 여러 가지 일은 이미 손문선생과 당계요선생 등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지만, 힘이 부족하니 기회를 기다려서 추진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震懍基本一層(암호로 쓴 용어로, 무기를 지칭하는 것 같음; 역자 최중건)도 이미 상의를 하였습니다. 기다려서 숫자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신규식과 중국혁명세력 간의 연대내용과 수준을 짐작케 한다.<sup>13)</sup>

1910년대 한·중 연대활동의 중심인물은 신규식이었다. 신규식이 상해에서 처음 만난 인물은 徐天復이었다. 그는 《민립보》 사원으로 재직하며, 《民呼日報》·《民吁日報》 등을 통해 반일 혁명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신규식은 그를 통해 陳其美·宋教仁·黃興·戴季陶 등 중국혁명의 주요인물과 교유하였으며, 중국혁명세력의 연락기관인 민립보사·민권보사·남사 사옥·환구중국학생회관 등은 한·중 혁명세력의 연대기구 역할도 겸하였다.<sup>14)</sup>

12) 신규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신승하, <예관 신규식과 중국혁명당인과의 관계> (《김준엽교수화갑기념 중국학논총》, 1983).

강영심, <신규식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특히 신규식의 한·중연대 일화 등은 <申圭植先生傳記>·<申公逸話二三事> (김준엽 편, 앞의 책)에 소개되어 있다.

13) 최중건 편, 《대한민국임시정부문서집람》(지인사, 1976), 56쪽.

14) 단편적인 사실이지만, 정원택은 1913년 초 상해에 도착하여 民權報社를 통해 신규식과 접촉하였는데, 민권보사의 핵심인물은 戴季陶였다. 이해 가을 환구중국학생회관에는 한인유학생을 위한 영어강습소가 설치되었고, 신규식과 申采浩도 이곳에 머문 것으로 파악된다. 또 1919년 봄 정원택은 환구중국학생회관 측에 신규식과의 연락을 의뢰하였다(鄭元澤, <志山外遊日志>,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364·374·438쪽). 또 1916년 중반 일제 정보자료는 “신규식·조성환·민충식 등에게 오는 서신·전신 등 미국에서 오는 것은 환구중국학생회를 통해 전달”된다고 파악하였다(《독립운동사자료집》 9, 25쪽). 또 대계도가 이끌던 自由黨의 남경당사에도 한인유학생을 위한

“예관의 집에는 매일 한어반과 영어반도 열렸다. 김규식이 영어를 가르쳤다. 그들은 여기서 한어나 영어를 배워 가지고 중국 대학이나 서양에 유학을 가려는 사람이었다”, “예관집 2층방 한쪽 벽에는 태극기가 교차되어 있었다. … 애국가를 부르고 여자들의 독창도 있고 나서, 연회도 있었다. 모두 예관이 차린 것이었다”, “1913년 경 예관택은 상해 뿐만 아니라, 강남일대 조선인 망명객의 본거였다.”<sup>15)</sup>

신규식은 1912년 4월 중순 상해에서 손문을 면담하였다. 그는 손문의 친절한 태도를 ‘동포에 대한 박애’로 받아들였다. 신규식은 손문이나 중국을 같은 동포로 인식하기까지 하였다.<sup>16)</sup> 이는 국권피탈 직후 한인의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별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일제하 한·중간의 국제연대를 지탱해준 동맥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때로는 중화관념과 뒤엉켜 한인독립운동을 제약하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신규식은 한·중 간의 국제연대를 통한 독립운동의 기반 조성이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유대의 토대 위에서 한인독립운동의 독자적인 행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의 구상은 한인청년의 중국교육기관 유학 주선으로 구체화되었다. “선생은 4명의 한국청년을 선발하여 운남강무당에 보냈으며, … 청년들과의 작별에 앞서, … 그대들은 모름지기 나라잃은 겨레를 위하여 힘껏 싸워야 할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대들 일개인의 광영은 즉 이천만 겨레의 광영인 것이다”고 당부하였다. 이범석·김종진·김홍일 등의 중국 군벌정권 군사학교 유학이나, 조동호·신성모·민필호·정환범 등의 각급 고등교육기관 진학은 그의 소개와 알선에 의해 성사되었다.<sup>17)</sup>

1910년대 중국혁명세력과 한인독립운동세력의 국제연대를 상징하는 단체로는 신아동제사가 대표적이다. 주요 인물은 신규식과 陳其美였다. 진기미의

중국어 강습반이 개설되었다(정원택, <지산외유일지>, 366쪽).

15) 《이광수전집》 13, 211·212·329쪽. 이 시기 상해에 머물렀던 洪命熹에 의하면, 신규식이 의식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의 신채호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해로 데려왔으며, “이때 예관이 상해 조선인 중의 주인격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하였다(홍명희, <상해시대의 단재>, 《단재신채호전집》 하, 1982, 474쪽).

16) 배경한, 앞의 글, 53쪽.

17) 이에 대해서는 김준엽 편, 앞의 책, 72·291·292쪽.

조카로서,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민당정부의 유력인 물이었던 陳果夫의 “숙부는 조선인 某某 등과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를 하여 新亞同濟社였다. 오로지 조선독립을 위함이었다. 숙부는 이 결사의 감독이 되었고, 물질상·정신상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일은 극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나도 단지 숙부가 말한 것을 들었을 뿐으로, 그 명칭도 알지 못하였다. 15년(1926년)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친구들에게 탐문하여 알았다<sup>18)</sup>”는 회상은 신아동제사가 진기미 등 중국혁명의 중심인물과 신규식을 비롯한 한인망명가들의 국제연대기구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신아동제사는 중국혁명동맹회의 세력이 강성하였던 1912년 말에서 이듬해 초 사이에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교인·胡漢民·대계도·廖仲凱·진과부·吳鐵城·黃覺·黃介民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sup>19)</sup> 신규식과 중국혁명세력을 매개로 형성된 1910년대 한·중간의 연대는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호법정부, 나아가 한인독립운동세력과 국민당정부 간 국제연대의 초석이 되었다.

이외에 조소앙 등은 1916년 인도·중국·대만·필리핀·월남·파키스탄 민족운동세력과의 반제연대 형성에 적극적이었다.<sup>20)</sup> 이처럼 1910년대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주안점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피압박민족운동세력과의 국제적 연대 구축에 있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및 중국국민혁명 등을 통한 국제적 환경에 대한 자각과 근대 국제정치사 인식의 결과였으며, 해외 독립운동의 기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여한 바 적지 않았다.

### (3) 한인단체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기반조성

#### 가. 동제사의 결성과 조직기반의 마련

同濟社는 1912년 7월 4일 결성되었다. 신규식과 박은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신채호·조소앙·문일평·김규식·박찬익·조성환·신건식·민필호·

18) 陳孝儀 主編, 《陳英士先生紀念集》(臺北, 1977), 128~129쪽.

莫永明·范然, 《陳英士紀年》(南京大學出版社, 1991), 202쪽 재인용.

19) 민필호, 《申圭植先生傳記》(김준엽 편, 앞의 책), 302쪽.

20)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하(햇불사, 1979), 489쪽.

신석우·한진산·정원택·여운형·선우혁·서병호·조동호·홍명희 등이 참여하였다. 총재(박은식)·이사장(신규식)·간사 및 사원으로 편제되었으며, 전성기의 회원이 300여 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주도인물의 면모로 미루어 보면, 이들은 시민적 민족주의·대동사상·개량적 사회주의를 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同舟共濟’라는 명칭이 함축하듯이, 표면상으로는 동포들의 호조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국권회복을 전개했던 독립운동단체였다.<sup>21)</sup>

동제사의 활동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보탬을 준다. 1910년대 전반기 상해와 남경의 한인유학생들은 대개 신규식의 주도하에 집단으로 숙식하였다. 당시 정황하에서 한인단체의 활동은 한인유학생을 돌보고 유학을 알선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다. 동제사도 출범 당시에는 이 같은 현실상황을 반영한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조직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2)</sup> 박달학원의 운영을 통한 한인유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 사실 등이 이 같은 측면을 뒷받침한다.

1913년 초에서 이듬해 가을까지 상해에 있었던 鄭元澤의 일기에 근거하면, 동제사는 상해와 남경지역의 한인유학생을 주요 인적기반으로 하였다. 신규식·김규식·홍명희·정인보·문일평 등이 빈번히 왕래하며 양 지역의 유학생을 지도하였다. 또 이들은 동제사 총회 및 창립기념식, 박달학원 개학식, 흥범식·안중근 의사 추도회 등을 개최하였다.<sup>23)</sup> 이를 통해 단원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동제사의 성격도 상호부조적 차원을 넘어 점차 반일 민족주의운동단체로서의 성향이 강화되어 갔을 것이다.

동제사를 ‘혁명당’으로, 사원을 ‘당원’으로 부르기도 하였다는 사실은<sup>24)</sup> 당

21) 이에 대해서는 김희곤, <同濟社와 상해지역 독립운동의 태동>(《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이 대표적이다. 동제사는 共濟社·同舟社라는 명칭으로도 나타난다.

22) 배경한, 앞의 글, 61~63·65쪽에서는 “동제사의 결성 초기 임무와 활동은 신규식·박은식 등의 지도 아래 공동생활을 하던 한인유학생의 조직이었고, 실제로는 유학의 알선이나 편의 제공, 어학공부 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립운동의 기반을 주선하는 일을 하였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하였다.

23) 정원택, <지산의유일지>(앞의 책), 369~380쪽.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4(1972), 112쪽.

시 중국혁명의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면 반일독립운동단체로서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갔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중국 각지와 구미·일본에 分社를 두었으며, 《新韓民報》·《國民報》 등 미주 한인사회의 신문을 安東縣(지금의 丹東市)을 경유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sup>25)</sup> 이는 동제사가 해외 한인사회의 중간연락기관 뿐만 아니라 반일운동단체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동제사의 중간연락기관 설치와 활동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1917년 미국에서 상해에 온 張建相은 “동제사에서는 조국광복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만주 안동현에 자리잡고 본국으로부터 망명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나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sup>26)</sup>고 증언하였다.

1916년 9월에 작성된 일제자료는 “본국 및 외국 각 요지를 통하여 비밀결사를 만든 바, 일본에도 또한 그 지사가 있으며, 이에 가입하는 자는 모두가 비밀을 맹약하고 각지에 각각 사장 및 간사를 두어 암호를 써서 서로 왕복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분자이다는 등의 정보도 있다”<sup>27)</sup> 분석하였다. 이는 1916년 중반 무렵 동제사가 독립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원택의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면, 한인유학생 지원 등 상호부조기구로 출발한 동제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등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독립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간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함께 동제사는 중국혁명세력의 한인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한·중연대의 창구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그리고 신아동제사는 동제사의 조직을 기반으로 결성된 한·중 양국혁명운동의 효시적인 호조기관으로 평가된다.<sup>29)</sup> 이외에 1915년에는 신규식·

25) 대한민국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1976), 3쪽.

경상북도경찰부, 《高等警察要史》(1934), 85쪽.

26) 장건상 외,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희망출판사, 1966), 413쪽.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9, 23쪽.

28) 신승하, 앞의 글, 618쪽.

29) 김희곤, 앞의 글, 55쪽. 이와 더불어 배경한은 동제사를 1910년대 초반 한인유학생의 공동생활 내지는 편의제공 기구로 전제하고, 신아동제사를 “이러한 한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外衛組織으로서”, “일제하 한·중연대조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배경한, 앞의 글, 65쪽). 그리고 민필호는 신아동제사를 “중국대륙에서 처음 생긴 韓中親善 기구였다”고 기술하였다(민필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나>, 김준엽 편, 앞의 책, 71쪽).

박은식 등을 중심으로 한 大同輔國團이 조직되었는데, 본부는 프랑스조계 明德里에 소재하였다. 이들은 시베리아·간도지역의 한인들과 연락하는 동시에, 韓鎭敎·鮮于赫 등 국내인물들과 연계하여 세력확대에 노력하였다.<sup>30)</sup>

#### 나. 민족교육기관의 설립과 인재양성 활동

1910년대 상해지역 한인사회의 교육기관으로는 博達學院과 仁成學校가 대표적이다. 박달학원은 1913년 12월 17일 개교하였으며, 중국 혹은 유럽·미국 지역 대학의 진학을 희망하는 한인유학생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한 예비교육기관이었다. 운영은 신규식이 주도하였으며, 소재지는 프랑스조계였다. 동제사의 부설기구 성격을 띠었다. 박은식·신채호·홍명희·문일평·조소앙·조성환 등과 중국인 農竹과 미국 국적의 화교 毛大衛 등이 교사로 참여하였다. 교육기간은 1년 6개월이었으며, 영어·중국어·지리·역사·수학 등을 가르쳤다. 세 차례에 걸쳐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을 배출하였다.<sup>31)</sup>

한편 한인사회가 안정되고 가족을 동반한 이주민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 자체의 교육문제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언어장애로 중국인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고, 더더욱 일본인 학교에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한인 자력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 노력은 1916년 가을 인성학교의 개교로 실현되었다. 여운형·선우혁·한진교·김철 등은 교민교육기관의 설립을 결의하고, 1916년 가을 上海韓人基督教小學校를 개교하였다. 4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이 학교는 이듬해 가을 2월 공공조계 昆明路 載福里 75호로 이전하여 인성학교로 개명하였다.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컸으며, 1918년 10월에는 공공조계 소재 미국인 운영의 明強中學내로 이전하였다.<sup>32)</sup>

각국의 문화와 풍습이 혼재되어 있는 국제도시 상해에서, 반일독립의 민족주체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은 당연한 일이었다. “교

30)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1976), 17쪽.

31) 민필호, <예관신규식선생전기>(김준엽 편, 앞의 책), 71쪽.

정원택, <지산의유일지>(앞의 책), 37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9, 24쪽.

32) 유준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교육·문화·홍보활동>(《한민족독립운동사》 7, 1990), 103~104쪽.



육은 우리민족의 생명이다. 교육이 있어야 살고 교육이 없으면 죽을 것이다”, “장래 우리민족 흥왕의 길은 오직 교육에 있다”<sup>33)</sup>는 신념은 인성학교 설립의 밑받침이 되었다. 교육내용은 국어·국사·지리에 역점을 두었고, 일본어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와 함께 영어·한문·산술·이과·手工 등이 교육되었다. 상해고려교민친목회 설립 후에는 이 친목회 교육부 소관이 되었고, 임정수립 후에는 상해한인교민단에 의해 운영되었다. 1920년 가을학기에는 입학희망 학생이 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 다. 신한혁명당과 입헌군주론의 제기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한인독립운동의 국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1월 일본은 독일에 선전을 포고하고, 독일의 조차지인靑島를 점령하였다. 북경 袁世凱政權의 친일정책과 일본의 21개 조 요구는 중국민들의 반일운동을 자극하였다. 한인세력은 이러한 국제관계를 독립운동의 호기로 파악하였다. 일부 한인은 독일의 승리를 확신하고, 중국과 독일의 연합으로 일본이 패배하리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하였다. 新韓革命黨의 결성과 독립운동의 최고기관 수립 시도는 이같은 정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신한혁명당은 成樂馨 등에 의해 1914년 말 상해에서 결성되어, 러시아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동해 온 이상설을 중심으로 이듬해 3월 경 조직의 정비를 마쳤다. 이들은 대열강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노선, 국내외 독립운동세력과의 연계, 무장투쟁노선 등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 본부장(李相高)·재무(李春日)·교통(柳東說)·외교(성낙형)·감독(박은식) 등의 부서를 갖추고, 상해(지역책임자; 신규식)·漢口·심양·장춘(李東輝)·안동·延吉(李同春) 및 서울·원산·평양·회령(朴定來)·나남(姜載厚)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신한혁명당의 활동은 대한제국의 망명정부 수립이었다. 이들은 광무황제를 당수로 추대하였고, 성낙형이 국내에 파견되었다. 그의 임무는 황제를 뵈고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中韓宜防條約〉체결의 위임장을 받아오는 일이었다. 신한혁명당은 광무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에서, 독립쟁취를 위해서는 국내외세력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의 실력은 동지의 단체로 하

33)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1976), 274쪽.

되, 단체란 비밀무형 중에 공고한 정부이며, 정부의 조직 방법은 해외운동자의 책임이고, 이는 곧 대세를 관찰하는 인망을 규합할 조직의 요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망명정부의 조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상설 등은 북경으로 활동무대를 옮겼고, 조성환은 서간도로 출발하였다. 이들의 구상은 독일정부의 보증하에 북경정부와 한국망명정부 간의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장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혁명 발발 시 중국과 독일이 이를 지원하며, 혁명성공 후 중국 및 독일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독일의 지원은 국채로 30년에 걸쳐 상환하며, 중국에게는 세관·철도사업상의 이권을 부여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국제정세 분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즉 독일은 유럽전에서 승리한 다음, 일본에 빼앗긴 청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진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고립화가 초래될 것이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패배 이후 시베리아 철도를 완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몽고를 점령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과 동맹하고 독일과는 간접동맹체제를 갖추고 미국과 독일은 연합군을 편성하여 동해를 봉쇄한 후, 러시아로 하여금 극동의 주인으로서 역할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와 연방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연대 위에서 러시아는 연길지역으로부터 회령으로 침입하고, 중국은 營口를 방어하고 山海關支線 및 奉天支線 철도를 단절한다. 미국과 독일은 해양으로 진입하며, 영국은 비록 일본의 동맹국일지라도 중립을 지킬 것이다. 결국 각국의 연합체제가 구축되고, 일본은 고립화되어 일본의 패배가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각국과 연합하여 독립쟁취의 길을 모색코자 한 것이 신한혁명당의 국제정세 판단에 근거한 독립운동 계획이었다. 이같은 판단 위에서 “자유국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外援內應의 힘이 필요하며”, 이는 “在外者와 在內者가 함께 기회를 포착하여 협조체제를 이룸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고,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의 연계 추진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만주·시베리아·미주지방을 통할하여 단일부대를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진공을 계획하였다. 즉 중국과 독일이 연합하여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영국·러시아도 이를 원조할 것이다. 이때 독립군부대가 일본군의 운송로를 차단함으로써, 일본군을 패배시키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 5월 중국이 21개 조를 수락함에 따라, 중일개전의 기대감은 무산되었고, 전황도 독일의 패전과 일본의 연합국 합류 국면으로 진전되었다. 설상가상으로 7월이래 성낙형이 체포되고 국내조직이 붕괴됨에 따라 이들의 제1차 세계대전의 국제정세를 이용한 외교활동 노력은 좌절되었다. 이처럼 이들은 중국·독일 등의 지원을 통해 독립전쟁의 기반을 마련한 토대 위에, 만주와 노령의 독립전쟁 역량을 결합시키려 하였다. 광무황제를 최고 지도자로 하는 망명정부의 수립 구상은 독립운동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와 함께, 연대 상대인 중국·독일의 帝政體制가 고려된 결과로 이해된다.<sup>34)</sup>

신규식 중심의 상해지역 공화주의세력과 이상설 등 만주·노령지역 입헌군주제를 선호하는 인물의 연합을 의미하는 신한혁명당의 활동은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먼저 노령·북간도·미주지역과 상해·북경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던 해외독립운동세력이 연계하는 한편, 국내조직과의 연결을 시도한 사실은 독립운동진영의 통일과 단결에 대한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는 1917년의 〈大同團結宣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시도는 1910년대 국제정세 및 중국정세에 대한 판단의 미숙성을 드러낸 것이었지만, 일면 국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독립지상의 기회 포착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1913년 3월 원세개정부에 의한 송교인암살 및 혁명과 탄압은 중국혁명파에 의한 공화주의정부 수립 가능성을 반감시킨 반면에, 원세개에 의한 제정의 수립 가능성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신한혁명당의 활동에는 이러한 중국혁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상해 한인사회의 경우, 중국혁명세력의 원세개 토벌운동에 대한 반응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으며, 상당수의 한인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

34) 신한혁명당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강영심,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윤병석, 〈대한광복군정부의 건립〉(《증보 이상설전》, 일조각, 1998).

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sup>35)</sup>

신한혁명당의 존재는 중국혁명세력과의 한·중연대 형성이 한인독립운동의 국제적 기반 조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혁명과 이외 여타 중국정치세력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이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었다. 즉 한국독립운동을 중심가치로 설정한 관점에서 비롯된 주체적인 국제연대의 한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대동단결선언과 임시정부수립 지향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7월에 발표되었다. 발기인 14명은 신규식(申攄)·조소앙(趙鏞殷)·신석우(申獻民)·박용만·한진교(韓震)·홍명희(洪煒)·박은식·신채호·윤세복·조성환(曹煜)·朴基駿·申斌·김규식(金成)·李逸(李龍憐)로 밝혀졌다. 발기인은 대체로 대중교·동제사·신한혁명당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이었다. 선언의 요지는 민족통일기구 결성과 임시정부 수립이었다. 작성자는 조소앙으로 알려지며, 선언의 중요성과 제안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규식·박은식·신채호·박용만 등의 비중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언의 배경으로는 당시 국제환경에 대한 평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1916년 북경정부의 붕괴와 호법정부의 득세, 1917년 2월의 러시아혁명 발발과 핀란드·폴란드 등 피식민지국가의 해방, 미국의 대독 선전포고와 독일의 패전 전망 등은 한인독립운동세력으로 하여금 ‘신한혁명당식’ 국제외교 방안에서 일전하여,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케 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독립운동진영의 상황도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었다. 권업회·대한광복군정부·간민회·부민단 등 국외독립운동단체들이 해산되었으며, 신한혁명당에 의한 망명정부 수립 시도가 무산되는 등의 상황은 독립운동계의 분발과 재편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외의 요구에 호응한 독립운동세력의 임시정부 수립 노력이 〈대동단결선언〉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합하면 설 수 있고, 나뉘면 넘어지는 것은 天道의 원리이며, 나누어짐이 오래되면 합하고자 하는 것이 인정의 律

35) 배경한, 앞의 글, 50~51쪽.

몀이다”, “대합동을 요구함이 자연의 의무요, 총단결을 주장함이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대동단결의 필연성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융희황제가 三寶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로서, 皇帝權이 소멸한 때가 곧 民權이 발생한 날이며, 대한제국 최후의 날이 신한국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민권의 대동단결체로서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전선 결성을 제안하였다. “국가 상속의 대의를 선포하여, 해외동지의 총단결을 주장하며, 국가적 행동의 進級的 활동을 표방하며”, “첫 번째의 통일기관은 두 번째 통일국가의 연원이 되고, 두 번째 국가적 과제는 결국 원만한 국가의 전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통일기관의 건설이 민족통일국가 수립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선언의 요지를 살펴보면,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를 단정함으로써 조선왕실의 존재를 신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신한혁명당 등에 의해 견지되었던 입헌군주제 노선을 종결시키고 국민주권 노선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독립을 위한 전단계로 임시정부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통일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선언에서 표방된 국민주권론은 구한말 전래된 이래 공화주의 이념의 전거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서양의 천부인권설이나 사회계약설에 입각하였던 데 반해, 대동단결선언에서의 국민주권론은 “민족사적 정통을 의식한 논리”로 전개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강령은 해외 각 지역의 단체를 하나로 통일하여, 유일무이한 최고기관을 조직한다. 중앙 총본부를 설치하여 한민족 전체를 통치하며, 각지 지부로 관할구역을 정한다. 헌법을 제정하여 민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실행한다. 독립·평등의 신성한 통치권을 주장함으로써, 일제의 민족동화와 자치 유혹을 방지·제거한다. 국민외교를 전개한다. 민족통일기구의 존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지들 간의 애정을 수양한다. 각 단체대표 및 지도적 인물의 회의에서 실천방법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민족대회의 혹은 임시의정원의 조직, 거류민단 혹은 연통제의 조직을 통한 통치체제 구축, 공화제 헌법의 제정과 법치주의 시행, 국내의 친일경향 대두와 독립의지 퇴조에 대한 대책 등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들은 국권피탈

이후 국내정황을 지적하여 “반일반한의 괴물이 날로 증가하여” 동화와 자치의 논리를 내세우며 그 선봉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임시정부 수립론은 독립운동의 이론적 결집과 계몽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선언서는 블라디보스톡·니콜리스크·하와이·샌프란시스코와 만주·북경·상해 등지 독립운동세력에게 송달되었으며, 발송지는 상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선언서의 수령자로는 미주의 안창호와 블라디보스톡 《한인신보》 총무였던 金秉洽만이 확인된다.

이 선언에서 강조되는 ‘大同’이라 함은 동양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사유재산제·남녀차별·직업상의 귀천·계급제도와 인종차별·국가간의 불평등 등을 배격하고, 완전 평등의 이상세계를 이룩하자는 의미로 이해된다. 1909년 박은식이 康有爲와 梁啓超의 영향하에 大同敎를 창건한 바 있었고, 1913년 조소앙의 주도하에 결성된 한·중 연대단체인 아시아民族反日大同黨의 존재나 1915년의 大同輔國團 등은 대동사상이 이 시기 한인독립운동의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려준다. 즉 1910년대 대동적 평등사상이 조소앙 등에 의해 집약 논리화된 것이 이 선언이며, 이후 조소앙의 三均主義 이념이나 민족사회주의 사상의 모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선언에서 역설한 임시정부 수립론은 1910년대 초반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無形國家論’을 비롯한 임시정부 수립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도 이해되며, 제1차 세계대전의 국제정세 변화를 주시하며 공화정체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선행단계로 제안한 민족대회의 소집 제안 또한 1919년 3·1운동 시 국내외에서 시도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겠다.<sup>36)</sup>

#### 마. 신한청년당과 공화주의 노선의 정립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인세력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36) 대동단결선언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이 대표적이다.

을 적극화하고, 독립운동진영의 정비를 꾀하였다. 1917년 8월 萬國社會黨大會 개최시, 신규식·조소앙 등은 ‘朝鮮社會黨’ 명의로 전문을 발송하여, 모든 민족의 정치적 균등, 국제정의의 실현, 피압박민족의 원상복귀, 국제적인 한국독립의 실현 등을 의제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었다. 동계사 회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지사들은 1918년 여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진로 설정에 몰두하였다. 이들은 세계대전의 종결을 새로운 기회의 도래로 파악하고,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운동노선을 채택하였다. 일본이 전승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된 사실은 한인들로 하여금 외교활동 중심의 독립운동노선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특히 “민족자결주의가 이제는 세계적 풍조이므로, 이 기회에 독립운동을 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 소리를 크게 하여 한국인이 독립을 욕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7)</sup>는 기대감을 확산시켰다. “민족자결주의가 피압박 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sup>38)</sup>라는 윌슨의 특사 크레인(Charles R. Crane)의 공언은 열강외교를 통한 가능성에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여운형 등은 파리강화회의를 기회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승전국의 식민지에도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를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같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국제정세 인식이 신한청년당 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한청년당은 1918년 8월 무렵에 결성되었다.<sup>39)</sup> 여운형이 대표 겸 총무로 초기 활동을 관장하였고, 김규식·김철·서병호·선우혁·조동호·장덕수·한진교 등이 주요 참여인물이었다. 대다수의 당원이 동계사 회원이었고, 같은 시기에 출범한 상해고려교민친목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조직으로는 서무부·교제부·재무부가 있었고, 나중에 토론부·체육부·출판부 등이 증설된 것 같다. 당원들은 신민회계열의 공화주의 및 기독교도가 주류를 이

3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중국편》(1976), 21쪽.

38) 이만규, 《여운형투쟁사》(총문각, 1946), 21쪽.

39) 대체로 8월에 조직되어, 11월 하순에 이르러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루었고, 3·1운동 이후 회원수가 50여 명을 상회하였다. “조국독립을 위하여 죽음을 맹세하는” 단원으로 구성된 소수정예주의를 표방하였다.

결성 취지문에서는 “우리 사업의 시초는 독립을 완성함에 있도다. … 그러나 독립의 완성이 우리 목적의 전체라 말하지 말지어다. 이는 오직 우리 사업의 시작이니, 우리에게는 독립 이상의 중요한 사업이 있도다. … 우리민족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선하고 정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고 애국심 있고 박애심 있고 고달한 이상을 포부하는 신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하나니라. … 마침내 단군의 피에서 나온 신문화가 전인류에게 위대한 행복을 주기에 이르기를 기할지니라”라고 선언하였다.

당헌에서는 인류문화의 증진과 평등·자유·순결·박애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당강에서는 “대한국 독립의 완성을 기도함. 내외 신구사상을 취사용함하여 건전한 국민사상의 기초를 확정하며 학술과 기예를 장려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하며 아울러 사회 각항 제도를 개량하여 대세에 순응케 함. 세계대동주의의 실현에 노력함”을 표방하였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 사회제도의 개혁, 국제강권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평등과 평화에 입각한 인류사회 건설을 표방함으로써, 이념적 기반이 민족주의·민주주의·공화주의·사회개혁주의·국제평화주의 등에 토대함을 알려준다.

주요 활동은 파리강화회의와 윌슨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한 독립청원이었다.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 명의로 1918년 11월 28일 작성된 <독립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크레인을 통해 윌슨에게 보낸 문서는, 한국이 고대로부터 일본에 선진문명을 전해준 문명국이었으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정신적·정치적·경제적 방면에서 억압받고 있음을 폭로하며,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강화회의 제출 문서에서는, 일본의 한국침략 과정과 한국민의 저항, 일제 식민지배하 한국민의 참상 등을 밝힌 다음, 합병조약의 무효 선언과 한국문제 토의를 요구하였다.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 1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렸다. 김규식은 1919년 2월 1일 상해를 출발,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하였다. 샤토마당 38번지에 ‘평화회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였고, 이어서 헐버트(Homer B. Hulbert)·李灌鎔·金復·黃玼煥·조소앙·여운홍 등이 합류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각



국 대표로부터 한국에 대한 동정과 지지 확보, 일제 무단통치하 한국사정 폭로, 일본의 중국·몽고·필리핀·인도 등에 대한 침략야욕 폭로, 국등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리적·전략적 중요성 홍보, 유력한 언론기관의 협조를 통한 한국에 대한 동정적 여론 조성, 파리·런던·샌프란시스코 등지의 홍보관 설치, 한국해방에 대한 정식 청원서 제출 등이었다.

대표단은 5월 10일 평화회의측에 한국민의 주장을 알리는 성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본을 각국 원수와 국회·정부 및 주요 정치가·언론기관 등에 발송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김규식과 이관용은 ‘평화회의의 대한민국위원 겸 파리위원’의 자격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의 각지에도 대표를 파견하여 파리강화회의 대표의 활동자금 모금과 독립운동의 적극화를 도모하였다. 선우혁·김철·서병호·김순애·장덕수·백남규·여운형 등은 국내와 동경·만주·노령 등지에서 당지 독립운동세력을 상대로 반일운동의 실행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신한청년당 대표의 파리강화회의 파견사실을 통보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거족적 반일운동의 전개를 독려하였다. 이같은 신한청년당의 밀사파견은 2·8독립운동과 3·1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이후 신한청년당원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임시의정원과 내각에 실무요원으로 참여하여, 수립 직후 임정의 중심세력으로 역할하였다.<sup>40)</sup>

지금까지 살핀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은 1910년대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의 질적 변화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동제사와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 과정을 거치며, 한인세력은 복벽주의 및 입헌군주론적 인식을 극복해 갔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과 열강의 중국침략 추이를 주시하는 동시에, 중국 신해혁명의 참여를 통해 근대 민족운동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자각에 이르렀다. 그것은 시민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주의 정치체제의 수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중국지역 독립운동의 환경조건을 반영하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인들은 중국혁명의 성공을 한국의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40) 신한청년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신용하,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김희곤,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앞의 책).

으로 평가하고, 기꺼이 중국혁명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신한혁명당의 창당과 활동 사실은 일면 국제정세 인식에 대한 미흡한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립을 도모하였던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독립운동세력이 특정한 국제노선이나 이념에 기울지 않고, 한국독립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성과 현실적 판단에 충실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신한청년당의 단계에 이르면, 한인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을 한국독립의 호기로 판단하고, 파리강화회의와 대미외교 등을 통한 외교활동의 강화 쪽으로 독립운동의 진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기활동이 외교활동 노선에 비중을 둔 사실도 이같은 1910년대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요컨대 1910년대 중국 관내지역에서 전개된 한인독립운동은 신해혁명으로 대표되는 중국근대사의 역동성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천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인민족운동이 세계사적 흐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임정수립 직후 독립운동세력의 활동이 중국 군벌정권과 민국 혁명세력을 상대로 한 국제연대 활동의 강화와 워싱턴회의 등 국제질서의 재편성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 등으로 구체화된 사실은 1910년대 독립운동의 교훈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韓相禱〉

#### 4) 미주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단체의 결성과정

미주 한인사회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약 7,200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Hawaii)로 ‘勞動移民’한 것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하와이 이민층은 농민·부두노동자·일용근로자·광부·머슴·하급관리·하급군졸 등 민중층이

대부분이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평안·경상 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계층구성 및 지역분포는 1901~1902년 당시 국내상황과 하와이 이민의 성격이 노동이민이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1901~1902년 당시 국내는 전국적으로 가뭄과 대홍수·콜레라 등으로 인해 민중들의 기근과 사망이 속출하였다. 따라서 생존을 위협받던 민중들은 인천·원산·부산 등지에서 모집하던 이민대열에 응하였던 것이다.<sup>1)</sup>

### 가. 하와이지역

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은 하와이 호놀룰루(Honolulu) 와일루아(Waialua) 사탕농장에 배속된 것을 시작으로 개간·김매기·관개사업·사탕수수베기 등 하루 12시간씩 가혹한 중노동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하와이 사탕농장의 과다한 노동력 착취와 반노예적인 노동조건으로 말미암아 1910년까지 45명의 한인이 사망하였으며, 504명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갔다.<sup>2)</sup> 그러나 하와이에 재류할 수밖에 없던 한인들은 가혹한 사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농장 단위별로 자치회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洪承夏·尹炳求·李交倓·林蚩正·安定洙·林炯住·朴允燮·文鴻錫 등이 ‘同族團結·民智啓發·國政刷新’을 목적으로 최초의 정치단체인 新民會를 창립하자, 이후 한인들은 각 지방별로 洞會를 조직하여 친목 유지와 同族相愛에 주력하였다.<sup>3)</sup>

1904년 2월 일제는 러일전쟁 도발 직후 〈韓日議定書〉 체결을 강제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이어 일제는 4월 8일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통해

1) 한인의 미주이민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金度勳, 〈韓末 韓人の 美洲移民과 民族運動〉(《國史館論叢》 83, 국사편찬위원회, 1999), 79~87쪽.

2)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캘리포니아 리들리, 1959), 8쪽에는 1910년 大韓人國民會에서 조사한 인구통계를 근거로 하와이 총이민자 7,226명 중 귀국자는 983명, 미 본토 이주자는 2,011명, 사망자는 45명으로 하와이에 재류한 한인은 4,187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盧載淵, 《在美韓人史略》(로스앤젤레스, 1963: 국가보훈처, 《獨立運動史資料集》 8집에 수록), 458쪽에 보면 이 중 479인은 하와이 도착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다시 한국으로 환송되었다 한다. 따라서 하와이 이주 후 거주자는 총 6,747명이며, 귀국한 사람은 504명이 된다.

3) 金度勳, 〈大韓帝國期 韓人の 渡美經緯와 在美韓人團體의 形成過程〉(《北岳論叢》 12, 국민대, 1994), 14~16쪽.

한국의 외교를 직접 담당하여 한국이 외국과 조약 체결을 못하도록 하고, 해외 한인을 일본의 감독·통제하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일제가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승인·보장받음과 동시에 해외 한인들마저 일제 臣民으로 편입시켜 사전에 항일운동을 봉쇄하려는 정책이었다.<sup>4)</sup> 이러한 일제의 해외 한인 통치의도를 간파한 하와이 한인들은 한인사회 보호를 위해 1905년 1월 대한제국정부에 영사관 설치를 요구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호놀룰루 주재 일본총영사를 대한제국 명예총영사로 위임하는 등 하와이 한인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의도를 표출시켰다. 이에 분노한 한인들은 일본 영사의 감독을 거부하면서 5월 3일 하와이 오하우(Ohau)지방 에와(Ewa)농장에서 尹炳求·鄭元命·金聲權·姜永韶·金圭燮·이만춘 등이 에와친목회를 조직하고 日貨排斥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8월에는 하와이 한인들이 總代 李東鎬를 국내로 파견하여 外部에 영사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을사조약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갔다.<sup>5)</sup>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일제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주재한 주미 한국공사관을 철폐하고 1906년 2월 주미 대리공사 金潤晶을 소환하였다.<sup>6)</sup> 또한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해외 한인은 어느 곳에 있던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명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한인에 대한 일제의 통치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에와친목회는 미 본토의 共立協會와 더불어 ‘在美韓人共同大會’를 개최하고 한국정부에 〈排日決議文〉을 발송하는 등 항일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때부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국권회복운동을 표방한 단체가 연이어 조직되었다. 1906년 3월 10일 하와이 오하우지방 와이파후(Waipahu)농장에서 安元奎·전도원·정상교 등이 患難相救·일화배척을 목적으로 와이파후공동회를 조직하였으며, 5월 10일에는 하와이 올라(Olaa) 3마일(mile) 농장에서 申判錫·공덕화 등이 배일운동과 동족

4) 金度勳, <러일전쟁전후 일제의 조선침략과정>(《殉國》, 1993년 1월호), 110~112쪽.

5) 김도훈, 앞의 글(1999), 92~93쪽.

6) 盧載淵, 앞의 책, 476쪽.

《共立新報》, 1906년 2월 13일, <公使微歸>.

상애를 목적으로 血成團을 조직하였고, 한달 뒤인 6월 4일에는 카와이(Kawaii) 막가윌리농장에서 송건·洪宗杓(후일 洪焉으로 개명)·高錫柱·李觀默·이형기 등이 실력양성과 교육장려를 표방하며 自強會를 결성하였다. 또한 12월 2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閔燦鎬·李來洙·林正洙·任準鎬 등이 共進會를 조직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단체 조직은 1907년에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1907년 2월 3일 하와이 하비농장에서 정병섭·편성원 등이 동족상애와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老少同盟會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뒤인 5일에는 마우이(Maui) 카일루아(Kailua)농장에서 김재규 등이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義成會를 결성하였다.<sup>7)</sup>

1907년 7월 일제가 光武皇帝(高宗)를 강제 퇴위시키고 丁未條約을 강제 체결한 뒤 〈신문지법〉·〈보안법〉·〈軍隊解散令〉등을 포고하자, 국내에서는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내소식은 하와이 한인사회를 다시 격동시켰다. 1907년 7월 17일 마우이 가히기아농장에서 김건호 등이 대동단결·일화배척을 표방하며 國民團合會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8일에는 하와이 파하일로농장에서 金成玉 등이 무예장려·항일운동을 주창하면서 新幹會를 조직하였다. 또한 7월 20일 하와이 힐로(Hilo) 지방에서 朴勝烈 등이 무예장려·실업장려·일화배척을 목적으로 實志會를 조직하였고, 22일에는 채극여·김봉기 등이 國民同盟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8월 5일 마우이 하마구아 복구농장에서는 전백선·서성년 등이 인재양성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復興會를 조직하였고, 9월 3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金翊成·朴相夏·趙炳堯·최병현 등 성공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한제국 부흥운동과 교육장려를 목적으로 전흥협회를 조직하였다. 이외에도 하와이의 코나(Kona)·가파아(Kapaa)·하갈라우·호노카·파야·나와이·와일루아 등 7개 지방 동회에서도 항일운동·일화배척을 결의하면서 연이어 항일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sup>8)</sup>

7) 金元容, 앞의 책, 91~92·262·310쪽.

《共立新報》, 1906년 12월 7일, 〈布哇共進會〉·1907년 7월 12일, 雜報〈共進會報 新刊〉.

8) 《共立新報》, 1907년 8월 9일, 雜報〈국민동맹회〉·9월 20일, 잡보〈전흥협회 취지서〉.

이처럼 하와이에서는 1907년 9월까지 항일운동과 동족상애를 목적으로 14개의 정치운동단체와 12개의 동회가 조직되어 한인사회 민족운동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인구 4,000여 명 중 활동회원이 약 800여 명인데 비해 20여 개 이상의 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국권회복운동 수행에 많은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공진회·예와친목회 등 한인단체들은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고, 재류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분립된 단체를 통합하여 통일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sup>9)</sup>

1907년 9월 2일 각 지방 24개 단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서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5일간의 회의 끝에 4개조의 합동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하와이 한인의 통일적 정치운동기관인 韓人合成協會를 창립하였다. 한인합성협회는 10월 22일부터 기관지 《韓人合成新報》를 발행하고, 47개 지방에 지회를 설립하여 1,051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하와이 한인사회의 구심체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sup>10)</sup>

#### 나. 미 본토 지역

1903년 당시 미국 본토 한인들은 소수의 蔘商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지역에서 농장·철도역장·광산·어장에 종사하거나 음식점 助役·가정집 고용살이·세탁소·노동·행상 등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한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친목 도모와 경제적 도움을 줄 단체 결성이었다. 그리하여 1903년 9월 23일 샌프란시스코[桑港]에서 安昌浩를 비롯한 李大爲·朴永淳·金成武·張景 등 9인이 미주한인단체의 호시인 親睦會를 조직하였다. 친목회는 1904년경부터 하와이에서 미 본토로 건너온 한인에게 취업알선을 통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노동주선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때 국내에서는 일제 침략이 노골화되자, 미주 한인들은 한인의 보호와 일제에 대항할 강력한 정치단체 출현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친목회

金元容, 위의 책, 54·92~94·261~262쪽.

9) 《공립신보》, 1908년 2월 12일, 잡보 〈하와이발달〉.

10) 《공립신보》, 1907년 9월 6일, 잡보 〈하와이소문〉·20일, 잡보 〈깃분소식〉.

는 1905년 4월 5일 항일운동과 동족상애를 목적으로 미주 최초의 정치운동 기관인 共立協會로 전환·창립되었으며, 12월 9일에는 캘리포니아주 파사디나(Pasadena)에서 張景·金美理士·金愚濟·李秉瑚·方四兼 등이 大同教育會를 창립하였다. 그후 1905년 11월 13일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된 험버트(Homer B. Hulbert)가 공립협회를 방문하여 ‘을사조약’ 체결을 서두르는 일체의 동태를 전달하였다. 이에 공립협회는 국권회복을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共立館’과 지회설립에 착수하여 1907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해안 일대에 5개 지회를 조직하는 등 정치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였다.

그러던 중, 1906년 2월 대한제국정부가 ‘해외 한인의 일본 영사 보호’를 선언하자, 공립협회에서는 하와이 예와친목회와 더불어 ‘재미한인공동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정부에 <배일결의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미주 한인에 대한 지배의도는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 大震災 당시, 공립관이 全燒한 일을 계기로 다시 표출되었다. 즉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에서 공립협회로 보내는 의연금을 주미 일본영사로 하여금 分給하도록 함으로써 미주 한인의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립협회는 5월 11일 총회 평의회를 개최하여 <通告文>을 발표하고 일본영사의 간섭행위를 통박하는 한편, 일본영사를 방문·항의하여 한인사회에 대한 간섭행위 중지를 확약받는 패거를 이룩하였다. 이 사건 직후 공립협회는 미국내 한인의 대표기관이자 자치기관으로서 자리를 굳혔다.<sup>11)</sup>

한편 1907년 1월 시대적 조류에 따라 대동교육회도 국권회복을 표방하며 정치운동기관인 大同保國會로 전환하였다. 대동보국회는 1907년 10월 3일부터 《大同公報》를 발행하고 5개 지회를 설립하는 등 공립협회와 더불어 미주 한인사회의 구심체로 활동하였다.<sup>12)</sup>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구한국군 해산을 계기로 한국에서 의병전쟁이 일어나자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는 ‘독립전쟁’ 수행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해

11) 金度勳, <共立協會(1905~1909)의 民族運動 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1989), 10~17쪽.

12) 崔起榮, <舊韓末 美洲의 大同保國會에 관한 一考察> (《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 1992).

외 한인들의 쫓겨난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1907년 7월 25일 뉴욕(New York)에서 安定洙·申聲求·徐弼淳·李源益·車斗煥·安圭善 등 관비유학생과 구 한국 관리출신들이 항일운동·동족상애를 목적으로 共濟會를 조직하였다. 그러던 중 9월, 일본영사가 뉴욕시내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인의 인명을 조사해 간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제회는 9월 13일 일본영사의 해외 한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 거부를 결의하였다.<sup>13)</sup> 또한 11월 24일 시애틀(Seattle)에서 이정실·김익제·박용하·장한조·김경식·오창덕·강봉희 등이 항일운동·동족상애를 표방하면서 同盟新興會를 결성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미 본토에서는 1907년 당시 4개 단체가 있었으나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그후 1909년 2월 미주 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가 통합하여 國民會를 창립한 데 이어 1910년 2월 10일 대동보국회마저 국민회로 통합되자, 미주 한인사회는 통일적 정치운동기관인 大韓人國民會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sup>15)</sup>

## (2)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하와이와 미 본토의 항일운동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共立協會였다. 그러나 미주라는 지역의 원거리성은 국권회복의 수행거점으로는 걸림돌이었다. 이에 공립협회는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독립전쟁을 구현할 독립군기지 개척에 주력하였다. 그것이 統一聯合論에 입각한 ‘통일연합기관’의 설치였다. 1907년 공립협회 지도부는 독립전쟁 수행거점 확보를 위해 먼저 한국에 통일연합기관 국내지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1월 초순, 安昌浩·李剛·林俊基 등은 미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Riverside, 河邊)에서 ‘大韓新民會’를 발기하였다. 이들은 대한신민회 발기문에서 “우리 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으로써 그 진로로 정하고 독립자유로써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는 신민회의 發願하는 바며 신민회의 懷抱하

13) 《공립신보》, 1907년 9월 27일, 각국전보 〈공제회창립〉·10월 4일, 잡보 〈공제회내함〉.

14) 《공립신보》, 1907년 12월 13일, 〈寄函〉.

15) 《新韓民報》, 1909년 2월 9일, 논설 〈賀兩會之合同〉·8월 4일, 잡보 〈양회합동〉.



는 所以이니 略言하면 오직 新正新을 喚醒하여 新단체를 조직한 후 新國을 건설할 뿐”이라고 통일연합론을 선포하였다. 공립협회의 통일연합론은 당시 해외 한인단체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만주 등지로 산재된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각 지역에 공립협회 지회를 설치한 후 이를 연합·통일하여 국권 회복과 共和政에 바탕한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sup>16)</sup>

1907년 1월 대한신민회 창건을 위해 안창호를 파견한 공립협회 지도부는 이강·林崑正·鄭在寬·崔正益 등을 중심으로 통일연합론에 근거해 미주지역 한인단체의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1907년 7월 창립된 하와이의 國民同盟會와 전흥협회, 시애틀의 同盟新興會 등은 공립협회와 연합상응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공함을 보냈으며, 1907년 9월에는 하와이의 24개 단체가 통합하여 韓人合成協會를 창립하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통일기관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통합분위기와 맞물려 1907년 11월 하순 공립협회 회원 安定洙와 姜永大가 한인단체의 통합을 주장하는 등 한인사회의 통합논의는 지상과제로 떠올랐다.<sup>17)</sup>

이처럼 1907년 말부터 미주 한인사회의 통합인식이 고조되자, 공립협회에서는 통일연합기관의 설치를 본격화하였다. 1908년 1월 경 통일연합기관 국내지부인 신민회 조직을 일단락한 공립협회는 2월 20일 총회에서 하와이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海參威)에 통일연합기관 설치를 의결하는 등 해외지부 설치에 주력하였다. 공립협회가 국내와 인접한 해삼위지역을 주목한 것은 이 지역이 독립전쟁시 국내진공작전 수행에 지리적 이점을 갖추었기 때문에 독립군기지로 개척하려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공립협회는 이강·金成武 등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해삼위에 파견하는 등 통일연합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립협회의 통일연합기관 해외지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목적으로 파견된 이강은 신민회 창건 후 해삼위로 건너가 공립협회 遠東支會 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08년 9월 29일 해삼위 水淸(Partisansk)地方에서 金基玉 등 30여 인을 규합하여 공립협회 수청지방회를

16) 金度勳, 앞의 글(1989), 17~26쪽.

17) 김도훈,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249~251쪽.

조직하였다. 수청지방회 조직 후 이강은 海參威港 新韓村 지역의 한인인사들을 규합하고, 1908년 11월 15일에는 鄭淳萬을, 17일에는 蔡成河·尹能孝 등을, 28일에는 吳周赫·韓馨權 등을 공립협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에 공립협회는 12월 13일 지회 설립을 후원하고자 신민회 관계로 국내에 머물던 김성무를 해삼위로 급파하여 1909년 1월 7일 海參威港地方會를 설립하였다.

해삼위 수청지방회 설립을 계기로 공립협회는 10월 21일 亞細亞實業株式會社를 발기하였다. 아세아실업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 2만 달러를 총 800주로 나누어 매주 당 25달러로 정하고 자본금 총액의 1/10이 되면 개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회사의 본사를 미국이 아닌 해삼위에 설립하고 미주·하와이·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공립협회의 아세아실업회사 설립은 해삼위를 독립군기지 건설의 최적지로 파악하고 해삼위를 중심으로 한국·미국 등지에서 殖産興業으로 독립전쟁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아세아실업주식회사는 1909년 2월 국민회 창립 후, 泰東實業株式會社로 승계되었다.<sup>18)</sup>

이처럼 해삼위에 통일연합기관 원동지부가 조직되기 시작하자, 공립협회에서는 해외한인단체를 총괄할 통일연합기관 중앙본부 설립을 서둘렀다. 이에 공립협회는 1908년 3월경부터 추진해 오던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2월 1일 국내 유림들까지 축하하는 속에서 4,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國民會가 창립되면서 국민회는 사실상 미주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국민회는 공립협회 시절부터 추진하였던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승계하였다. 국민회는 1909년 4월 특파원 黃思溶과 邦化重을 멕시코(Mexico)로 파견하여 멕시코지방회를 설립하는 한편, 동년 5월에는 총회장 鄭在寬을 滿洲地域 특파원, 李相禹를 露領地域 특파원으로 임명·파견하여 공립협회 시절에 파견한 金成武·李剛 등과 함께 통일연합기관 설립을 매듭짓게 하였다. 그 결과, 국민회의 遠東支會 설립운동은 1909년 말

18) 자세한 것은 金度勳, 앞의 글(1989), 26~30쪽.

노령과 만주 일대에 10,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13개 지방회의 건설로 나타났다. 이 원동지회 설립으로 국민회는 사실상 공립협회 시절부터 추진하였던 통일연합기관의 설치를 매듭지었다.<sup>19)</sup>

한편 국민회는 1909년 4월 亞細亞實業株式會社를 泰東實業株式會社로 개칭하여 장정과 규칙을 정한 뒤, 5월부터 자본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해삼위에 본부를 둘 것을 명시한 태동실업주식회사는 자본금 5만 원을 확보한 뒤, 국민회에서 파견한 특파원 이강·정재관·김성무 등으로 하여금 1911년 북만주 密山府 峰密山지역에 2,430에이커의 땅을 구매하여 한인 200여 호를 이민시켜 개간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과 개척자금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sup>20)</sup>

### (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국민회는 1909년 2월 1일 창립 직후부터 국민국가 건설을 주창하는 한편, 독립전쟁론에 입각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09년 초부터 본국으로부터 연이어 ‘합병’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회는 대한제국정부가 “난신폐적의 도당봉배”이므로, “우리 인민이 불가불 공론을 제창하며 위엄을 가다듬어 저 난신폐적의 처치함을 실행하여 우리 국가와 민족을 보호”할 것과 “우리 인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의무를 진력하여 그 처리할 수단을 다할 날이 오늘”이라고 선언하였다.<sup>21)</sup> 즉, 국민회는 대한제국정부를 부인하며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해 근대 민족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09년 2월 19일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는 共同會를 개최하고 李完用과 宋秉畷

19) 김도훈,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앞의 책, 1999b), 252~253쪽.

20) 대한인국민회의 원동지회 설립과정과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박 환,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의 성립과 활동>(《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李明花, <1910년대 재러한인사회와 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1997).

21) 《新韓民報》, 1909년 2월 24일, 논설 <宋賊人人得而誅之>.

이처럼 대한제국정부를 전면 부인하는 《新韓民報》의 논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인다.

에게 전보를 보내 경고하는 한편, 24일에는 日皇에게 정의와 인도에 입각하여 동양평화를 위해 ‘합병’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sup>22)</sup>

이와 같이 조국의 국망이 목전에 다가오자, 미주한인사회는 국민회 창립 직후인 1909년 2월부터 독립전쟁론에 바탕한 군인양성운동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sup>23)</sup>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1909년 6월부터 독립군 사관학교가 설립되는 등 ‘崇武主義’가 급속히 확산되어 하나의 풍조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한 것이 朴容萬(1881~1928)이 네브라스카주(Nebraska)에 설립한 韓人少年兵學校였다.

#### 가. 한인소년병학교

박용만은 1905년 2월 도미 직후부터 독립군 양성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 1월, 콜로라도(Colorado)주 덴버(Denver)에서 愛國同志代表會를 소집할 목적으로 미주·하와이·러시아 등지의 해외한인단체에 〈소집취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동년 5월에는 朴處厚·林東植·鄭翰景 등과 더불어 韓人軍事學校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애국동지대표회에서 안건에 부치기로 하였다. 이는 박용만이 해외 한인단체의 통일기관을 조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한 후 독립전쟁을 전개, 국권을 회복하려는 구상이었다.

1908년 7월, 박용만은 露領 대표 李相高·이승만, 大同保國會의 金容德·李明燮, 하와이 대표 金聲權, 뉴욕 대표 尹炳求·金憲植 등이 참가한 애국동지대표회에서 ‘한인군사학교’ 설립안을 제출·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 박용만은 박처후·임동식 등과 더불어 생도들이 기숙·훈련할 수 있는 군사학교 설립부지를 네브라스카주 커니(Kearney)시 한 농장에 마련하는 한편, 曹鎭贊을 농장경영자로 초빙하였다. 또한 미국정부와 네브라스카주정부의 인가를 얻어 훈련시 사용할 軍器로 미국에서 사용하던 군용총을 구입하고, 구 한국군 출신 김장호를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22) 《新韓民報》, 1909년 3월 10일, 하와이특보 〈제1차 공동회 기사〉·〈제2차 공동회 의결〉.

23) 《新韓民報》, 1909년 3월 17일, 논설 〈우리 나라를 구할 방법은 鐵血에 있음〉.

결과 1909년 6월 초순, 미국내 최초의 한인군사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The Young Korean Military School)가 창립되었다.

그 후 1910년 박용만이 헤이스팅스대학측과 교섭하여 학교 건물 한 동과 田莊을 임대받음에 따라 1910년 4월 한인소년병학교는 헤이스팅스대학 구내로 이전하였다. 이처럼 한인소년병학교가 헤이스팅스(Hastings)로 이전해 오자, 링컨(Lincoln)·커니지방 등에서 거주하던 柳一韓·鄭良弼(鄭淳萬의 아들) 등 한인 유학생들이 속속 자원 입학하였다. 한편 박용만은 학교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전권을 김장호에게 맡기고 각지를 순회하였다. 그리하여 박용만은 캘리포니아에서 600달러를 모금하고 조진찬·鄭永基·김유성 등으로부터 특연금과 총 15정을 기부받는 한편, 네브라스카주에 韓人公會를 설립하고 지역내 모든 한인들을 가입시켜 1년에 3달러씩 人頭稅를 부과하여 한인소년병학교 재정에 충당하였다.

이 한인소년병학교는 학기 중에는 각자 학교에서 공부하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소년병학교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하계군사학교 체제로 운영되었다. 즉 한인소년병학교는 1년 중 하계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동안은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수학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3개월 동안 헤스팅스학교에 등록·수학하도록 하였으며, 수학과정은 3년이었다. 한인소년병학교는 3년 후인 1911년 8월 제1회 졸업식에서 13명의 사관생도를 배출하기 시작하여 1914년까지 약 1백여 명의 생도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1912년 11월 학장 박용만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地方總會의 초청으로 《新韓國》주필로 초빙되어 감에 따라 박처후가 교장이 되어 2년간 유지하였으나 인원모집 곤란 등으로 6년만에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는 국어(문법·작문·문학), 영어(문법·작문·문학), 한문(중국어 회화·한문 작문), 일어(문법·회화), 수학(산수·대수·기하), 역사(한국사·미국사), 지리(만국지리·한국지리·군사지리), 이과(식물학·동물학·물리학·화학·화학측량법), 성서, 병학(도수조련·집총조련·小中大편제·야외조련·사격연습·보병조련·군대내무서·육군예식·군인위생·군법통용·명장전법)으로 구성되었다. 교사진은 홍승국·김홍기·박처후·양궁묵·신형호·박장순·박원경·백일규·이종철·정희원·이용규·이명섭·이걸 등이었다. 또한 군사훈

련은 미국의 근대식 군사훈련을 모방하였고, 교과과정은 웨스트포인트를 본따 만들었다. 미국내 여러 군사학교를 수료한 군사교육 담당 이종철은 6년 동안 학생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미국인들조차 한국의 “웨스트포인트(West Point)”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한인소년병학교의 일과는 오전에는 노동과 학습, 오후에는 군사훈련, 밤에는 문학활동과 학습을 하였다. 따라서 생도들은 인문과목은 물론 사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사학과 야외실습 등 고된 군사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생도들은 사격연습은 물론 노래·스포츠·연극 등으로 군인정신을 고취하고 아울러 대외선전에도 활용하였다. 이 한인소년병학교는 자치기관을 만들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가하고 屯田兵式으로 군인을 훈련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박용만의 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해외 최초의 한인사관학교인 한인소년병학교는 이후 항일무장투쟁을 선도하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인소년병학교 출신들은 졸업 후 만주·노령 등지에서 직접 독립군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미국 군대에 자원·입대하여 유럽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하는 등 한·미 양국간에 공헌하였다. 특히 이 학교 출신인 鄭翰景·柳一韓·韓始浩·申衡浩·洪承國·金容成·金鉉九·白一圭 등은 이후 재미한인사회의 실질적인 중견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는 등 커다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한인소년병학교는 1910년대 미주 한인사회에 군인양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24)</sup>

#### 나. 멕시코의 승무학교

박용만의 한인소년병학교 설립 이후, 가장 먼저 군인양성운동에 동참한 것은 멕시코 한인사회였다. 멕시코에 한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1905년 3월

24) 한인소년병학교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할 것.

朴永錫, 〈韓人少年兵學校 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1987).

方善柱, 〈朴容萬評傳〉(《在美韓人の 獨立運動》, 한림대, 1989).

尹炳奭, 〈1910年代 美洲地域에서의 祖國獨立運動〉(《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一潮閣, 1990).

金度勳, 〈1910년대 박용만의 정치사상〉(《한국민족학연구》 4, 단국대, 1999).

안형주, 〈박용만의 소년병학교〉(《한국민족학연구》 4, 단국대, 1999).

1,000여 명의 한인이 영국인 메이어스(John G. Meyers)와 大陸殖産會社를 경영하던 일본인 大正貫一의 기만에 속아 멕시코로 노예이민을 오면서부터였다. 멕시코 유카탄(Yucatan)주 메리다(Merida)지방에 도착한 한인들은 어저귀 농장에 강제 배속되어 이후 4년간 가혹한 노예생활을 하였다. 그후 1909년 4월 15일, 계약기간 만기로 강제노동에서 해방된 멕시코 한인들 중 李根永·申光熙·趙秉夏 등은 미주의 國民會로 연락하여 멕시코 한인들의 구제와 생활지도를 요청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회는 邦化重과 黃思溶을 특파하여 멕시코 각 지방을 순회하며 동포들의 사정을 조사케 하였다. 황사용과 방화중은 멕시코 도착 후, 멕시코 메리다지방 한인들의 요청으로 5월 9일 국민회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고,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메리다지방회 설립 직후 회장으로 선임된 이근영은 1909년 8월부터 유카탄 반도의 띄치·작골·쏘실 등 세 곳에 경찰소를 설치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한 두시간씩 병법체조를 교련하도록 하는 등 멕시코 한인사회에 승무주의를 고취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회 메리다지방회에서는 동년 8월 19일에 을사조약 대치육기념일 행사시 메리다 시내에서 군사행진을 펼쳐 유카탄총독의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메리다지방회장 이근영은 11월 10일을 기해 메리다지방회 산하 각 경찰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軍法體操를 행하여 무예체육을 보급하는 한편, 11월 15일 군사운동 실시를 발표하여 멕시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메리다지방회에서는 1909년 11월 17일 전체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을사조약 파기선언’과 함께 도지휘관에 이근영, 조교에 양귀선·조병하·이수근을 선임하는 한편, 이튿날인 18일에는 이근영의 지휘 아래 2개 소대 110여 명이 군사훈련 실시와 시내행진을 통해 대한인의 기상을 드높였다. 이처럼 멕시코 한인사회에서 불기 시작한 군인양성운동은 1910년 2월 경 작둔지방에서 崇武學校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sup>25)</sup> 승무학교 설립 직후 교장으로 부임한 이근영은 구한국군 공병 하사로 있던 경험을 살려 《軍務要領》을 저술·보급하였으며, 이 책은 승무학교의 군사교본이 되었다.

25) 《新韓民報》, 1910년 3월 2일, 잡보 <승무개교>.

이같이 승무학교가 확장되던 즈음 멕시코 혁명이 발발하자, 메리다지방회 회원들은 가족을 따라 피난하거나 혹은 전쟁에 종군하는 등 사방으로 산재하는 바람에 1913년 폐교되고 말았다.<sup>26)</sup>

#### 다. 국민회의 군인양성운동

1909년 6월 박용만의 한인소년병학교와 멕시코 崇武學校의 군인양성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함께 미주에서도 1909년 6월부터 군인양성운동의 기치가 내걸렸다. 이미 중학교에서 무관학교 과정을 교수하고 있던 국민회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지방회 독립군양성을 위한 학생양성소 설립이 그 시발점이었다.<sup>27)</sup> 그러나 이것은 한 지방회에서 조직한 운동이었으며, 국민회 차원의 군인양성운동이 본격적으로 표명된 것은 1909년 8월부터였다. 즉 국민회 주필 최정익은 《新韓民報》, 1909년 8월 4일자에 〈大呼國民〉이란 寄書를 통해 조속히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sup>28)</sup> 그러나 당시 국민회는 해삼위지역에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탓에 미주지역내 군인양성운동은 1910년 5월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1910년 5월 국민회 산하 클레몬트(Claremont)학생양성소에서 매주 3일씩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롬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후 미주 각지에서 군사훈련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다.<sup>29)</sup> 이러한 미주 한인사회의 군인양성운동은

26) 《新韓民報》, 1909년 9월 8일, 논설 〈在墨同胞之崇武主義〉·11월 3일, 잡보 〈멕시코통신 國辱紀念〉·11월 10일, 〈국민회보〉·12월 8일, 〈멕시코통신 재목동포의 와신상담〉·12월 15일, 〈멕시코통신 재목동포의 와신상담〉 및 1910년 3월 2일, 잡보 〈승무개교〉·3월 23일, 잡보 〈한인의 명예〉·3월 30일, 〈목서가 동포의 승무주의〉·6월 1일, 잡보 〈승무학교〉 및 〈멕시코동포의 열성〉·7월 20일, 新潮 〈步兵要操抄選〉.

金元容, 앞의 책, 345쪽.

尹炳奭, 앞의 글.

27) 《新韓民報》, 1909년 6월 23일, 잡보 〈솔레이크 학생양성소 경영〉.

28) 《新韓民報》, 1909년 7월 28일, 잡보 〈무기배양〉·8월 4일, 기서 〈大呼國民〉에 大視生(崔正益)은 “대전쟁 대분투를 시작하여 국민의 권리를 찾고 의무도 다할 때에 만일 무예가 서투르면 암만 의식이 풍족하고 학식이 비상할 지라도 강한 적국의 대포 아래에 실패를 당할 터이니 불가불 군무는 연습하여야 되겠소”라고 하여 군인양성운동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29) 《新韓民報》, 1910년 5월 18일, 논설 〈병법연습의 풍조〉·잡보 〈조련을 힘쓰〉 및 6월 29일, 잡보 〈롬폭에 독립군〉.



소위 합방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더욱 가열되었다.

1910년 7월 일제의 ‘합방’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서는 각기 새크라멘토(Sacramento)와 호놀룰루에 지방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공동대회를 개최한 후 愛國同盟團과 大同共進團을 조직하고 9개조와 6개조의 항일운동방침을 결정하였다.

북미지방총회에서 결성한 애국동맹단은 7월 4일 결의안에서 ① 일본이 국 제공약을 무시하고 한국을 강탈하는 사실을 명문하여, 한국과 〈相互條約〉을 체결한 중국·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오스트리아 등 9개국 정부에 조약상 의무를 요청하기로 함, ② 한국황제에게 일본의 무리한 ‘합방’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것을 상소하고 일본황제에게 우리의 합방 반대 의사를 통지함, ③ 국내동포들의 비참한 실정과 倭賊의 不義行動을 탐지하기 위해 국내에 연락기관을 설치함, ④ 국내 실정을 탐지하는 대로 선전문을 작성하여 유럽 각지의 유력한 언론기관에 발표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함, ⑤ 국제공법과 선전문 작성에 기능있는 법률사를 고빙하여 외교서류와 선전문 작성을 위탁하되, 외교서류와 선전문은 대한인국민회의 명의로 발행함, ⑥ 각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群集하는 節日을 이용하여 선전대회를 열고 때때로 대내 선전문을 발행하여 동포의 애국정신을 고취함, ⑦ 먼저 외교 선전과 군사인재 양성사업에 착수함, ⑧ 애국동맹단 사업경비는 일반동포의 特捐으로 충당하며, 임원은 민중 公選으로 선출하여 사무를 掌理케 할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국내에 비밀통신기관을 설치하여 애국동맹단원을 모집할 것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북미지방총회에서는 외교를 포함한 군인 양성운동을 민족운동방략의 하나로 적극 채택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것을 주창하였다.

또한 대동공진단은 6개조의 결의안을 통해 ①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고, 왜적이 강압적 수단으로 만든 한일합방을 절대 반대하기로 결의함, ② 한일

---

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는 군인양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클레몬트 학생양성소, 네브라스카 한인소년병학교, 멕시코 승무학교, 하와이 마우이섬 기릭구지방에 《제조제요》란 책을 발송하는 등 군인양성운동을 지지하였다(《新韓日報》, 1910년 5월 25일, 회보 〈북미총회보〉).

합방 반대운동에 관한 모든 정책을 북미지방총회 결의안에 위반됨이 없게 행동일치를 도모함, ③ 한국황제와 일본황제에게 통지하는 서류는 이미 북미지방총회가 작성한 서류에 연서하여 우리의 태도와 책임을 같이하기로 함, ④ 외교와 선전사업은 대한국민회가 擔責하고, 군인양성사업은 대동공진단에 일임하기로 함, ⑤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립하고, 청년 동포로 하여금 의무적 兵式訓練을 받게 함, ⑥ 일반 운동의 경비는 동포의 愛國特捐으로 충당하고, 대동공진단 임원은 민중공선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 결의들에 의해 애국동맹단은 단장 崔正益, 외교원 尹炳求, 서기 李元植, 번역원 李大爲, 掌財 許承元, 회계 曹成學 등을 선출하였고, 대동공진단은 단장에 鄭元明, 재무에 安元奎, 서기에 李來洙, 외교원에 閔燦鎬를 선임하였다.

7월 6일 애국동맹단과 대동공진단은 연서로 한국황제 앞으로 전보를 보내 ‘속방’ 거절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황제와 ‘駐韓統監’ 테라우치에게도 전보를 보내 ‘합방’ 취소와 선전포고를 하였다. 또한 애국동맹단은 통고문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일제의 무력적 한국강점을 비판하는 외교선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遠東地域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할 사관생도양성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애국동맹단과 대동공진단은 〈武藝獎勵文〉을 발표하여 미주 한인의 무예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體操要旨》를 출판·分給하여 청년들의 군사훈련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5월 이미 대한국민회 산하 클레몬트학생양성소에 군사훈련반을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전개한 것을 필두로 동년 6월에는 롬폭에 義勇訓練隊, 11월에는 캔자스(Kansas)에 少年兵學院, 12월에는 와이오밍(Wyoming) 슈페리오(Superior)에 靑年兵學院이 조직되어 매일 저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인양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하와이의 대동공진단은 하와이 각 지역에 軍人養成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군인양성소 설립 후 석 달 후인 1910년 11월 대동공진단이 군인양성소를 大韓人國民會 하와이지방총회로 이관하자, 하와이지방총회는 練武部를 조직하여 독립군 양성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11월부터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에서는 하와이 각 지역에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과 한인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에

목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이때 군사훈련에 참가한 한인들은 약 200여 명에 달하였다.<sup>30)</sup> 이후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의 군사훈련은 박용만의 초빙으로 전환기를 맞이하며 본격적인 군사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 라.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

1912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기관지인 《新韓國報》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 임시정부 건설의 일환으로 북미대륙에서 주창하던 국민의무금제도와 한인자치제도를 하와이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하와이 한인사회에 국민의무금제도를 확립시킨 그는 1913년 5월 하와이정부로부터 특별경찰권을 승인받아 하와이 각 섬에 대한인국민회 警察部長을 설치하여 한인자치제도를 확립한 결과, 하와이 법정에서도 국민회의 경찰조사와 初審을 법정행사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경찰권 행사는 해외 한인을 일제 지배하에 두려는 일본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정부로서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용만은 1913년 12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 업일환으로 추진하던 군인양성운동을 기반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단과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후우섬 카할루에서 大朝鮮國民軍團(Korean Military Corporation)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Korean Military Academy)를 창설하여 독립군양성을 본격화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과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의 운영은 그 동안 하와이 각 지방 군사훈련을 담당하던 하와이지방총회 연무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사관학교의 주요인물은 박용만을 비롯하여 朴鍾洙·具鍾坤·李浩·安元奎·金世根·李正權·盧勳·임응천·한태경·한치운·이치영 등이었다. 특히 안원규와 박종수는 리비회사로부터 도급·계약한 1,500에이커의 아후이마누(Ahuimanu) 농장을 기부하여 300~400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군단부지를 제공하였으며, 임응천·한태경·한치운 등은 농사수익 전액을 군단에 기

30) 《新韓民報》, 1910년 7월 7일, 호의 〈謹告我愛國同志諸君〉·〈決議文〉·〈合邦反對會議事錄〉·〈委員會議事錄〉; 7월 13일, 논설 〈救國策在外交軍事〉; 11월 2일, 잡보 〈서페리오연무회〉.

金元容, 앞의 책, 339~343쪽.

부하여 군단 창설에 필요한 재정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이들은 군단과 사관학교 창설 후에 주요 기간요원과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박용만은 하와이軍司令部로부터 대조선국민군단 설립을 인가받아 실질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다만 하와이 군사령부가 실제 군총사령을 불허함에 따라 훈련시에는 목충으로 대체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의 운영은 박용만이 한인소년병학교 시절부터 지켜왔던 둔전병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조선국민군단 단원들은 군단에 기속하면서 농장에 나가 노동을 하는 한편, 틈틈히 군사훈련과 학습을 하였다. 그리고 군단 학도들은 야외에서는 군사훈련을 받고, 교실에서는 군사학을 공부하였다.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편제는 미국군대를 모방한 근대적 군사조직이었다. 그 조직구성과 임원을 살펴보면, 군단사령부(단장 박용만, 부관 구종권·태병선, 서기 백운택, 장재 최순서), 군단 경리부(부관 노훈·박승선, 회계 이정근, 장부 정인수, 군의 홍종훈), 제복소(소대장 김성옥·김승윤), 병학교(단장 박용만, 대대장 박종수, 대대부관 최장영, 정교 정명열), 훈련소 대대(대대장 박종수, 부관 이두환·허용), 훈련소 중대(중대장 김세근, 부관 이정근, 부위 김치명·조봉운·한명수), 훈련소 소대(소대장 박춘식·강태순·한응순, 참위 안경식·이상호·김례준·김성옥·김용팔·한경선·임성우·전종문, 정교 방재순·임순용·김순근, 하사 김상호·윤희주·이태홍·서순백·백운서), 별동대(노백린·김성옥·허용·이복희·이상호), 曲號手(이재호·강달제·강운학·김용환·백운경·차성철), 鼓手(이창규·이봉용·김백화·최태제·김중환) 등으로 이루어졌다.

100여 명으로 시작하여 많을 때는 300여 명에 이르렀던 대조선국민군단 사령부는 모든 한인 독립군을 ‘國民軍團’으로 편성하려는 목적하에 조직된 것이었으며, 대조선국민군단 사관학교는 그들이 편성하는 군단의 핵심이 될 사관양성기관으로 설치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사관학교의 교과내용은 박용만이 헤이스팅스 한인소년병학교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교재는 28종에 달하였다. 특히 1911년 박용만이 역술·간행한 《軍人須知》는 사관학교의 주요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대조선국민군단은 운영에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과 제정러시아는 연합국에 가

담하여 미국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합국 일원인 일본은 미국에 대조선국민군단의 활동중단을 요청하였다.

이즈음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외교론에 중점을 둔 이승만 계열과 무장투쟁론을 지향하였던 박용만 계열이 독립운동의 이념과 전술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이에 일제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내분을 이용하여 박용만을 제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15년 여름 일제는 박용만의 활동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일제의 항의를 받은 미국 국무장관은 다시 내무부에 엄중 조사를 요구했고, 내무부는 하와이 총독에게 공문을 보내 박용만과 그의 추종자들의 무기 소유 여부와 일본 내정에 간여·선동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정부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 승인하였던 특별경찰권을 취소함으로써 하와이 한인사회의 자치권은 박탈당하고 말았다. 또한 대조선국민군단은 兵農一致의 屯田制를 바탕으로 한 까닭에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즉 파인애플농장의 불경기와 흉작 등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 국민군단에서 사용하던 농장의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연장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을 취소당해 대조선국민군단은 마침내 1917년 무렵 문을 닫게 되었다.<sup>31)</sup>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1909년 2월 大同保國會를 제외한 모든 미주 한인단체가 통합하여 國民會를 창립하였다. 국민회의 탄생은 “渙散한 민족을 통일하며 분립한 사회를 연합”한 통일연합론의 결실이었다.<sup>32)</sup> 한편 1909년 초부터 국내에서 소위 ‘합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회는 동년 3월 사실상 대한제국정부와 융희황제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국권회복의 주체가 ‘민족’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sup>33)</sup> 국

31) 대조선국민군단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新韓民報》，1914년 2월 26일, 〈국민회력사〉·9월 24일, 잡보 〈병학교 낙성연〉.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한국학연구》3 별집, 인하대).  
在ホノルル領事館, 〈布哇朝鮮人事情〉(《朝鮮統治史料》7, 韓國史料研究所).  
方善柱, 앞의 글; 尹炳奭, 앞의 글; 金元容, 위의 책.

32) 《新韓民報》，1909년 2월 10일, 논설 〈賀國民會成立〉.

33) “돌아보건대 금일 한국에 우리 한인의 물건이 다만 한 가지라도 있느뇨 … 권

민회에서 주체로 내세운 민족은 근대 ‘국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up>34)</sup> 이에 따라 국민회는 1909년 3월부터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국권회복을 수립하고 국민주의에 바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sup>35)</sup> 1909년 3월 24일 국민회는 〈國民會章程〉을 발표하면서 모든 해외 한인을 관장할 國民會 中央總會 설립을 규정하였다.<sup>36)</sup> 이 중앙총회의 설립은 해외 한인의 통일연합기관의 완성과 더불어 해외 한인을 총괄할 최고기관의 설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형편상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운용할 수 없게 되자, 北美地方總會가 임시로 ‘중앙총회’를 대리 관장하였다.<sup>37)</sup>

그 후 통일연합기관의 일환으로 추진회 지방회가 만주와 노령 일대에 70여 개가 설립되고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자,<sup>38)</sup> 국민회는 1909년 10월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을 촉구하였다.<sup>39)</sup> 이에 따

---

선징악의 범람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범람이 아니오 적국이 천단하며 지존막대의 황실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황실이 아니오 적국이 조종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가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정부가 아니오 적국의 기관이 되었고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이천만 국민의 형질뿐이라 하겠으나 이것도 또한 완전치 못하여 伊藤博文의 간사한 명령과 大久保의 포악한 호령이면 모두 박멸을 당할 터이니 … 한국을 회복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한국을 멸망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원수의 학대를 받을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니 이천만 동포가 살면 이는 곧 한국이 사는 것이오 이천만 동포가 죽으면 이는 곧 한국이 죽는 것인 즉 동포동포야 경성하면 맹진하라”(《新韓民報》, 1909년 3월 3일, 논설 〈書籍購覽의 必要〉).

34)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기사 〈국민회를 축하함〉.

“국민이란 두 글자는 다만 나라백성을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사이니 국민회는 곧 우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자격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의회라. 우리 무리가 일찍이 국민의 소중한 책임을 깨달았던들 국가의 쇠퇴가 어찌 오늘에 심하였으며 민족의 정체가 또한 어찌 오늘에 극하였으리오.”

35) 국민회는 《新韓民報》, 1909년 4월 28일자 논설 〈告閔有志諸君〉에서 “新韓 두 글자는 쇠망한 한국을 새롭게 할 목적을 표명하였고 民報 두 글자는 부패한 민기를 소생케 하며 잃어버린 민권을 회복케 하는 이십세기 신세계의 국민주의를 제창하는 보필”이라고 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 건설을 표명하였다.

36) 《新韓民報》, 1909년 2월 24일, 〈國民會報〉·3월 24일, 〈國民會章程脫稿〉·31일, 〈國民會章程〉.

37) 《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國民會報.

38) 《新韓民報》, 1909년 11월 10일, 〈任員與會員의 責任〉.

라 1910년 1월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서는 遠東地域에 중앙총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였다.<sup>40)</sup> 국민회가 중앙총회의 설립을 미주가 아닌 원동지역에 설립하고자 한 것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 수행거점으로 국내에 인접한 만주나 노령지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국민회에서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위해 파견하였던 이강·김성무 등이 봉밀산현에 농토를 매입하였다는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더욱 촉진시켰다.<sup>41)</sup>

1910년 2월 10일 대동보국회를 통합한 국민회는 大韓人國民會로 개칭하면서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임을 선포하였다.<sup>42)</sup> 이에 따라 대한인국민회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미 1909년 11월 기관지 《新韓民報》를 통해 3권분립에 의한 국민국가 건설을 제창했던 국민회는<sup>43)</sup> 1910년 6월 일제의 ‘合邦論’이 미주에 전해지자, 그해 7월 사실상 일제에 투항한 隆熙皇帝(純宗)를 대한제국의 군주로서 전면 부인하는 한편,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 수립을 천명하였다.<sup>44)</sup>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漢城 중앙에 높이 세울 國民機關所” 건립

39) 《新韓民報》, 1909년 10월 13일, 國民會報.

40) 《新韓民報》, 1910년 1월 26일, 국민회보 〈북미지방총회보〉.

41) 《新韓民報》, 1910년 2월 2일, 잡보 〈태동설업회사〉·〈양차내전〉.

그러나 국민회의 원동지역내 중앙총회 설립계획은 당시 노령 한인사회의 분열과 독립군기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자세한 것은 박한, 앞의 글, 203~207쪽을 참조할 것.

42) 《新韓民報》, 1910년 2월 9일, 논설 〈賀兩會之合同〉·잡보 〈국민회 기념〉·〈국민대동〉·〈양회합동사실〉; 3월 2일, 기사 〈축하국민단체〉·〈국민단체를 하례함〉·〈축하양회합일〉.

43) 《新韓民報》, 1909년 11월 17일, 논설 〈국민설〉.

“우리가 이왕에는 국민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는 고로 금일에 국가는 패망의 비운을 당하였으며 민족은 멸절의 참화를 당하는 터이니 즉금일수록 국민의 본뜻을 연구치 아니하면 내일날에도 또한 국가가 없을지며 민족이 없을지라 ... 국민이란 말은 반드시 완전한 입법·행정·사법과 개인의 자유가 있는 연후야 국민이라 칭함이 가할지라.”

44) 《新韓民報》, 1910년 7월 6일, 논설 〈噫死而不知其痛乎〉.

“우리는 어디까지 대한국민이니 대한국가가 아니면 의무를 행함이 불가한지라. 일인의 예비함과 같이 융회황제가 동경에 가서 작록을 받을지면 우리는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즉 우리는 마땅히 이씨의 황실을 존송하는 충심으로 황위계승할 성군을 택할지며 현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였은 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

을 계획하였다.<sup>45)</sup> 대한제국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러한 인식은 당시로서는 폭탄선언이었다.

1910년 8월 식민지로 예정된 대한제국이 강점당하자, 대한인국민회는 동년 9월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족의 단체를 공고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假政府는 公法之所許)를 실시함이 목하에 급무라”고 선언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수립을 촉구하였다.<sup>46)</sup> 국민주권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론을 계기로 대한인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총괄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설립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sup>47)</sup> 이는 사실상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sup>48)</sup>

그리하여 1910년 10월 5일 대한인국민회는 기관지인 《신한민보》에 〈大韓人의 自治機關〉이란 논설을 통해 임시정부 건설론을 강력히 주창하는 동시에 대한인국민회를 해외최고기관에서 임시정부로 전환하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니 … 오늘에 나라가 없어진 것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히 못하였던 연고이며 내일에 국가를 회복함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한 연후의 일이라. 그런고로 우리의 급급히 할 바는 일반 국민의 자치력을 배양하며 자치제도를 실행하는데 있도다 … 내가 돌아보건대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순전한 대한정신으로 대한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며 대한 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독일무이한 목적을 정한 자 대한인국민회 밖에는 없

---

를 세울지니.”

45) 《新韓民報》, 1910년 6월 15일, 논설 〈독립준비의 사무소〉.

46)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 논설 〈嗚呼舊韓已死矣〉·〈新韓國을 建設乎否〉.

47) 《新韓民報》, 1910년 9월 28일, 잡보 〈중앙총회대표원〉.

48) 《新韓民報》, 1910년 10월 26일, 기사 〈대한인국민회 제공은 기회를 이용하라〉. “오늘에는 국민회를 위하여 일하며 국민회에 헌신하여 속히 중앙총회로 대한 국민을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정부의 자격을 의방하여 정치에 주안이 되는 자치기관을 조직하자는 논설에 우리의 연구한 재료로 4대강령을 제창하여 신한민보의 본지를 발표하였으니 … 이렇듯이 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장래에 완전한 국민의 법치정부를 조직하자는 문제도 또한 대한역사 사천여 년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라.”



을지니 … 오늘에는 대한인의 국민단체를 위하여 헌신할지며 … 대한인의 국민단체에 마음을 기울여 완전한 지치기관을 정할지이다 …

미주에 있는 동포는 국가에 대한 세납의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공헌하기로 의논이 일치하며 하와이에 있는 동포는 국민회의 중앙기관을 속히 설립하기로 제의가 되어 유지제공의 의견이 일치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한인국민회는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이 확연히 되었다. 이제 형질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율흥하기를 시작하니 어찌 희망이 깊지 아니함이요. 고로 본 기자 이에 대하여 두어가지 의견을 제공에게 제창하여 연구하는 재료를 삼게 하노라.

- 一. 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을 총히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假政府의 자격을 의방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할 일.
- 一. 내외국민이 신앙할 만한 명예있는 이를 받들어 총재를 삼아 중대사건을 고문케 할 일.
- 一. 회원과 아님을 물론하고 각국 각지에 있는 대한국민에게 그 지방 생활정도를 따라 얼마씩 의무금을 정하여 전체 세입·세출을 정관할 일.
- 一. 일체 회원은 병역의 의무를 담임할 일. 다만 연령에 따라.

이와 같이 대한인국민회는 국민회를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인 임시정부로 설립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3권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멸망을 공식화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최초로 국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을 제창하는 혁명선언이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설립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sup>49)</sup> 해외 한인의 통일기관이자 임시정부인 중앙총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1911년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였다.<sup>50)</sup> 그러나 이 중앙총회는

49) 《新韓民報》, 1910년 11월 2일, 논설 〈新韓建設策在國民團體完全而已〉·9일, 논설 〈國民團體完全策〉·23일, 논설 〈새 한국은 우리청년에게 있음〉.

50) 《新韓民報》, 1911년 1월 25일, 〈진보를 하는가 퇴보를 하는가〉에는 “오늘날 대한인국민회는 다만 재외동포의 정신을 통일하는 기관뿐 아니라 이천만 민족사회에 둘도 없는 다만 한낱의 정당이라 하여도 헛된 말이 아닐지며 장래의 신한국을 건설하는 주초라 하여도 그 책임을 사양치 아니할지라. 이제 미주 하와이 멕시코로부터 아령 원동과 청령 극동에 이르기까지 처처에 설립되는 바 대한인국민회 뿐이니 … 오늘까지 구체적으로 성립된 중앙총회가 없으

중앙총회장 崔正益과 부회장 韓在明을 선출한 데 그친 것이며, 완전한 조직 구성체는 아니었다.<sup>51)</sup> 따라서 대한민국민회는 이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國是를 정하여 정치·법률로 조직 구성을 해야 했다.<sup>52)</sup> 이에 대한민국민회는 총회장 최정익을 각 지방회로 순회하게 하는 한편, 정치적 식견이 있는 박용만을 《신한민보》 주필로 초빙하여 일반 국민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sup>53)</sup>

1911년 2월 《신한민보》 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sup>54)</sup> 美日戰爭說을 “朝鮮의 독립기회”로 포착하고,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無形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다.<sup>55)</sup> 이 무형국가의 건설은 “마땅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한인의 새 나라를 만드는 땅이 되어 장차 조선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하게 되고 또 북아메리카 대륙에 나온 한인은 자기들의 새 政體를 조직하여 장차 조선헌법의 아버지”가 되어 “조만간 한 무형한 국가를 성립”하자고 주장하였다.<sup>56)</sup> 즉 박용만은 해외 한인을 통일·결속시키기 위해서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복종시켜 無形國家 또는 임시정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설립된 중앙총회가 명칭과 총회장만 있는 허울임을 비판하면서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구심체로 전환시킬 것을

---

며 원동과 극동 각지에 각 단체를 규합하는 지방총회가 없으며 이미 설립된 지방총회도 임원이 칠령팔락하여 ... 어찌 경성할 바 아니리오.”라고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민회에 중앙총회 임원 선출과정은 《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9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16일, 논설〈拭目而待其人—중앙총회장 선거에 대하여—〉및 잡보〈중앙총회장 선거〉·12월 21일, 회보〈북미총회보〉; 1911년 1월 25일, 회보〈북미총회보〉·1911년 3월 22일, 회보〈북미지방총회보〉 참조할 것.

51) 《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회보〈중앙총회보〉.

52) 《新韓民報》, 1910년 1월 11일, 논설〈일반동포에게 물질적 사상을 요구함〉.

53) 《新韓民報》, 1911년 1월 11일, 〈이 글을 쓰는 자의 회포〉.

54) 《新韓民報》, 1911년 3월 1일, 잡보〈본보주필 안착〉.

55) 《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논설〈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나 내일이냐〉.

56) 《新韓民報》, 1911년 5월 3일, 논설〈정치적 조직에 대하여 두번째 언론〉.

주장하였다.<sup>57)</sup> 이어 박용만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조직론을 전개하여 ① 의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앞에 통합할 일, ② 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 한인이 법률상 공민이 될 일, ③ 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할 일, ④ 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⑤ 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 등 임시정부 조직의 大綱을 제창하였다.<sup>58)</sup>

그러던 중, 1911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건립된 각 처 지방회에서 지방총회 설립을 요청해 오며 따라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 건립은 시급을 요하게 되었다.<sup>59)</sup> 이에 따라 1911년 8월 대한인국민회는 대표원들의 승낙을 얻어 중앙총회 임원을 선정하고 중앙총회를 발족시켰다.<sup>60)</sup>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되는 단체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탄생하자,<sup>61)</sup> 국민회 회원들은 대한인국민회를 “우리 국민의 假政府의 총기관”으로,<sup>62)</sup> “중앙총회는 전부 국민회를 통할한 기관이요 한 나라 정제로 말하면 일체 법령을 발하는 중앙정부라 … 오늘날 국민회는 한국의 무형한 정부”로 인식하였다.<sup>63)</sup>

1912년 11월 8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1회 代表員議會가 개최되었다. 이 중앙총회 의회 소집은 대한민족의 자치기관인 대한인국민회가 사상 최초로 입법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총회 대표원의회에서는 ① 憲章 제정, ② 조국역사 편찬, ③ 교과서 제정, ④ 미주와 하와이 두 지방총회 기관지의 중앙총회 讓與, ⑤ 會旗 제정, ⑥ 張仁煥 의사의 감형운동 전개, ⑦ 실업과 외교기관 설치안의 중앙총회 의결, ⑧ 遠東 각 지회 자치규정은 그 나라

57) 《新韓民報》, 1911년 5월 10일, 논설 〈정치적 조직의 세번째 언론〉.

58) 《新韓民報》, 1911년 5월 17·24·31일, 논설 〈정치적 조직의 계획〉.

59) 《新韓民報》, 1911년 8월 9일, 잡보 〈국민회 대홍〉·16일, 회보 〈중앙총회보〉.

60) 《新韓民報》, 1911년 8월 16일, 회보 〈중앙총회보〉.

이때 선정된 중앙총회 임원은 총회장 崔正益, 총무 金聲權, 서기 姜永韶, 재무 朱元, 학무원 邦化重, 법무원 李秉瑚, 외교원 이순기 등이었다.

61) 《新韓民報》, 1911년 8월 30일, 〈고난을 참지 못하면 성공이 없음〉.

62) 《新韓民報》, 1911년 11월 8일, 논설 〈집필 초일의 소감〉.

63) 《新韓民報》, 1911년 12월 11일, 논설 〈국민회의 신서광〉·1912년 2월 5일, 논설 〈국민회 3회기념〉·〈論慶節〉.

政體에 저촉이 없도록 따로 제정·시행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대표원 의회는 중앙총회장에 尹炳求, 부회장에 黃思溶을 선임하였고, 총무 鄭七來, 서기 姜永韶, 재무 朴永淳, 학무원 閔燦鎬, 법무원 朱元, 외교원 박용만을 임명·승인하였다.<sup>64)</sup>

1912년 11월 20일 대한민국민회는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 선포문은 ①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 ② 각지에 있는 해외 동포는 대한민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민회는 일반 동포에게 의무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갖을 것 등을 선언하여 사실상 대한민국민회를 한인의 대표기관인 임시정부로 설치하려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는 12월 7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던 태극국기는 이제 세상에 자취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國民會旗를 새로 제정하기로 대표회에서 작정”하였음을 공고하면서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깃발 제정을 천명하였다.<sup>65)</sup>

그 후 대한민국민회는 1914년 4월 미국정부로부터 재미 한인의 대표기관이자 한인의 자치정부로 인정받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한인단체가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와 만주리아지방총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따라서 대한민국민회에서 추진하던 임시정부 건설론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맥을 잇게 되었으며, 이는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金度勳〉

## 5) 일본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경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도입하여 일본에 정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재일조선인의 역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인 저

64) 《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잡보 〈대표회 의사초록〉.

65) 《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광고 〈會旗圖案合格者 현상금 25원〉.

항의 역사이다.

조선총독부는 도일관리를 엄격히 하는 이유로 조선인 노동자의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조선인의 무작정 도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도일관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보다는 일본 자본가와 일본 경제정책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인의 자유도일을 허가하면, 일본 내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여 노동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일본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1910·192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보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재일조선인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910년대 말 이후 조직역량 강화와 함께 투쟁이 활발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재일조선인의 상태를 살펴보고, 투쟁의 내용을 주요 사건과 단체를 통해 개관해 보겠다.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 가. 1910년대의 상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도일정책은 집단적인 노동자 관리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취해졌다. 이 1910년은 일본지역의 조선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sup>1)</sup>

1910년대 일제는 일본의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관련 속에서 도일정책<sup>2)</sup>을 수립하고 운영했다. 정치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도일정책은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데, 강제병합 직후 조선총독부의 도일정책은 당국의 관리 아래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조선인의 도일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 이후 자세한 1910년대 재일조선인 도일정책에 대한 내용은 정혜경, 《일제하에 在日조선인 민족운동의 연구—오사카지방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2) 水野直樹는 1910년 〈칙령〉 352조의 규제가 풀린 이후 1911년부터 1918년까지도 도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水野直樹, 〈朝鮮總督府の内地渡航管理政策—1910年代の労働者募集取締〉, 《在日朝鮮人史研究》 22, 1992, 26~27쪽).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도일관리를 담당한 부서는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보안과였다. 경무총감부는 강제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10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보안과는 ‘한·일인 외국여권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권업무가 도일관리는 아니었다. 보안과가 도일 노동자의 도일을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리한 것은 1913년부터이다. 1913년 4월 24일 경무총감부 보안과장이 발표한 통첩 〈保安親發〉(21)<sup>3)</sup>에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도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도일관리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① 일본의 사업에 종사할 노동자를 조선내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경무부장이나 경무총장의 인가를 받을 것, ② 허가원서에는 고용주의 사업·소재지·노동의 종류·모집인원·남녀별 인원·모집구역·모집기간 등을 기입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첨부할 것, ③ 모집조건으로 14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는 부모나 호주의 허락을 받을 것. 기혼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허락을 받을 것. 고용중인 자를 모집·권유하지 말 것. 필요한 경우에는 응모자의 민적 등본을 제시할 것, ④ 노동자를 일본에 도일시킬 때에는 응모자의 명단과 모집허가증을 승선지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 등.

실제로 1909년까지 790명에 불과하던 조선인은 1911년에는 2,500여 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 후 점진적인 증가를 보여오던 조선인수는 1917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호황기를 맞은 일본회사의 본격적인 조선인 노동자 모집으로 다시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다. 조선인의 일본 도일은 1916년까지와 달리 1917년에는 1만 4천 명, 1918년 1만 8천 명, 1919년 약 2만 명, 1920년에는 2만 7천 명이 되었고, 재류자의 숫자는 1917년 1만 4천5백 명, 1919년 2만 6천6백 명, 1920년에는 3만 명이 넘었다.<sup>4)</sup>

1910년대 이후 도일한 조선인은 일본 전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거주 상황은 일본의 산업구조 및 노동조건과도 관련을 갖는다.

3) 脇野義雄, 〈内地行朝鮮人労働者の概況〉(《警務彙報》150, 1917년 11월 1일, 雜錄).

4) 朴慶植, 〈일본에서의 3·1 독립운동〉(《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725쪽.

&lt;표&gt;

1910·19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추이

연도	거주 한국인 수			연도	거주 한국인 수		
	(1)	(2)	(3)		(1)	(2)	(3)
1911	2,527		5,728	1921	38,651	48,774	62,404
1912	3,171		7,796	1922	59,722	82,693	90,741
1913	3,635	3,952	10,394	1923	80,415	112,051	136,557
1914	3,542	4,176	12,961	1924	118,152	168,002	172,130
1915	3,917	5,064	15,106	1925	129,870	187,102	214,657
1916	5,624	7,225	17,972	1926	143,798	207,853	247,358
1917	14,502	17,463	22,218	1927	165,286	246,515	308,685
1918	22,411	27,340	34,082	1928	238,102	341,737	358,121
1919	26,605	35,995	37,732	1929	275,206	387,901	398,920
1920	30,189	40,755	40,755				

\* (1) 《日本帝國統計年鑑》.

(2)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 1957, 23~29쪽.

(3) 田村紀之, 〈内務省警報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 46, 1981, 58쪽).

1910년대 전 시기를 통해 볼 때, 홋카이도(北海道)·후쿠오카(福岡)·오사카(大阪)·효고(兵庫) 등에서 조선인 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다.<sup>5)</sup> 이들 지역 가운데 줄곧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곳은 오사카와 후쿠오카이다. 일본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넓은 노동시장과 비교적 나은 노동조건으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는 오사카로 밀집하게 되었다. 또한 먼저 터전을 잡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찾아 오사카로 향하는 조선인들의 도일이 늘어남에 따라, 오사카 거주 조선인수는 점차 증가했다.

이에 비해 후쿠오카는 1910년대 일본 최대의 광산지인 큐슈(九州)에서도 가장 조선인이 밀집한 지역으로 대규모 탄광이 있었다. 후쿠오카는 노동조건 of 열악성으로 인해 항상 노동자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 지역 조선인 증가율은 낮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후쿠오카가 갖는 지리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후쿠오카는 관부연락선의 종착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도일 조선인에게 관문의 역할을 했다.

---

5) 이하의 내용은 정혜경, 앞의 책.

재일조선인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노동자였다.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 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게 된 하층 노동력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일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노동운동세력의 양적인 성장과 운동의 지속성은 일본 기업주와 당국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고안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었다. 당시 일본 노동운동세력은 그 대상을 외국인이 아닌 일본인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통해 일본 노동운동의 세력약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10년대에 일본 기업가들이 고용한 일본인 노동 브로커들은 가슴에 금시계를 달고 양복을 입은 노동자 모집용 조선인 노동자를 내세워 농촌을 돌면서 조선인 노동자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도일 조선인 노동자의 증가는 국내 노동자 부족과 임금상승이라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특히 일본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 모집이 집중되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노동자 부족은 심각했다. 1918년 8월에 운수노동자·토목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총독부에 노동자모집 단속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sup>7)</sup>

밀항은 방법상에서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1910년대부터 사용된 도일방법이었다. 즉 취업연령에 미달한 노동자나 취업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도일 희망 조선인, 모집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일본의 도일저지책을 피해 도일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1915년의 경우, 1회의 밀항으로 오사카 거주 조선인의 25%에 달하는 인원이 도일했다. 이러한 밀항은 1년에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1910년대에는 다수의 조선인이 밀항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밀항을 단행한 조선인에 대해 불법 도일 자체를 악용한 일본인 고용주는 구속을 강화하여 더욱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1910년대 이전에 재일조선인인 가운데는 유학생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1881년에 첫 유학생이 일본 땅을 밟은 이후 1910년대까지 재일

6)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장문각, 1973년), 236~237쪽.

7) 《大阪朝日新聞》鮮滿版, 1918년 8월 18일.



조선인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유학생이었다.

조선인의 일본 유학은 1920년 유학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유학원서를 도지사를 통해서 조선총독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지주·매판자본가·고등 관료들의 자식들이었다. 이러한 일본 유학은 실제로 조선의 학생청년들에게는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권력에 조응하여 지배계급에 부분적으로 편입하는 길과 다른 하나는 식민지 본국인 일본에 가서 제국주의의 실상을 파악하고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조선 해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sup>8)</sup>

일본 유학은 1904년부터 본격화되는데, 물론 이것은 국운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sup>9)</sup> 1904년 이후의 일본 유학은 민간주도로 근대학문을 배우기 위한 사비생 중심의 반일감정이 강한 유학이었다. 이들 유학생의 88%가 東京의 사립학교에 들어갔고 전체 유학생의 97%가 남성이었으며, 사비생이 91%였다. 그리고 주로 정치·법률·경제·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받았다. 이들 유학생의 출신지를 보면, 서울 출신이 24%로 가장 많고, 평안도 출신이 23%였다.

1910년 이후 일본 유학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즉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에게 망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내에 제대로 된 학교가 부재하던 가운데 근대적인 국가로 성장하여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일정하게 새로운 지식의 보고였다. 실제로 한일합방에 의해 일본 유학은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보였는데, 1910년대를 통해 평균적으로 500~600명의 수준을 유지했다.<sup>10)</sup> 그 이전 시기 유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10년대 유학생은 東京의 사립학교에 재학한 남성 사비유학생이 중심이었고,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한 경우는 주로 법정·경제·사회과를 전공했다.

한편 관비유학생의 경우 그 추이를 보면, 1909년 52명, 1910년 32명, 1911년 44명, 1912년 50명, 1913년 47명, 1914년 47명, 1915년 26명, 1916년 29명,

8)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66, 국사편찬위원회, 1995), 114쪽.

9) 朴己煥, 《近代日韓文化交流史研究－韓國人の日本留學－》 (大阪大 博士學位論文, 1998), 28쪽.

10)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주가 없으면 金仁德,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참조.

1917년 17명, 1918년 30명, 1919년 47명이었다. 이들의 전공분야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농업·수산·의학·공업·상업분야에 편중되었고, 정치·법률의 전공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사비유학생의 유학경향과는 대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12월 말 현재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총수는 589명이었고, 이 가운데 456명이 東京에 거주했으며, 1918년 말은 769명 가운데 642명이 동경에 거주했다. 아울러 1919년 5월 총수는 366명이고 310명이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5월에 유학생의 총수가 현저하게 준 이유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한 유학생이 속출했기 때문이었다. 1920년 유학생의 총수는 1,023명으로 1920년이 되면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재일유학생의 수가 급증했다.

이들 조선인 유학생이 1920년 현재 주로 다닌 동경 시내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明治大學·日本大學·中央大學·早稻田大學·東洋大學·慶應大學·專修大學 등이었다.<sup>11)</sup> 전공은 법정·경제·사회 등이었다.

#### 나. 1920년대의 상태

1920년대 재일조선인의 도일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경제정책이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

1920년대 국내의 이농민들은 농촌과 도시 노동시장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대부분이 농촌노동력이나 도시노동력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시 실업자로 유리결식하거나 국외 이주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다. 또한 이 농민 전업화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다 더 많은 노동임금을 위해 도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조선인의 도일은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일본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1922년 12월 여행증명제도가 철폐되고 1923년에는 ‘도항증명제’가 실시되었다. 일본 경제는 1923년경부터 만성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모집이 허가되지 않았다.<sup>12)</sup>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파괴된 시가지의 복구를 위해 노

11) <在内地朝鮮學生狀況>(朴慶植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300~301쪽.

12) 《朝鮮警察之概要》(朝鮮總督府警務局, 1925), 167쪽.

동력이 요구되자 일본 정부는 ‘도항증명제’를 폐지했다.<sup>13)</sup> 그러나 일본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자 내무성은 1925년 8월 도일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연이어 조선인 노동자의 실업문제가 야기되어 1925년 10월부터 도항저지(제한)가 실시되었다.<sup>14)</sup>

이후 1928년 7월 조선총독부는 도일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지참금을 60엔 이상 소지하고 노동브로커의 모집에 의한 것이 아닌 조선인의 도일만 허용했다. 1927년 3월 일본 경제는 금융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해 보다 심화되자 일본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 모집은 제한되고 재도일증명서제로 도일은 보다 통제되었다.

1920년대 재일조선인의 대다수는 교토(京都)·오사카·고베(神戸)지역에 거주했다. 이 지역에 재일조선인이 많이 거주한 원인은 상공업 중심지로 노동력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노동자가 증가했다.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오사카·동경 중심으로 인구집중현상이 보인다. 오사카와 동경지역은 일본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노동시장의 요구가 일본내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다. 도일한 조선인이 이 두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나고야(名古屋)에 조선인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으로 이 지역에서도 산업·교통의 중심 도시였던 나고야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 특히 이곳에 조선인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나고야가 게이신(京濱)·한신(阪神)에 다음가는 3대 산업지역의 하나로 발전한 것과 1925년부터 시작된 실업구제사업 실시 때문이었다.

교토지역에서는 오사카·나고야와 달리 일용노동자가 적었다. 이곳에는 1925년 경우 직공이 인부의 수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주로 염색·방직·나염의 직공·심부름꾼·잡역 등으로 노동했다.<sup>15)</sup>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1920년대 직공과 광부·토건인부가 되었다. 1926년에

13) 《治安狀況》(1927), 519쪽.

14) 《治安狀況》(1927), 522쪽.

15) 鈴木博, 〈京都における在日朝鮮人労働者の闘い—1920年代—〉(《在日朝鮮人史研究》8), 31쪽.

완성된 阪神國道 보수공사에는 연인원 백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 중 1/3은 조선인이었다. 특히 실업구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재일조선인 노동자가 지방의 토목공사장으로 이동하여 노동했다.<sup>16)</sup> 이와 함께 조선인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미명 아래 광산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채탄작업에 집중배치되었다.

재일조선인은 경기변동에 직면하여 항상 먼저 희생이 되어 실업상태에 빠졌다. 조선인 일일노동자의 고용도 불안정했다. 1925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약 3%가 실업상태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일노동자의 경우는 19.7%의 실업율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경우 겨울 동안 대부분 휴직상태에 있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들 조선인의 실업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재일조선인의 지위는 최하층 노동자로 상징되었다.

이주자가 급속히 늘어난 1920년 전후 조선인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인 마을은 조선인에 의한 自衛의 장소로 ① 함바(飯場), 회사의 사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거점으로 조성된 경우, ② 토지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지대·습지대·하천부지 등에 자력으로 임시건물을 지으면서 조성된 경우, ③ 일본인이 주거하지 않는 집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경우, ④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빌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형성된 경우 등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내에는 조선음식점과 재료가게가 생겨나게 되었고 조선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 (2) 191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가. 일반 단체의 결성

1910년대 주요 조선인단체는 在阪朝鮮人親睦會·同盟合資會·合同會財團·朝鮮人貯金會 등을 들 수 있다.<sup>17)</sup>

재판조선인친목회는 노동자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오사카에서 최초로 결성된 조선인단체이자 일본지역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재일조

16) 《치안상황》(1933), 202쪽.

17) 姜徹, 《在日朝鮮人史年表》(雄山閣, 1983), 20~38쪽.

〈표〉 일본지역 조선인단체 결성 상황

연도	단 체 명
1896	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東京)
1906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東京)
	재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東京)
1907	早稻田大學조선동창회(東京)
	재일본동경대학유학생학회(東京)
1909	재일본대한장학회(東京)
1911	재일본조선유학생친목회(東京)
1912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東京)
1914	재판조선인친목회(大阪)
1915	조선여자친목회(東京)
	반도옹변회(東京), 조선학회(東京)
	京都조선유학생회(京都)
	京都조선유학생친목회(京都)
1916	동맹합자회(大阪)
1917	東京노동동지회(東京)
	호남친목회(東京)
1918	합동회재단(大阪)
1919	조선인兵庫간친회(兵庫)
	조선인저금회(大阪)

(姜微, 《在日朝鮮人史年表》(雄山閣, 1983), 10~38쪽; 정혜경, 《일제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연구—오사카지방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 나. 유학생 단체

1911년 조선총독부의 〈교육령〉에서는 전문교육의 시기상조를 거론했고 중등교육의 ‘최상’을 얘기했다. 이에 따라 전문학교가 설립된 것은 1916년으로

선인 단체였다. 1914년 1월 15일에 강만형이 발기자가 되어 자신의 숙소에서 최진태·김기준·정치현 외 6명이 모여 임임선출과 회원 권유 등에 대해 협의를 한 이후 모임을 가졌다. 재판조선인친목회는 명칭은 친목회이지만 단순한 친목도모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한 노동자구호를 목적으로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구호활동을 하거나 재원을 적립하지도 않았다.

동맹합자회는 1916년 5월 1일에 오사카 거주 조선인 30여 명이 김달웅의 방에서 모임을 갖고 창립한 노동자 구호단체였다. 조선인저금회는 1918년 8월 8일에 오사카 거주 조선인 박경도가 발기자가 되어 조선인 직공을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회원은 매월 1일과 15일에 50전씩을 공동으로 저금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회원의 질병, 사망, 기타 구제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해에는 경성전수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설립을 거론할 수 있다. 1917년 연희전문·세브란스의전이 사립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1919년 시기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면 일본 유학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sup>18)</sup>

대한제국 시기부터 조선인 유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해 조직활동을 전개했는데, 1905년 이후 주요한 단체를 들면, 在日本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大韓興學會・在日本朝鮮留學生親睦會・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在阪朝鮮人親睦會・京都朝鮮留學生親睦會・東京女子親睦會・東亞同盟會・朝鮮學會・結盟兄弟會・東京勞動同志會・東洋青年同志會 등<sup>19)</sup>이 있었다.

이들 재일유학생이 단체를 결성하고 기관지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였다. 이후 재일유학생들의 단체는 새로운 내용을 가졌는데, 1910년대의 경우 그 내용이 반일로 귀결되어 갔다. 이 가운데 몇몇 주요 단체에 대해 살펴보자.

경도조선유학생친목회는 1915년 1월 24일 김우영 주도로 20여 명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해 2개월에 한번씩 모임을 가졌다. 재판조선인친목회는 강만형·정태·부남희·신태균·나경석 등이 주도했는데, 노동자의 구조를 외형상의 목적으로 내걸며 반일의식을 고취했다.<sup>20)</sup>

동경여자친목회는 김필례·나혜석의 발기로 李光洙·전영택의 후원 아래 조직되어 재일여성계의 주도세력이 되었는데,<sup>21)</sup> 김마리아·황애시덕 등이 2·8운동에 적극 관여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22)</sup> 동아연맹회는 金明植·김도연·양원모·최팔용·전익지·홍진의 등이 활동했고, 이들은 전술한 재일단체를 지도하기도 했다.<sup>23)</sup> 조선학회는 이광수·신익희·김양수·장덕수·

18)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교육요람》, 111~118쪽.

19) 〈朝鮮人概況〉, 대정 5·7·9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三一書房, 1975).

20) 〈朝鮮人概況〉, 대정 5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三一書房, 1975), 49쪽.

21)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 연구〉(숙대 석사논문, 1999), 27쪽.

22) 長久保宏人, 〈二・八獨立宣言への道—1910年代後半の在日朝鮮人留學生運動—〉(《福大史學》), 26~30쪽.

23) 〈朝鮮人概況〉, 대정 7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三一書房, 1975), 67쪽.

최두선·서춘·나용균·현상윤·전영택·김도연·백남훈 등이 활동했는데, 외형상으로는 조선에 대한 일반학술의 연구를 내걸었고, 내용상으로는 반일 의식 고취를 선도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조선학회의 경우 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입회가 가능했고, 공식적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2·8운동을 주도했으며,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유력한 세력이 되었다.

그런가하면 재일유학생들은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회관을 널리 사용했다. 즉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를 비롯한 조직은 모임의 회장으로 이곳을 빈번히 사용했고, 따라서 이곳에 있던 재일본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이하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는 재일유학생운동의 메카와 같이 되었다.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는 1903년 창립된 皇城基督教青年會의 일본지역 조선인 조직으로 1906년 설립<sup>24)</sup> 이후 반일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8운동 이후는 거의 반년 이상을 옥중의 동지 구원에 전력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2·8운동과 3·1운동이 있던 1919년 시기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간부는 회장 피서, 부회장 김준연, 간사 백남훈, 서기 장영규, 종교부장 임종순, 교육부장 김종필, 체육부장 원달호, 친접부장 박형병, 홍제부장 정래길 등이었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학우회의 주요 성원과 중복되기도 했다.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는 월례회를 계속했고, 1920년 10월에 가서는 55명의 신입회원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할 수 있었다. 당시 청년회의 주요 사업은 기관지의 발행, 대중 강연의 개최, 조직의 정비, 회관 건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는 2·8운동 주도세력의 구원활동을 담당했다. 2·8운동의 과정에서 주모자로 검거, 구속되어 형을 언도 받은 崔八鏞·徐椿·金度演·金喆壽·宋繼白·金尙德·白寬洙·崙昌錫·李琮根 등에 대해서는 구원활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2·8 관련자들이 검거되어 미결로 있는 동안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간사 白南薰은 침구와 사식을 옥에 들여 보냈고, 기금도 모집했다.

24) 와이.유.엔, <在日本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略史> (《使命》10, 1936), 93쪽.

이상과 같은 재일단체를 만들었던 유학생을 이광수는 <東京雜信>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세계대세와 현대문명을 일부분은 이해하고 또 전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세계와 현대문명을 모르고 관리로 출세할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셋째 남이 유학하니 나도 유학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1910년대 당시 재일유학생 내부에서는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비분강개를 털어놓는 사람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람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17년 후반부터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러시아혁명의 성공, 그리고 일본 내 1918년 8월 쌀소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재일유학생들은 본격적인 반일투쟁을 준비했다. 그 투쟁은 1919년 2월 8일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1919년 2·8운동을 내용적으로 주도한 세력은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이하 학우회)였다. 학우회는 대한홍학회의 후신으로, 1911년 조선유학생친목회가 결성되었고, 이것이 다음해 3월 해산당하자, 유학생들은 종래의 도별 유학생 구락부를 기초로 하여 1912년 10월 학우회 조직에 성공했던 것이다. 이회는 재일유학생이 조직한 단체 중 세력이 가장 컸으며, 처음 유학한 학생들은 반드시 이 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학우회 회원간에 교제를 하지 않는 자는 ‘일본의 개’로 취급받았다.<sup>25)</sup>

학우회는 임시총회 및 웅변회, 졸업생 축하회, 신도래학생환영회, 운동회 등을 통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했고, 아울러 기관지 《학지광》을 발간하여 유학생 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에게도 신사상과 반일사상을 고취했다.

창립 이후 1919년 2·8시기까지 학우회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심으로 운영에 참가하였던 인물을 열거하면, 제1그룹은 안재홍·신익회·백남훈·정노식·장덕수·현상윤·송진우·김성수·주종건·최두선·신석우 등이었다. 제2그룹은 2·8선언의 서명자들인 최팔용·김도연·이광수·김철수·백관수·윤창석·이종근·송계백·최근우·김상덕·서춘 등이었다.

25) 김인덕, 앞의 글.



특히 2·8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는 더욱 운동단체로의 조직이 강화되고 활동에 있어서도 내용성을 채워갔다. 1918년 2월 10일 정기총회 당시 역원들은 회장에 이공영, 총무에 이춘숙, 편집부장에 최팔용, 서무부장에 김안식, 운동부장에 이종근, 문서부장에 이세화, 그리고 평의원에는 윤창만·노익근·최팔용·성원경·서춘·민병세·김도연·김철수·이종근·고지영 등을 임명했다. 이후 이들의 상당수가 2·8운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학우회에 망라된 유학생들은 1918년 4월 3일 운동회에서 조선지도를 그려 놓고 한글로 단군의 소유라 하고, 단군의 기상이란 가장행렬에서는 을지문덕·정몽주·이순신·논개 등을 등장시키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1918년 10월 26일 학우회 주최의 신도래학생환영회에서 김준연·김철수·백남규 등은 한결같이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으며, 11월 10일 반도옹변회에서는 이춘균·민영길 등이, 16일의 조선학회 강연회에서는 노익근이 시종일관 독립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22일 학우회 편집부 주최의 연합옹변회에서는 계인상·김한근·성세풍·이병화·김환·김상덕·서춘 등이 민족자결론을 피력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의 자주독립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11월 30일 각급 학교 연합옹변회에서도 김범수·이용수·최원순·안성호 등이 시사문제를 언급하고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자결론을 피력했다.

이렇게 학우회는 다양한 형태의 집회를 통해 조선독립을 대중적으로 선전하고 조직의 강화를 도모했으며, 조선독립을 갈망하는 대중적 열기를 응집시켜 나갔다.

### (3) 2·8운동

#### 가. 2·8운동

2·8운동은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재일유학생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이 날의 운동은 재일유학생들이 하루아침에 계획하여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 첫째로 동경에 유학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일찍부터 서로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학문을 서로 권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하고, 상당부분 반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사실, 둘째 재일유학생들이 웅변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문제를 표명하고 민족사상을 보다 심화시켜 왔던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2·8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인이 발행한 《The Japan advertiser》에 실린, 이승만이 조선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간다는 소식과 미국 신한회의 독립청원 활동과 대한인국민회의 활동, 이광수에 의해 상해에서 독립운동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국에서도 불원간 투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 등이었다. 특히 미주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은 지용은의 귀국을 통해 그 활동상이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재일유학생들은 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준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즉 재일유학생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국제문제를 비롯한 시국문제를 논의했는데, 이에 기초하여 당시의 정세를 민족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 그리하여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과 연대를 구축하면서 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2·8운동을 지향하며 동경조선유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1918년 말 당시 재일유학생의 총수는 769명이었고, 그 중 642명이 동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제의 심장부인 동경은 당시 유학생 활동의 중심지였고 반일투쟁의 근거지가 되었다.

동경 유학생들을 결집시킨 학우회는 1918년 12월 29일 명치회관에서 망년회를 열었고, 1919년 1월 6일에는 동경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웅변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윤창석·서춘·이종근·박정식·최근우·김상덕·안승한·전영택 등은 당시 정세가 조선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동포들도 이미 각각 독립운동의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열변을 토하여 장대를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날 웅변대회에서는 독립운동의 방법을 둘러싸고 참가한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밤늦게까지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결국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임시실행위원을 선출하여 이들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10명의 임시실행위원을 뽑았다. 임시실행위원으로는 최팔용·전영택·서춘·김도연·백관수·윤창석·이종근·송계백·김상덕·최근우가 선출되었는데 이들 중 전영택이 병으로 사임하고 대신 이광수·김철수가 보충되어 임시실행위원은 모두 11명이 되었다.<sup>26)</sup>

선임된 임시실행위원들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것을 일본 각계와 각국 공사관에 송부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실행위원에 의거하여 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이 단의 이름으로 <선언서>와 <결의문> 및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하여 2·8운동의 중심조직인 조선청년독립단이 활동했던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오전 10시 경 이들 조선청년독립단은 <선언서>와 <결의문>, <민족대회소집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및 공사관과 일본 국회의원·조선총독부, 그리고 동경 및 각지의 신문사와 잡지사, 개별적인 학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도로 오후 2시부터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학우회 역원선거를 명목으로 하는 유학생대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동경유학생 거의 대부분인 약 600명이 참가했다.

회장 백남규가 개회를 선언하고, 최팔용의 사회로 대회의 명칭을 조선독립청년단대회로 바꾸고 역사적인 독립선언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백관수가 <독립선언문>, 김도연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런가 하면 2월 8일에 필요한 독립운동 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준비되었다. 한 가지 방법은 비밀장소에서 백관수 지도로 최원순·정광호 및 학생 10여 명이 복사관으로 관계문서를 준비한 것이며, 다른 한 가지, 특히 <민족대회소집청원서>는 일문으로 인쇄할 필요가 있어서 최팔용이 인쇄소에 부탁하여 1,000부를 준비하고 아울러 <선언서>와 <결의문>을 영문타이프로 준비했다.<sup>27)</sup>

26) <朝鮮人概況>, 대정 9년(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 三一書房, 1975), 99쪽.

27) 일설에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600부 등사했고, 청원서는 1,000부 인쇄했다는 기록과 <선언서>와 <결의문>을 10,000부 등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성식은 이광수의 <선언서>를 최남선이 보았을 것이고, 표현의 순서가 <2·8선언서>에 따라 <3·1독립선언서>도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국내와의 관계를 보면, 시위투쟁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최남선이 정노식을 만나서 동경의 2월 8일 시위에정일을 2월 20일로 연기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송계백에게 부치라고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쪽이 미리 조직적으로 투쟁준비를 함께 하지 못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국내에서도 청년과 학생들이 동경 학생들과 거의 동시에 시국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2월 8일경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특히 당시 준비과정에서 청산학원의 윤창석 등은 헤리스가 일본정부의 위촉을 받고, 파리로 가서 한국대표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도발을 중지시킨 일도 있었다.<sup>28)</sup>

#### 나. <2·8독립선언서>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2·8운동은 재일유학생, 특히 학우회·조선청년독립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조직, 전개되었다. 이들은 변화하는 세계사 속에서 이념과 사상을 선언과 결의문의 형태로 천명했다. <선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첫째, 조선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경우가 없는 민족이라고 하고, 미국과 영국이 일제의 조선침략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둘째, 침략의 부당성과 한일합방 후 10년 간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조선독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셋째, 한일합방 이후 10년 간의 식민통치는 우리 민족의 이해와는 배치된 다면서 우리 민족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독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넷째, 국제적인 환경을 볼 때, 일본이 지금까지 청일·러일전쟁을 구실로 한반도에 들어왔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자신만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를 점령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섯째,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를 계속한다면 일본에 대해 우리

28)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운동》, 128~129쪽의 각주 39.

민족은 영원히 투쟁할 것이며, 결국은 ‘동양평화의 禍源’이 될 것이라고 일본에 경고했다.

여섯째, 〈선언서〉는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서 신국가를 건설하고 반드시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선언문 중에서는 러시아는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버리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신국가의 한 모델로 러시아를 상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언서〉는 당시의 정세 속에서 기본적인 보편적 세계사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담아냈으며, 독립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선전했다.

#### 다. 2·8운동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

2·8운동 주도세력은 3·1운동 때의 초기 주도세력과 달리 강경한 입장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재일유학생의 구심으로 2·8운동 시기 다수가 가담했던 학우회는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이 일부 와해되었다. 그러나 이후 재건이 진행되었는데, 1919년 10월 11일 학우회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달호, 총무에 김준연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했다.

일부의 유학생들은 역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學友會學生同盟會를 조직하기도 했다. 다시 중앙조직은 개편되어 1920년 6월 회장에 김준원, 총무에 卞熙稼, 서기는 이창근이 담당했다. 그리고 외사부장에 고지영, 서무부장에 朴衡秉, 편집부장에 박석윤, 변론부장에 이궁종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렇듯 2·8운동은 학우회와 조선청년독립단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투쟁의 과정 속에서 단련된 대부분의 청년·학생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반일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후 2·8운동의 주체는 다양한 위치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반일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최원순은 국내로, 이광수·최근우·이봉수·손두환·주요한·안승모·류경환·윤창만·오의선·윤보선·고의봉·황환·정근모·정병모 등은 상해로 갔다.<sup>29)</sup> 특히 재일유학생의 반일투쟁은 2·8운동이 일어난 이후

29) 〈朝鮮人概況〉(대정 9년), 109~110쪽.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1919년 2·8운동 이후 일본 유학생들은 재일조선인 내부에 들어가 이들을 계몽하고 각성시켜서 상호부조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헌신했다.<sup>30)</sup>

#### 가) 동경지역

2·8운동의 다음날인 2월 9일 麴町區 中六番町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는 기숙사에서는 서춘·이중근·최승만·김항복 등이 동맹퇴사를 모의하고 80여 명의 기숙사생의 총퇴사 단행을 성공시켰다.<sup>31)</sup> 이날 기숙사 입구 앞뜰에서 전 기숙사생이 모여 총퇴사를 결의하고,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박수로 투쟁을 준비했다.

제2차 2·8운동 계획도 있었다. 유학생들은 2·8운동 3, 4일 후에 日比谷 공원 광장에서 제국의회에 독립을 청원하고 후임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유학생대회를 열고, 회장에 이달을 선출하여<sup>32)</sup> 기만과 위협으로 무단정치를 자행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조선독립을 선포하는 〈선전문〉을 작성하여 뿌리거나 선동연설을 하기로 했다. 〈선전문〉은 1919년 2월 12일 최승만이 작성하고, 변희용·장인환·강종섭·최재우·최승만이 서명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sup>33)</sup>

또한 유학생들은 2월 23일 2·8독립선언에서 요구한 민족대회 소집을 촉진하기 위한 집회<sup>34)</sup>와 시위를 계획했고, 변희용·최재우·강종섭·최승만·장인환 등은 검속되었다. 이후 2·8운동의 주체는 지역적·성적·출신성분적 차별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반일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특히 조선에서 3·1운동이 발발하자 동경의 재일유학생들은 3월 9일 재동경조선청년독립단 동맹휴교촉진부의 명의로 유학생들에게 학교를 동맹휴학하고 귀국하여 본국의 운동에 합류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띄웠다.<sup>35)</sup> 그리하여 2·8운동 이후

30) 강재인, 〈2·8독립선언과 3·1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15쪽.

31) 〈朝鮮人概況〉(대정 9년), 100쪽.

32) 위와 같음.

33) 최승만, 〈2·8독립선언의 실상과 사적 의의〉(팜플렛, 서울YMCA), 4쪽.

34) 〈朝鮮人概況〉(대정 9년), 100쪽.

35) 위와 같음.

5월 15일까지 본국에서의 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했다. 일본경찰의 조사기록만 보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귀국한 조선인 총수는 491명이었고, 그 가운데 유학생만 359명이었다.<sup>36)</sup>

한편 2·8독립선언이 있는 1년 뒤인 1920년에 김준연·최승만·박승철·서상국 등은 〈2·8독립선언 1주년기념축하문〉을 작성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에 발송하여 독립의 기세를 올리려고 하다가 일본경찰의 감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군비축소·중국문제·태평양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자 11월 5일 학우회는 임시총회를 가장해서 조선기독청년회관에서 모여 조선청년독립단의 대표 이동제·김송은·문원성·이홍삼·전민철의 이름으로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sup>37)</sup> 여기에서는 세계평화와 조선문제의 관계를 거론함에 있어 ‘조선 독립이 극동평화와 세계평화의 원동력’임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오사카지역

3·1운동 이후 오사카에서도 시위운동이 준비되었고 이 계획은 기밀이 누설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내막이 오사카지방 신문에 대서특필됨으로써 조선인의 독립시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sup>38)</sup>

특히 3·1운동의 소식을 접한 염상섭은 오사카에서 이경근·백봉제·고영순·권태형·김시창·김형식·호정호 등과 만나 시위를 공동계획했으나 동의가 없었다. 이에 염상섭은 변회용의 도움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자신이 기초한 〈선언서〉와 〈격문〉<sup>39)</sup>을 갖고 이경근과 백봉제를 만나 이들의 도움으로 복제했다.

염상섭은 오사카의 공장지대를 돌며 〈격문〉과 붉은 완장을 돌리고 3월 19일 오후 3시에는 오사카 天王寺公園에서 〈조선독립선언서〉 230매와 〈격문〉

36) 〈朝鮮人概況〉(대정 9년), 101쪽.

37) 〈在京朝鮮留學生概況〉, 325쪽.

38) 정혜경, 앞의 책, 87쪽.

39) 〈朝鮮人概況〉(대정 9년), 107~108쪽.

1매, 일문 〈조선독립선언서〉 13매를 휴대하고 시위를 주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인들에게 〈조선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고 내각총리대신·중앙위원장·신문사·대학교수 등에게 보내는 〈선언서〉를 낭독하고 경찰에 체포되었다.<sup>40)</sup>

‘재대판한국노동자일동 대표 염상섭’의 명의로 발표된 〈선언서〉는 자유와 자각 그리고 독립에 대해 강조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며, 일본이 주장하는 동조동근이나 일선동화가 억측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독립을 선언하는 명분과 근거로서 조선인의 자각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들고 있다.<sup>41)</sup>

이 사건은 2·8운동의 연결선상에서 오사카지역 재일조선인이 중심이 된 운동으로 1920년대 오사카지역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1919년 6월 후쿠오카현 치쿠호(筑豊)지방의 탄광에서 일어난 조선인 갱부의 쟁의가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42)</sup>

#### (4) 192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가. 1920년대 초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서의 반일투쟁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일본에서도 재일조선인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발진기의 단체 중심의 재일 조선인운동이 본격화된 사건은 니가타현(新潟縣) 朝鮮人勞働者虐殺事件이었다. 1922년 7월 니가타縣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 100여 명이 학살된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와 일본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조선인 단체를 조직했던 것이다. 그 결과에 기초해 1922년 도쿄와 오사카에서 朝鮮人勞働同盟會가 결성되었다.

1920년대 전반 재일조선인 조직 가운데 활동성이 강한 사상단체 조직으로는 黑友會·東京朝鮮靑年同盟會·北星會·日月會·朝鮮女子三月會·新興科學

40) 《매일신보》, 1919년 4월 21일.

4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963쪽.

42)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三一書房, 1979), 63쪽.



研究會・朝鮮무산자사회연맹・조선인신진회・재대판고려무산청년동맹・재일본배달소년단・攄조선인노동동지회청년단・계림무산청년동맹・조선노동청년단・兵庫縣조선무산동맹 등이 있었다.<sup>43)</sup> 이 가운데 1920년대 초 사상단체운동의 중심적 역할은 북성회・일월회가 수행했다.

#### 가) 북성회

北星會는 흑도회가 1922년 11월 아나키스트와 불세비키로 분화되어 金若水・金鍾範・宋奉瑀・李如星・安光泉 등 60여 명이 조직했다.

북성회의 활동은 크게 국내와 일본지역에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 내 순회강연회・토요회・건설사・북풍회 등의 조직을 들 수 있다. 북성회의 조직원들은 정치적 활동무대를 찾아 조선으로 돌아왔다. 과거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상당수가 1924년 11월 25일 13인의 핵심적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북풍회를 조직했다.

#### 나) 일월회

日月會는 북성회의 계속 조직으로 1925년 1월 3일 결성되었다. 이 조직의 상당수는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三月會・在東京朝鮮無產青年同盟 등의 간부를 겸하면서 조직을 지도・원조했다. 1926년 11월 28일 일월회는 해체되고 政治俱樂部를 조직했다.

재일본 조선민족해방운동을 내용적으로 지도하던 일월회내에는 혁명사의 구성원이 들어가 활동했으며 혁명사 도쿄책임은 허장환이었다. 일월회는 1926년 3월 19일 〈분열으로부터 통일에〉라는 팜플렛을 발행했다.<sup>44)</sup>

여기에서 다시 한번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사상운동》을 통해서 원칙적인 이론투쟁을 제기했다. 1926년 11월 12일 일월회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동경조선청년동맹・삼월회 등의 간부들과 함께 정우회・前進會와의 항쟁에 대한 박멸과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선언에서 파벌주의의 박멸에

43) 朴慶植, 위의 책, 105쪽.

44) 〈社告〉(《사상운동》 3-4, 1926), 40・37쪽.

日本内務省警察局保安課, 〈大正十五年ニ於ケル在留朝鮮人ノ狀況〉(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212쪽.

대해 언급했다.

일월회의 자매여성단체로 삼월회가 1925년 3월 李賢卿·황산덕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무산계급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 다) 관동대지진과 재일조선인

1923년 9월 1일 정오 2분전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일본 관동지방에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백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사이토(齋藤實)총독은 일본의 각 신문에 관동지방에서 살고 있던 조선인은 노동자 3천명, 학생 3천명, 합계 6천명으로 이 가운데 조사결과 살해당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했다.<sup>45)</sup> 사실의 은폐는 일본정부의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제는 1923년 11월 15일 현재 피살자 233명, 중상 15명, 경상 27명으로 발표했다.<sup>46)</sup>

김승학의 조사에 따르면 학살된 조선인은 관동 전체에서 6,661명이었다.<sup>47)</sup> 최소한 6천명 이상이 학살당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학살당하게 된 요인은 유언비어였다.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았던 날조된 유언비어는 일본국민 사이에 빠른 속도로 유포되었다. 1923년의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정부의 유언비어에 일본민족이 넘어가 관동대지진을 빌미로 조선인을 학살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 운동조직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재일조선인 가운데에도 선진적인 활동가들은 투옥되거나 감금상태였기 때문에 학살사건에 대한 전술도 없었고 규탄운동을 할 체제도 갖추지 못했다. 물론 일본노동자와의 국제적 연대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 연대의식이란 평상시 일상적인 수준에 머문 것이었다.

1923년 학살 이후 죽을 고비를 넘긴 조선인들은 소실을 면한 유일한 조선인단체였던 천도교청년회 사무실에 모였다. 예정없이 모인 사람들은 제출된

45) 김건, <학살> (《한국독립운동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984쪽.

46) 자세한 내용은 김인덕,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현장>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1, 자작나무, 1998).

47)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10월 상순 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를 결성하고 조사사업에 착수했다.

한편 相愛會의 朴春琴은 조선인이 무참히 학살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주범인 경시총감 아카이케(赤池濃)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춘금 등의 상애회 일파는 경시총감이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선두에 서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을 과시하듯 지진 뒷정리의 일환으로 동경 시내를 청소했다. 이후 이들 반동주구단체 상애회 일파는 일제의 지원하에 발전을 거듭했다.

1923년 조선인 학살로 재일조선인 운동은 일시 후퇴했다. 그러나 학술문제를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조선인은 빠른 속도로 조직들을 결성했다. 반인륜·반민중적 학살을 경험한 재일조선인은 반일투쟁을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 나. 192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국내 대중운동의 고양과 함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도 일본 전역에서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의 조직적 성과에 기초해 전국적인 대중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재일조선인 노동운동단체는 초기의 상호부조와 친목을 목적으로하는 경향에서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함께 계급해방을 내건 조직으로 성장해 갔는데 가시적 산물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었다. 이 단체는 1925년 2월 22일 오전 10시 조직되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기존의 각종 조선인단체를 통일하여 대중을 단결시켜낸다는 단체 가입의 원칙 아래 12개 단체 800명으로 출발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조직확대가 계속되어 1925년 10월 1220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다. 물론 그 이전에 동맹회 조직들이 존재하여 재일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활동은 일월회의 지도와 기타 대중단체와의 공동으로 행해졌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된 1925년에는 조선수해 이재민

구제운동과 小樽高等商業學校 군사훈련사건 규탄운동이 있었다. 이와 함께 三重縣壓殺事件에 대한 조·일연대투쟁이 있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1926년 2월 10일 삼월회·재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일월회와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의 무산계급에게 연대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일본지역에서의 방향전환을 외형상 주도해 갔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정치부는 1927년 1월 12일자로 <방향전환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민족적 단일정당의 결성을 선동했다.

1926년이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중앙간부들은 조직의 개편에 대해 고민하다가 당시 합동조합에 지나지 않던 각 조합을 산업별 혹은 직업별로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보류하고 당분간 지역정리에 노력했다.

방향전환론이 대두한 이후 최초의 대회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제3회 대회가 1927년 4월 20일 열렸다. 대회는 선언과 신강령을 채택했다. 선언은 민족·계급적 차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의 노동생활은 일본의 노동자에 비하여 거의 특수한 취급을 받고 있다. 민족적 차별과 학대는 우리에게 이중의 질곡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유노동자이기 때문에 조합의 형태는 직업별·산업별 기준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는 언어가 불통, 감정이 다르고 습관이 상이하며 지식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일본노동조합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내부에서는 자유노동자만으로 한정하고 공장노동자는 일본노동조합평의회에 가입하기로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민족별 차별 등 특수한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채택되었다. 제3회 정기대회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각지에 분산적으로 조직된 조합을 정리·통합하려는 '1府縣 1組合' 원칙을 수립했다. 개편된 조직은 최고기관으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이 있고, 각 부현에 조합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부를 설치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제4회 대회는 1928년 5월 13, 14일 양일간 東京帝國

大學 셋츠루멘트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대해 조선공산당 4차당 일본총국은 조직적인 준비를 했다. 당시 朝鮮共產黨日本總局의 대책은 ① 간부의 전형, ② 신간회 지도문제 논의, ③ 대판조선노동조합 분쟁의 해결, ④ 기관지 발간, ⑤ 대회결과와 정리 등과 같았다.

당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간부는 조선공산당 4차당이 장악하여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주도권을 일본총국이 잡았다. 제4회 대회는 오사카사건의 처리와 함께 일반정세보고와 12개안의 토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회 대회는 산업별 조합의 조직에 대해 토의했다.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1산업 1조합주의'로 본격적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실현되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있어 제4회 대회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을 노동조합으로 확인한 대회였다. 그러나 자유노동자 중심의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공장노동자의 경우도 대부분이 가내, 영세 사업장 취업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업별조합으로의 재편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1928년 9월 재편성 지령이 내려졌으나 실시되지 못했고 지역별 조직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한편 제3회 대회 이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조직의 강화와 이에 따라 대중적 정치투쟁을 전개했다. 1927, 1928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활동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7년의 경우, 첫째 각 조합을 지역단위에서 정리하여 과거의 소규모 조직을 전부 해체하여 1府1縣에 단일조합을 설치하여 대중의 자연생장적 소결합체를 의식적 결합체로 상승시켰다.

둘째 조합의 활동분자들의 교육을 강화했다. 재일본 조선노동자는 70% 이상이 문맹으로 계몽사업이 대단히 중요했다. 구성원들은 조합활동의 의의와 한계 등에 대해 무지한 상태여서 강사의 파견, 교재의 제작 그리고 강좌의 설치로 교양을 실시했던 것이다. 셋째 조·일 연대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갔다.

넷째로 전민족적 단일당 결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조선인 노동자의 일부로 일본의 노동시장에 고립되어 있는 재일조선인 노동자는 전민족적 단일당 결성운동에 참가했다. 조선인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투쟁에 국한해서는 해결을 볼 수 없고 정치운동을 긍정하고 전민족적 단일당 결성을 주저없

이 결성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1927년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총독부 폭압정치 반대운동이다. 이것은 지부의 연설회·강연회 등을 통해서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의 민족적 정치세력화가 보다 강화되었는데, 조선총독 폭압정치 반대운동에만도 전국적으로 1년간에 23회의 연설회, 14회의 시위, 40회의 빠라 살포가 있었다.

1928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지역 단위조직의 활성화에 따라 지부·반 조직의 강화가 눈에 띈다. 이 가운데 동경과 오사카지역의 조선인 노동조합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산하조직으로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플렉션에 의해 지도되었다.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은 1928년 활성화된 지부·반 조직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전개했다. 조선 내의 탄압, 간도공산당사건에 대한 항의 등이 빠라로 선전되었고, 7, 8월에는 국치기념일, 관동대학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일본의 조선지배 전체를 비판하고 정치적 선전을 대대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삼총해금운동과 1927년 이후 계속된 조선총독부 폭압정치 반대운동이 있었다.

국내와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투쟁을 계속하여 하의도 소작쟁의 때에도 조선농민총동맹과 연락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6월 부산 전차스트라이크에 대해서도 선전활동을 전개했다.<sup>48)</sup>

1929년에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은 원산총과업 지지 활동을 전개했고, 나아가 관북이재민 구원을 위해서 朝鮮水災神奈川縣救濟會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후에는 이와사키(川崎), 히가시 요코하마(東横濱) 등에 분회가 조직되었고 국내 동포의 참상이 널리 알려졌다.<sup>49)</sup>

#### 나) 조선공산당 일본부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창건되었다. 이것을 소위 1차당이라고 한

48) 金浩永, 〈釜山電車乗務員の罷業を勝たせろ〉(《進め》, 1928년 7월).

49) 神奈川縣조선노동조합본부, 〈神組 ニュース〉10(내무성 1928년 11월 13일 압수 문건, 早稻田大學 마이크로필름실 소장).

다. 조선공산당 1차당 시기 일본에는 일본부가 설치되는데, 이 조직은 崔元澤이 책임을 맡았다. 최원택의 지도로 金燦·이석·金正奎로 야체이카가 조직되었다. 조선공산당 1차당 시기 일본부는 당시 일본지역의 재일조선인의 여러 조직과 공산주의 세력을 묶어 내지는 못했다.

조선공산당 2차당은 제3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본부 책임자로 김정규를 선정하여 그에게 일본부조직에 관한 모든 지령을 내렸다. 조선공산당 2차당이 일본부를 설치한 목적은 조선 내 기타 조직과 연락하며, 아울러 일본의 공산주의자들과 연락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부 책임비서에게 일본에서의 당원신분, 야체이카조직, 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조선공산당 2차당 시기에는 일본내에 공산주의적 경향을 갖은 청년학생들의 서클적 모임은 있었으나 아직 당조직 안에 高麗共產靑年會 일본지부가 조직되지는 못했다.

일월회계의 국내 진출과 함께 일본부는 조선공산당 3차당 안광천 책임비서 때 부활되었다. 안광천은 일월회 시기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부를 재건했다. 책임비서 朴洛鍾으로 조직된 일본부는 일월회에서 활동하던 다수가 포진하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는 매월 한번씩 개최된 간부회의를 통해 중요사항을 의결·수행했다. 일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조선공산당원들은 지역적 특이성과 인테리직 성향, 공산주의 이론흡수의 상대적 선진성 때문에 조선공산당 중앙의 전술과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일본부의 구성원은 조선공산당 중앙의 계급투쟁의 선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당의 지도정신이 혼란함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위한 이론학습과 신간회를 통한 민족해방운동을 제안했다. 일본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3차당 시기와 와서 재일조선인 조직운동이 강화되어 처음으로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의 주요한 활동은 조직의 확대 강화와 유학생과 재일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선전활동이었다. 조선공산당 3차당은 “노동자는 전민족운동의 선두가 되자”, “모든 힘을 신간회로”라는 슬로건을 제기했다. 조선공산당 3차당 시기 일본부 야체이카는 각종 노동단체와 공장 안에 들어

가 조직사업을 전개해 동경·오사카·교토·요코하마에 60명의 당원을 포섭했다.

한편 국제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지역당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며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서 활동을 전개했는데 조선공산당 일본부도 일본공산당과 연계관계를 갖고 있었다. 조선공산당 일본부 조직에 대한 일본공산당과 사회주의자의 관심은 일정하게 존재했고 특히 1, 2차 조선공산당에 대한 공판이 임박하자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sup>50)</sup>

조선공산당 4차당 중앙은 일본총국과 만주총국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 3차당 일본부는 일본총국으로 1928년 4월 경 재건되었다. 5월 조선공산당 4차당 책임비서 차금봉의 지령에 따라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간부가 결정되었다.

조선공산당 4차당 시기 고려공산청년회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는 1928년 3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 간부로 책임비서에 印貞植을 선정했다. 그리고 關東部와 關西部를 설치했고, 다시 관동부를 東京區와 橫濱區로 나누었다. 일본총국 한림책임비서 시기의 당 플렉션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동경지회, 동경조선노동조합 등에 설치되었다.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활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강화와 계급의식의 고양, 반일사상의 고취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리고 선전활동을 통해 당원의 획득과 당세의 확대에 노력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일본총국과 대중단체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 그리고 각 지부·반의 플렉션을 통해 전개되었다.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은 당 중앙의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쟁취와 신간회 전술에 주목했다.

#### 다)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

일본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전술했듯이 동경·오사카 등지를 중심으로 사상·청년단체가 계속적으로 결성되었는데, 1925년 1월 기존의 朝鮮無産青年會·東京朝鮮無産青年同盟이 합동하여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가 되었다.

50) 〈再び捕縛された朝鮮共産黨員に對する大衆的釋放運動を起こせ!!〉(《赤旗》3, 1928년 3월).



白武·李如星·안광천 등이 주도한 이 조직은 회원자격을 25세로 한정했다.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는 1926년 11월 일본에서 무산정당운동이 활성화되자 널리 청년을 규합하여 공동전선을 조직하기 위해 ‘무산’의 두자를 빼고 ‘동경조선청년동맹’으로 개칭했다. 이밖에도 오사카의 대판고려무산청년동맹이나 효고(兵庫)의 兵庫縣조선무산동맹의 경우도 개칭하여 지역청년운동의 구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삼일청년회가 오사카에서 활동했다.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는 조직적인 연계와 제휴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며 1926년 1월부터 기관지 《청년조선》(월간)을 발간했다. 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는 강령의 실현을 위해 선전활동을 지속했던 것이다.

#### 라) 동경조선청년동맹

재일본무산청년동맹은 박찬을 위원장으로 고학생과 무산청년을 중심으로 1925년 조직되었다. 이 조직이 1926년 겨울 개칭하여, 일월회의 해체와 함께 일월회의 회원으로 25세 이하의 다수 청년이 가입하여 東京朝鮮靑年同盟으로 새롭게 발족되었다.

발족 이후 동경조선청년동맹은 조선청년총동맹에 가맹했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조선청년운동의 최고기관으로 중앙이 경성에 있었고 각 도에 도연맹, 군에는 군동맹이 결성되었다. 동경조선청년동맹은 조선 내의 府·縣동맹과 같은 자격의 단위단체였다.

동경조선청년동맹은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프린트로 기관지 《청년조선》을 속간했는데, 이 기관지는 단순한 재동경조선청년동맹의 기관지에서 전국적 청년신문으로 발전할 전망을 갖고 있었다.

동경조선청년동맹의 활동은 다른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조직보다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조직은 사회과학의 교양에 필요한 강좌와 강연회·독서회를 주로 개최했으며, 연대 투쟁도 활발히 전개했다.

#### 마)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지역에서 청년운동의 조직화에 따라 재일조선인 청년운동단체도 전국적인 조직전망을 갖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1928년 3월 21일 오후 6시 오사카 天王寺 공회당에서 창립대

회를 열어 결성되었다.

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의 결성과 함께 청년운동진영의 조직은 보다 강화되어 동경·오사카·교토의 조선청년동맹이 지부로 변경하여 조직내에 들어왔다.<sup>51)</sup> 그리고 1929년 4월에는 효고지부가 결성되었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가장 긴밀한 우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간부들은 양쪽의 역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제로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에서 공산주의계를 대표하는 2대 세력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조직에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고려공산청년회 플렉선이 들어가 있었다. 이들의 지도로 실제 투쟁은 조직되었는데,<sup>52)</sup> 특히 기관지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삼충해산음모에 반대하여 해금운동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고 치안유지법 개악, 조선 증병과 중국출병반대,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에 일어난 조선의 학생동맹휴학투쟁 지지 등을 표명했다.

이상과 같은 1928년 시기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함께 4대 기밀투쟁과 조선총독 폭압정치 반대운동, 삼충해금운동, 삼단체 해산 반대운동, 치안유지법개악 반대운동, 조선 증병·경찰 증치·중국출병 반대운동,<sup>53)</sup> 그리고 식민지교육 반대운동과 특히 국제연대조직 사업과 투쟁 등을 전개했다.

#### 바) 학우회

1920년대 학우회는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재일조선인 유학생단체, 예를 들면 조선기독교청년회·조선학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다.

조선기독교청년회와는 이명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학우회는 1925년 일월회계의 한림에 의해 조직이 장악되어, 기존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일정하게 벗었다. 학우회가 합법적 대중단체이기 때문에 다수가 재일조선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학우회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재일본조

51) 《대중신문》, 1928년 4월 1일(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5), 388쪽.

52) 〈재류조선인운동상황〉(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2-1, 1930), 137쪽.

53) 〈조선청년총동맹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대관지부 東南반 반보〉 1(내무성 1928년 8월 15일 압수문건, 早稻田大學 마이크로필름실 소장).

선인노동총동맹·동경조선무산청년동맹회·재일본조선청년동맹·일월회·신홍과학연구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학우회의 사업은 주로 대중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연회·연구회·운동회·옹변대회·환영회·환송회·축하회 등을 통해서 대중교양과 계몽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공산주의와 반일투쟁사상을 선전·선동했다.

재일조선인 유학생운동은 1920년대 초에 주로 학우회와 각종 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달리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학우회 활동이 침체되면서 신홍과학연구회를 비롯한 공산주의계의 유학생 운동단체가 선전·전투적인 투쟁을 주도했다.

#### 사) 신간회 일본지역 지회

1927년 5월 7일 早稻田대학 스콧트홀에서는 新幹會 東京支會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동경에 신간회 지회가 빨리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단일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와 연결되어 동시에 전개되었던 점과 지속적으로 공동투쟁이 동경지역에서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신간회 동경지회는 1928년 초 본부와 대립했다. 그 계기는 대회금지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또한 동경지회의 기관지 발간을 놓고도 본부와 대립했다. 동경지회는 1927년 성립된 이후 기관지 발행을 계획했고,<sup>54)</sup> 제2회 대회에서도 결의되었으며 그 해 6월 내지는 8월에는 동경지회의 기관지로 《신간신문》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결국 본부의 발간중지 명령으로 햇별을 보지 못했다.

신간회 동경지회에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당 조직 개편 때인 1928년 4월, 韓林·姜小泉이 플렉션으로 활동했고, 6월에 가서는 서인식·임종웅으로 개편되었다.<sup>55)</sup> 특히 신간회 동경지회는 조직 초부터 무정부주의계의 재일조선인단체와는 조직적, 개인적으로 거의 연대를 구축하지 않았는데 이후에도 무정부주의계와는 계속 대립관계였다.

54) 《중외일보》, 1927년 7월 20일.

55) 〈1929年の共產主義運動〉(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4), 38~39쪽.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과 조선공산당이 연대하여 결성한 신간회는 동경지회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을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조선인단체협의회 등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전개했다. 조직 이후 신간회 동경지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동단체 민중회 박멸운동, ② 관동대지진 학살동포 추도회, ③ 조선총독폭압정치 반대운동, ④ 조선공산당사건 비공개공판 반대운동, ⑤ 자꼬 반제티 사형처분 반대운동, ⑥ 중국시찰단 조선대표 파견운동, ⑦ 국치일 기념운동, ⑧ 러시아혁명 기념운동, ⑨ 조선인대회 소집, ⑩ 西神田署 고문사건 항의 등이었다.

신간회 동경지회는 대중투쟁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1927년 9월 17일 신간회 동경지회 회관에서 조선총독폭압정치반대관동지방동맹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신간회 동경지회·학우회 등과 동경조선청년동맹·동경조선여자청년동맹·동경조선노동조합·동경조선노동조합 4지부·신흥과학연구회·협동조합운동사·여자학흥회의 모두 14단체가 참가했다.<sup>56)</sup> 조선총독폭압정치반대관동지방동맹은 1927년에 결성된 조선인단체협의회에서 아나키즘계를 제외하여 구성되었으며, 결국 신간회 동경지회와 같은 구성이었다.

1929년 신간회 동경지회는 개별 단위운동을 조직하며, 투쟁을 지속했는데, 주요한 투쟁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도일저지 반대, ② 거주권 확립, ③ 삼총해금, ④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획득, ⑤ 〈치안유지법〉 제령 제7호의 철폐운동, ⑥ 이민 반대운동, ⑦ 증병증경 반대운동, ⑧ 민족적 차별배척 및 특수 폭압 반대운동, ⑨ 부당 금족·구인·검속·불법감금 및 고문경찰 반대운동, ⑩ 학교 내 사범경찰 간섭 반대운동, ⑪ 내선융화 기반정책 반대운동, ⑫ 해방운동 희생자 구원운동, ⑬ 정치적 자유획득, 노동동맹 지지 등이었다.<sup>57)</sup> 이러한 활동은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의 긴밀한 유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실제로 신간회 동경지회의 1929년의 주요 활동은 원산총파업을 지지하는 격려 전보를 발송한 것, 3·1기념일·국치기념일 연설회 등이 있었다. 그리

56) 《동아일보》, 1927년 9월 22·24일.

5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3, 85~86쪽.

고 제3회 대회에의 준비 이외에 1929년 9월 조선인 노동자 강제송환에 대한 항의 활동지령을 본부로부터 접수한 것 말고는 1931년 신간회 해소 때까지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신간회 일본지역 조직은 도쿄·나고야·오사카·교토지회가 있었다.

#### 아) 근우회 동경지회

민족단일당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조직된 신간회 일본지역 지회와 함께 근우회 일본지역 지회도 결성되었다.

근우회 동경지회의 창립대회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1928년 1월 21일 열렸다. 이 조직은 신간회 동경지회가 쓰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조직·활동의 내용은 상당 부분 신간회와 함께 했다. 특히 본부와 동경지회 간의 대립에서도 횡보를 함께 했다.

근우회 동경지회는 1929년 6월경부터 내분으로 활동에 많은 장애가 초래되었다. 동경지회는 1929년 이후에는 실제활동의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신간회 동경지회의 자연해산과 함께 조선 내 근우회의 해체를 기다리지 않고 일본 각지의 지회와 함께 해산했다.

동경지회의 활동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1928년 3월 18일부터 전개한 여성문제 대강연회였다. 이 모임은 재일조선인 대중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조에 의해 전개되었다.<sup>58)</sup> 이 자리에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신간회 동경지회·동경조선노동조합·학우회·프로예술동맹 동경지회·신흥과학연구회·재일본조선청년동맹·三總解禁同盟 등의 찬조연설이 있었다.<sup>59)</sup> 이와 함께 일본지역 근우회 조직은 교토지회·오사카지회가 있었다.

#### 자) 조선인단체협의회

朝鮮人團體協議會는 정우회선언 이후 국내 및 일본에서의 통합운동의 결과 1927년 2월 19일 결성되었다.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단체들은 3·1 기념투쟁·국치일 투쟁·관동대

58) 《대중신문》, 1928년 4월 1일.

《동아일보》, 1928년 4월 14일.

59) 早稻田大學 마이크로필름실 소장.

지진·조선인학살 추도회 등을 전개했고, 이것이 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의 토대가 되었다. 조선인단체협의회는 형식과 실재에 있어 신간회보다 광범위한 조직으로 주의·주장이 다르더라도 조선인으로 조선민족의 해방을 회구하는 단체 18개가 결집했다.

신간회 동경지회의 설립이 재일조선인 단체의 공동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간회 동경지회를 주도하던 인물 가운데 조선인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던 조직의 구성원이 많이 포진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인단체협의회에 참가했던 아나키즘계 단체는 신간회의 운동에 대해서 대립하다 탈퇴했다.

이상과 같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조직과 함께 불교·천도교 조직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재일조선인은 일본 전역에서 끊임없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다. 1910년대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초기 유학생 중심의 단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며 전개되었고, 그 가운데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체득하게 되었다.

1910년대에 결성된 단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sup>60)</sup> 첫째, 노동자 구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둘째, 1910년대에 결성된 단체가 1920년대 초에 결성된 단체에 비해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결성의 목적이 추상적이고, 대상이 제한적이며, 지도부의 잦은 변동을 들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조직운동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했다. 1925년에서 1931년 시기 재일본 조선민족해방운동사에서 조직의 중심은 일월회→조선공산당 일본부→조선공산당 일본총국→‘재건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무산자사·‘일본출판부’로 옮겨갔다. 이러한 전위조직은 대중단체인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재일본조선청년동맹·신간회·학우회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했다.

1920년대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단체 중심으로

---

60) 정혜경, 앞의 책.

발전하던 1920년대 초 재일조선인 운동은 관동대지진으로 일시적 공백이 없는 않았으나 조직적인 재건이 대중운동의 고양과 함께 이루어져 보다 투쟁이 강화되었다.

발전의 고양기를 향해 치닫던 1927년에는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운동단체 연대에 기초해 공동투쟁의 길로 나아갔다. 1928년은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의 조직강화가 도모되어 야체이카와 플렉션을 통해 직접 대중단체의 지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29년에도 재일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은 거듭되었다.

〈金仁德〉